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7호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8 1994~2022 (불기 2566년 음력 9월 17일)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5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사부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불교중흥 새역사 열겠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
10월 5일 조계사·우정국로 특설무대서
전국서 사부대중 1만여 명 운집해 축하
국회의원 60여 명 참석…역대최대 규모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어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가 10월 5일 서울 조계사와 우정국로 일대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종도들이 공의를 모아 단일 후보로 무투표당선된 첫 사례인만큼, 취임법회는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종단 안정을 토대로 화합·상생의 가르침을 대내외로 확산시키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기술문명의 발전 속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환경문제, 감염병 창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안팎으로 산적한 어려움들이 인류의 큰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가 중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며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길을 열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불교가 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불교계 내부적인 혁신도 강조했다. 스님은 "세계적인 종교의 위기, 종교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불교중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단 운영 시스템 변화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이 시대의 참 종교의 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비롯한 의원 스님들과 전국 교구본사협의회장 덕문 스님(화엄사)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신행 및 포교단체, 신도 등 1만 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각당 대표들과 국회의원 60여 명 등 정계 인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진우 스님의 향후 행보를 격려하고 부단한 수행과 정진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종단 내 갈등을 참회와 포용으로 섭수하고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법도대로 종단을 운영하며, 종도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희망과 감동을 주는 종단으로 그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모습은 만 중생의 복전이 되며 불교중흥을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사부대중의 지혜와 공감이 세상과 함께하는 원력으로 나간다면 불교중흥의 길이 훤하게 열려 불교가 우리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불교는 17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의 흥망성쇠와 함께 하며 호국애민·대자대비 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했으니, 진우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중흥은 그동안 실천해온 역사와 일맥상통한다. 그 크신 자비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모든 중생들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을 떠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살의 삶을 서원한다"며 "오늘 함께 한 사부대중 모두는 진심을 다해 이웃과 소통하고 신심을 다해 원력을 세워 전법의 길에 나서며 공심을 다해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한국불교 새로운 중흥을 위한 대장정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발원했다.

〈관련 인터뷰·기획 A2~5면〉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 祝 詩

길을 묻는다

진리의 길을 듣는다
소리 없어도 들리고
모양 없이도 보이는
오롯한 眞性진성의 길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복잡한 인생 길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鬪爭牢固투쟁뇌고 세상 길

산모퉁이 돌지마자
찍찍 짹짹 노래하며
즐겁게 놀던 산새
인기척 듣자마자
훅~~ 날아가며
날개 짓에 남긴 말
忘我망아에게 물어 봐

텅~~ 빈 하늘
하얀 구름 뜨 가며
주인공에게 물어 봐.

영축산 통도사 시탑전에서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며
현대불교신문 제28주년을 맞아
창간의 그 날 묘공당 주인공 환한 미소가
함께 한 모든 대중이 법희선열에 충만했던
화호를 상기하며
금강행자 법산 미소지으며



법산 스님은

1945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5세에 남해 화방사에서 출가했다. 1980년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 입학해 6년간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86년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조교수에 부임한 스님은 2010년 정년퇴임까지 25년간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인도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등 주요 불교학회의 학회장과 학교법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소외된 약자와 고통받는 중생 보듬고 정진할 터”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이후 한국불교 새 중흥의 의지를 다지며 분야를 넘나드는 광폭행보와 열린 소통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진우 스님은 本紙와의 인터뷰에서 원력과 다짐을 밝혔다.

정리=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5일 봉행된 취임법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빈과 대중이 운집해, 한국불교의 발전 가능성과 새로운 위상을 확인하는 법석이었다는 평가다.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제시한 청사진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실질적인 해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를 넘어 탈종교화 및 종교인구 감소로 고착화 수순을 밟고 있는 종교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취임 이후 한국불교 새 중흥의 의지를 다지며 분야를 넘나드는 광폭행보와 열린 소통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진우 스님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本紙 창간 28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스님의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고민과 원력, 총무원장으로서 보다 깊은 속내를 듣고자 했다.

인터뷰는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됐다. 소탈하고 진솔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지닌 본연의 가치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고, 그 본질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곧 한국불교의 새 중흥을 이끄는 토대라고 봤다.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현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을 구상했고, 그 길을 사부대중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진우 스님을 일컬어 “준비된 총무원장”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의 공약 하나하나가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진우 스님은 그동안 종단 내 두루 맡아온 소임을 통해 쌓아온 신뢰, 두루 원만하고 소탈한 성품, 37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보여준 행보와 종책 공약 등에서 두루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구본사 본말사 주지와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두루 거쳐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가 밝을 뿐 아니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혼란한 종단을 빠르게 안정시킨 이력도 주목된다. 결국 스님이 수행자로서 보여준 행보가 종도들의 신뢰와 기대를 모은 토대인 셈이다.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정작 스님은 의연한 모습이다. “그저 수행자로서 살아온 바대로, 해야 할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부단한 정진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소임에 임하는 각오 역시 거창한 포부보다는, 한국불교 위기 극복에 대한 굳은 의지와 다짐으로 대신했다.

진우 스님은 “매순간 최선을 다해 정진하다보면 4년 후에는 한국불교 혁신과 중흥이라는 작은 물꼬를 트고 한국불교 역사의 물길을 조금이나마 바꾼 총무원장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온 정성을 다해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변화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취임법회 후 대중에 관심집중
불교 발전 일궈낼 청사진에도
긍정적 평가 · 기대 한 목소리

매일 새벽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의미도 물었다. 특유의 웃음과 함께 “수행자가 절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상이어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수행자가 절을 하는 것에 이유가 있나요. 그저 오랜 습관처럼 으레 해오던 일상이어서, 집무시간 전 개인적인 일정으로 지속해 나갈 뿐입니다. 다만 한국불교 새 중흥을 위한 정진을 다짐하면서 그에 대한 원력도 좀 담았지요(웃음).”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우 스님의 선택은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동시에 불교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알고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약자의 동반자가 되고, 고통받는 중생을 보듬으며 묵묵하게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이유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거대한 신심의 물결 속에, 저의 작은 원력 하나를 보태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1문1답 전문이다.

Q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결집했습니다. 종도들의 합의추대로 무투표 당선된 첫 총무원장이신만큼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듯한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 그리고 각오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취임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해 주신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봤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원력들이 그 속에 성성하게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탈함 이면에 ‘묵직한 내공’
큰포부보다 소통 · 실천 다짐
매일 새벽 108배로 하루시작

저에게 있어 취임법회는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의 원력을 잊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의 법석이었습니다. 신심 어린 합장, 그리고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신 그 모습에서 벅차오르는 희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거대한 신심의 물결 속에, 저의 작은 원력 하나를 보태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이 보여주신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원력이 모여 만들어낸 이 거대한 신심의 물결에 기대어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화합된 종단의 힘으로, 한국불교의 새 중흥을 일궈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Q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한 달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 소임을 앞두고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A 당선인 신분으로 보낸 이례적인 시간에 대해 묻고 듣고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 소임을 거치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던 스님들의 고견을 듣고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소통과 포교, 교구라는 종책 기조를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도 당선인 신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도 워낙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여러 조언들을 경청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충분히 듣지 못한 아쉬움은 열린 집행부, 소통하는 총무원장의 자세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당선이 확정된 후 감사하게도 때 이른 축하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격려가 그동안 일궈온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 원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일동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명상으로 국민 치유…감동 전하는 新 포교

그 시간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 기대가 담긴 고견들을 들었고 이를 갈무리해 앞으로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한국불교가 심각한 위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 있다면.

A 시절인연으로 종단 여러 소임을 맡으면서 한국불교가 직면한 여러 상황들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원장 소임 당시 출가자 감소 문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직면했습니다. 출가자 감소는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불교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로 인한 종교의 역할 부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불자인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단, 그리고 한국불교의 최대 현안인 출가자 감소는 그야말로 수많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산물이지요. 종교의 위기 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바이러스 창궐, 각종 사회갈등과 분쟁, 인류가 생존하는 모든 곳에서 절박한 시대적 현안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생들의 고통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1700년 유구한 역사를 중생의 고통을 보듬으며 희로애락을 함께한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왜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는 어필하지 못하는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정신적인 가치가 외면 받는 시대에서, 우리 불교야말로 현대인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작은 불연이 쌓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사부대중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한다면 불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 본래의 진면목을 드러낸 가운데, 보다 쉽고, 가깝고, 친근한 불교로 사부대중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이 곧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일궈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Q 소통, 포교, 교구 등 핵심 종무기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취임 일주일 만에 보여주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각각의 기조가 종단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A 모두가 소통의 대상이며 교구활성화의 주인공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전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소통 · 교구 · 포교를 모든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종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교구본사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며, 지혜로운 포교를 통해 사회의 유익함이 더욱 증장된다면 불교가 나아가는 길은 더없이 크고 넓어질 것입니다.


10월 5일 취임법회에서 대중들의 축하 인사에 밝은 미소로 화답하는 진우 스님.

Q 취임 전 이미 권역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여셨습니다. 종단과 교구본사와의 관계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신지요.

A 교구는 한국불교의 중추입니다. 종단의 각종 행정과 수행이 이미 교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임사에 밝힌 바와 같이 교구별 특성화 전략을 종단과 교구가 함께 세우고 교구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포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종합불교센터 건립과 같은 지역사회와 밀착한 대사회 사업은 교구를 중심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교구본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 취임 이후 첫 공식 외부일정이 미래세대와의 간담회였습니다. 젊은 세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젊은 세대 포교에 대한 생각과 전략이 궁금합니다.

A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포교전략의 해답은 젊은 세대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공식일정을 청년세대와의 만남으로 시작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같이 할머니, 혹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찰을 찾았던 기억만으로 불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불교신자들의 고령화, 젊은 불자들의 부재가 한국불교의 고민이 되어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빠르게 변화해 왔고 또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불교 포교방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 위기 극복의 동력 필요
주어진 소임에 공심으로 임할 것
37대 집행부에 관심 · 경책 당부

기성세대들이 고민하고 기획하는 포교전략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요즘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젊은 세대를 넘어,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감동을 주는 불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만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Q 취임 첫 주말, 상월선원 삼보순례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첫 대중법문을 하셨고, 중앙종무기관 기조강연에서는 인도순례 등 상월선원 행보에 종단 차원서 결합하겠다는 뜻도 밝히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또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종교인구와 불자의 감소, 미래세대에 다가가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포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월선원 결사는 순례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불교의 모범을 만들어 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경전의 문구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해야 하며, 국민들께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과 명상, 걷기 순례 등으로 국민과 함께 세상의 벗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도 순례 역시 부처님 성지에서 종단의 주요 스님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우리나라와 인도 정부 간에도 중요한 문화교류행사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종단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월순례단과 함께 논의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Q 취임 후 여러 법문과 예방자리에서 명상힐링센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개괄적인 계획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A 명상힐링센터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의 거점도량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불교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전법과 포교방식은 감동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자라고 해도 불교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조차 어렵죠.

그에 반해 명상은 직관적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불교의 본질이 담겨있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불교의 정신적인 힘이야 말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명상에 담긴 불교의 본질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명상힐링센터는 권역별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건립되어, 누구나 쉽고 편하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종단 차원에서 불교의 본질을 담아낸 질 높은 명상 매뉴얼도 마련해야 하겠지요. 우울증, 자살충동, 스트레스 등 현대인이 직면한 고질적 문제들이 명상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전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근본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곧 새로운 포교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바꾸고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이끄는 해법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직 마음의 종교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명상힐링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Q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종책 과제는 무엇인지요.

A 우선적으로는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셔서 불교 전통문화의 가치를 세상에 다시 빛나게 할 계획입니다. 천년을 일으켜 천년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중점적으로는 대중들이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명상 수행법을 보급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의 명상힐링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종단차원의 조사 연구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명상수행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물적으로는 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 정신 복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갖추는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Q 4년의 총무원장 임기가 지날 때 종단 안팎으로 어떤 총무원장으로 평가받고 싶으신지요.

A 한국불교의 위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위기 속에서 한국불교 혁신과 중흥이라는 작은 물꼬를 트고 한국불교 역사의 물길을 조금이나마 바꾼 총무원장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변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종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부족한 소납이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은, 바로 종단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수많은 원력과 기대감이 모인 결실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 받는 우리 사회에 종교계가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긍심도 느낍니다. 하심(下心)으로 끝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주어진 소임에 공심으로 임하여, 한국불교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국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대 집행부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관심과 조언, 애정 어린 경책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아름답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 덕 사

솔바람 커피향 /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주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불교가 지닌 본질적 가치, 국민 속에서 구현”

취임사로 본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약속’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사는 역대 총무원장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다.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방향성은 뚜렷하다.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국민 속에서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다. 현대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불교의 정신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하다.

종단 운영 3대 기조와 7대 중점분야, 37개 종책과제를 설정하고 취임사를 통해 각 분야의 실현의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종단 내실은 다지고 대사회적 소통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불교중흥을 위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간다는 취지다.

이 모든 약속들이 진우 스님의 취임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1만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 단상에 선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다짐을 하나하나 선언했다.

정신문명의 피폐화가 인류 위협
한국불교 위기 극복위한 청사진
국민치유 · 사회적 책임 다짐해

취임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불자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을 넘어 전 인류를 향했다. 특히 현대사회를 위협하고 인류를 고통에 빠뜨리는 분쟁과 갈등, 각종 바이러스 창궐과 기후위기 문제 등에 주목하고 이를 ‘공업(共業)의 인과’ 라고 표현했다.

진우 스님은 “기술의 진보가 우리 인류에게 다양한 삶의 혜택을 가져왔지만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있듯이 빈부의 그늘은 깊어졌고, 탐진치 삼독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인간의 이기심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문제와 감염병 창궐 등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기술혁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문명은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문명의 피폐화는 지구공동체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발달하는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불행의 무게가 더해지고 뭇 생명들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취임사에 담긴 수많은 약속들은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하고 치유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불교의 존재 이유이며, 그렇기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려 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 문구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해야 하며, 국민들께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상월결사 평화 걷기 순례를 본보기로 삼아 수행과 명상, 걷기 순례 등으로 국민과 함께 세상의 벗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고통 받는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불교가 다가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종단 차원에서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함께하는 불교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스님은 “한국불교는 새로운 중흥의 역사적 갈림길 위에 서 있다”며 “불교중흥의 핵심이 미래세대라는 사명을 갖고 종단의 포교종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단이 청정하고 튼실하며 미래세대들이 불교의 품에 기대어 세상을 설계하고 쉬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종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삶이 곧 불교이며 불교가 곧 삶인 현장 포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의 전통 수행방식을 현대화하여 다가서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세계적인 명상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산사와의 연계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템플스테이로 국민들의 마음 안녕을 위한 고품위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 또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역에 현대적 사찰 기능과 함께 명상, 치유, 문화, 휴식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종합불교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스님은 “이 모든 과제들은 교단의 핵심 중추인 교구본사 그리고 종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정신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도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취임사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무량한 자비심으로 지혜의 연등을 밝혀 세상과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는 동시에,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피력한 스님은, 그 일환으로 종교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의 현대화와 불교중흥은 같은 말”이라며 “불교중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이 시대 참 종교의 상을 정립하겠다는 약속이다.

“유구한 세월 동안 밝혀 온 한국불교의 가치는 바로 요익중생(饒益衆生)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결코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평생을 길 위에서 전법을 하신 뜻은 뭇 생명의 요익과 안락,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어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37대 집행부 종책공약

■종단 운영 3대 기조

소 통
신심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과거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겠습니다.
현재의 소통으로 이뤄가겠습니다.

포 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사명으로
다양한 계층에 맞는 포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교 구
교구의 역할은 한국불교 도약의 지름길입니다.
교구 중심의 종무행정을 제안하고
사회를 향한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7대 중점분야 ■37개 종책과제

수행
인천의 사표가 되겠습니다.
- 승풍진작 교육프로그램 설치 · 운영
- 총림 및 본사 단위 수행결사체 조직 · 운영 지원
- 역대조사 선양사업 실시
- 선원 지원위원회 설립

교구
한국불교의 중심입니다.
- 교구특성 반영한 행정 · 포교 시스템 구축 지원
- 행정 · 인사 교구관할 위한 본 · 말사 시스템 구축
- 말사 주지 임명권 점진적 이양
- 교구특성화전략위원회 구성
- 광역자치단체에 교구거점사찰 설립

포교
사활을 걸겠습니다.
- 도심 내 명상힐링센터 건립
- 권역별 종합불교센터 건립
-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위원회 설립
- 계층포교 핵심인력 양성
- 창작기금 적립 및 작가육성 프로젝트 시행
- 포교원 내 불교콘텐츠 전담부서 설치 및 크리에이터 선발
- 지역단위 포교 거점사찰 지정 및 종단 지원 확대

교육
혁신으로 극복하겠습니다.
- 염불 · 단청 · 복장 · 종무행정 등 분야별 전문교육
- 종단 장학 · 해외연수 지원 등 청년 예비출가제도 신설
- 젊은 스님에 맞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도입
- 학인스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권역별 연수시설 ·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승가복지
완전히 실현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통합복지 시스템 구축
- 종단 직영 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
- 권역별 의료 MOU 확대
- 권역별 전통 다비장 설치 및 지원
- 승려복지회의 주요부서화 및 재원마련 법제화 추진

전통 · 문화
꽃을 피우겠습니다.
- 연등회 문화유산전승관 건립
- 전통문화 디지털화
- 성보문화재 관련 콘텐츠 활성화 지원
- 국립공원 정책 전환을 위한 종단 · 정부 상설협의체 구성
- 전통사찰 관련 현안 해결 · 제도 개선

사회
세상의 벗이 되겠습니다.
- (가칭)사회정책기획원 설립 운영
- 불교사회정책포럼 설립 · 대사회 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기능 강화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남북불교 통일 로드맵 구성
- K-불교센터 개설



진우 스님 향한 기대감…“불교적 가치로 사회변화”

10월 5일 취임법회 축사로 본 각계 당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에 공식취임한 진우 스님을 향해 불교계 안팎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진우 스님이 이번 총무원장 당선과정에서 보여준 화합의 기치를 기반으로, 종도들의 원력을 결집해 불교중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또 정관계 등 교계 외부에서는 자비와 화합, 상생 등 불교적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해 국민들의 마음을 널리 치유하고 소외된 약자와 함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10월 5일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은 하나같이 축사를 통해 37대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각 조직과 단체를 대표해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 진우 스님을 향한 다양한 요청과 당부를 전해온 것. 이는 향후 4년 동안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을 이끌 진우 스님이, 불교중흥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란 기대감에 기인한다. 취임법회 축사를 토대로 각계 기대와 요청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10월 5일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학산 대원 대종사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어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청정성 · 사회기여”

교계 “종도 화합으로 역량결집 · 위상고취”

정계 “국민 마음 치유 · 약자 보듬는 불교”

사회적 갈등 · 분쟁 해소 위한 역할 기대


정문 스님 (중앙종회의장)


무원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이홍정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우선 불교계 내부에서는 승가화합과 원력 결집을 통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진우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종단 안정과 발전 가능성에 방점을 뒀다.

진우 스님에 대해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고, 대소의 소임을 두려움 없이 공심으로 성취했다”고 평가한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의 근간은 수행과 교화”라며 “이 땅에 불법이 전래된 이후 끊이지 않고 이어진 불조의 혜명과 정법의 깃발을 더욱 드날리고, 승풍을 진작해 화합승가를 유지하며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우 스님이 역점사업으로 강조해 온 ‘명상’ 포교에 대한 지지도 에둘러 전했다. 대종사는 “수행과 교화로 모두가 본래 구족한 자성청정심을 깨닫고 이를 활용해 자타가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을 종단이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禪)수행은 좋은 방편이 되며 인류와 중생계를 모두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종단 내 갈등을 참회와 포용으로 섭수하고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법도대로 종단을 운영하며, 종도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종단으로 그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모습은 만 중생의 복전이 되며 불교중흥을 이루어 내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제17대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 고 선언한 진우 스님은 이미 취임 전부터 전 종도의 합의추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에, 조계종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를 전했다.

정문 스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17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불교가 나라의 위기와 민족의 고통을 극복하는데 앞장섰고 정신과 문화를 계도하며 그 전통을 계승해 왔음에도,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제 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에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만이, 한국불교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처럼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내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미 교육원장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요직에서 성과를 이루어내셨던 만큼, 불교중흥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전진해 달라. 종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불교중흥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여 종단을 대표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진우 스님의 취임이 한국불교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했다.

진우 스님에 대해 “일찍이 불문에 귀의해 수승한 원력으로 교학과 수선의 본분에 매진했고 중요한 종무 소임도 두루 역임하는 등 시대를 이끄는 불교계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아 왔다”고 평한 스님은 “진우 스님의 이사원융한 혜안과 덕성으로 온 국민의 화합을 선도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가는 길을 밝혀 한국불교 발전의 중추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혜와 자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웃종교계의 기대감도 높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는 진우 스님에게 주어진 4년 임기가 불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발원하면서, 특히 “만물의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37대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고조되는 시기, 불교계가 이례적인 화합으로 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한 모습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치인들은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는 과정 그 자체로 부처님 가르침인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로 사회에 울림을 전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깊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나라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오신 수행과 원력, 화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진우 스님이 강조하신 불교중흥의 말씀은 불교가 오랜세월 실천해 온 역사와 알맥상통한다”며 “그 크신 자비행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처음으로 경선 없이 총무원장에 추대된 만큼, 그 지혜와 원력(願力)으로 불교계가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며 “높은 수행력과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신뢰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에 “지속되는 코로나, 고금리 · 고물가와 전쟁까지 우리 국민의 삶이 힘겹다”며 “동체대비(同體大悲)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음의 종교인 불교계가 앞장서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자의원으로서 자긍심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 회장은 “그간 종단의 대소사를 맡아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주신 진우 스님이 이번에는 대승적 추대를 통해 총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다”며 “1994년 총무원장 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추대되신 총무원장이기에 불교계의 화합과 변화에 큰 역할 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포교 여건을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중흥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소중한 불교문화재의 계승보전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정각회장으로서 불교계와의 소통 가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각 당을 대표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남다른 기대와 다짐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진우 스님이 당선과정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만으로도, 조만간 진우스님께서 제시하셨던 ‘사회화평’과 ‘불교중흥’이란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며 “국민의힘 또한 자신을 끝없이 비워 차별과 분별을 넘어 이타적 보살의 길을 갔던 문수보살의 삶과 원력을 따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대표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사회 곳곳에 더 넓고 깊이 전해지길 기원한다”며 “코로나팬데믹,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가을 물들인 상월결사 화엄사 평화방생순례

10월 2일 화엄사서 입재, 천은사 1차 회향

구례 화엄사=노덕현 기자

2000여 대중 참석, 원력 모아
시암재까지 2차 행선도 진행
어린이 청소년 불자 대거 참여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 가을이 물들어가는 10월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2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제6차 상월결사 생명평화순례를 봉행했다.

이날 평화방생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前호계원장 무상 스님,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선암사 주지 경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포교부장 선업 스님 등 포교원 부실장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만당 스님, 선광 스님 등 종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 총장을 비롯해 종립학교 교수들과 조계사, 봉은사, 수국사, 원적정사, 안국선원, 대덕사, 연흥사, 백담사, 영불사 등에서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김대현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김순례 구례군수 등 외빈들이 함께 했다.

화엄재 기간 마련된 이번 평화방생순례는 삼보사찰 1주년 기념식을 겸해 2000여명에 달하는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평화방생순례 입재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종회의장 정문 스님 대독을 통해 "상월결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이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옳고 그름의 경계 속에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끊임없는 자비의 실천으로 사회에 회향해야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지리산 순례길을 걸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두에게 정토가 열리기를 축원한다"고 발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상징하는 죽비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화엄사 측은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단에 지원금을 전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오늘 회주 스님에게 받은 죽비는 우리 마음의 평화, 자비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경책"이라며 "화엄사서 진행되는 평화방생순례는 하루지만, 오늘의 마음을 모아 100일 후 있을 인도 8대 성지순례 또한 원만 회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천은사 고갯길을 오르고 있다.

김순례 구례군수는 "지난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보며 많은 이들이 코로나 극복의 힘과 용기, 희망을 얻었다. 오늘 평화방생순례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마음이 모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화엄사에서 출발한 순례대중들은 화엄사 사하촌을 지나 천은사까지 약 7km를 행선했다. 지리산 자락의 초가을 풍경이 순례대중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불자들 뿐만 아니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도 천은사까지 함께 걸었다. 강승규 수석은 "국민 화합과 국난 극복, 세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평화방생순례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저희들도 항상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화방생순례에는 화엄사 어린이법회와 정광중·고등학교 등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초등학생 4학년인 진수현 양과 함께 참여한 최경엽 씨는 "평화방생순례 속에 깊은 뜻이 있는지 알게 되고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미국·독일·싱가폴 등에서 온 동국대 외국인 교환학생 10여명도 참석했다. 미국에서 온 리니첼라 알레산드로 씨는 "세계 평화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함께 걸으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독일에서 온 리아 바흐 씨도 "사찰이라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화엄사에서 천은사까지의 평화방생순례에 이어 인도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순례단은 예행연습으로 지리산 시암재까지 순례를 이어갔다. 사부대중은 11월 11일 3년 전 천막결사를 시념하는 봉은사서 상월선원까지의 순례를 기약하며 산문을 나섰다.

서울시, 마을사업 중단…'뒷정리용 위탁' 논란

조계사·서울마을센터, 10월 5일 항의 기자회견

"불교계·센터구성원 기만"
조계사 경영권도 무시해
서울시 사과·재검토 촉구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를 위탁운영해 온 조계사와 일체협의 없이 사업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수탁기간 중에도 서울마을센터의 사업비를 통제하고 세부사업을 간섭하는 등 조계사의 운영권한을 배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미 센터에 대한 사업종료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조계사에 이를 위탁해 사실상 '뒷정리'를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조계사와 서울마을센터는 10월 5일 서울시 본청사 정문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통보'는 불교계와 서울마을센터 직원 및 활동가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서울시의 공식사과와 서울마을센터 사업 종료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조계사 사회국장 정수 스님과 손우정 서울마을센터장과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백해영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서울시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23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조계사에 서울마을센터의 일방 종료를 구두 통보해 왔다. 조계사는 일방적인 종료통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공동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또 현재 서울마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9월 30일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앞서 조계사는 지난해 11월 운영 난항중이던 서마종을 수탁한 후, 센터 임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생과 호혜의 서울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왔다. 때문에 "서울시의 갑작스런 사업종료 통보는 불교계 뿐 아니라 법인과 직원, 공동체 활동가들을 모욕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계사 운영기간 중 자행된 서울시의 운영권 침해 문제도 공론화됐다. 서울시는 조계사가 서울마을센터를 수탁한 직후, 장기간 특정감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월별 사업비 통제, 세부 사업에 대한 실질적 간섭 및 통제 등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조계사와 서울마을센터는 서울시에 대해 △일 년간 조계사의 경영권을 철저히 무시하며 불교계를 우롱한데 대한 사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료 방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진우 스님 "불교 변화 위한 관심" 강조

本紙 구태서 대표 등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本紙 구태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여러 포교종책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태서 대표는 "37대 집행부가 제시한 종책에 깊이 공감하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불교언론의 역할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本紙 구태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이날 구태서 대표는 "취임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취임사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현대불교신문은 신행과 포교에 강점을 지닌 불교언론으로, 향후 종단이 실현해 나갈 포교종책에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감사한 일이다.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 새로운 중흥의 길을 열어가는 여정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불교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앞으로 종단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불교가 살아야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정체성이 공감 속에서 확립된다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분열과 불신을 넘어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원력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종교를 떠나 당시 민중의 원력과 간절함이 깃든 부처님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불교계 원력을 모아내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10월말 경 현장확인 및 참배를 위해 경주 남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홍보국장 지안 스님 등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564차 수요시위 주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10월 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진행된 제15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윤석열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사노위는 피해자 할머니와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시민들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한일 관계 회복과 경제·안보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를 질타하며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국가 무능으로 인해 희생된 국민 인권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몽 스님은 "과거 일본 전범국의 범죄행위 문제를 상기하고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굴욕적인 외교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온몸으로
의심하라!

7일 안에
체험할 수 있다!

간화선 현대화의 선구자이자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수불 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배우는 간화선의 맛!

출간 즉시 베스트 셀러

"심오한 정신세계를
흥미진진한 소설로 풀어내는
최고의 이야기꾼"

글 짓는 수행자 정찬주 작가의 내공으로 빚어낸 역작
수불 스님의 간화선 대중화 대원력을 소설로 만나다!

"수불은 단호하게 결심했다. 일상생활이 바쁜 신도들에게 일주일 안으로 화두 체험을 시키지 못할 실력이라면 포교당을 접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도를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포교당 운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수불은 옛 조사들의 공안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활구를 제시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_본문 중에서

정찬주 장편소설
시간이 없다
선(禪) 대중화의 선지식, 수불 스님 이야기
정찬주 지음 | 416쪽 | 18,000원

교종본찰 봉선사, 佛法 겨루기 '야단법석'

10월 1일 '제1회 교리 경시대회' 개최

남양주 봉선사=송지희 기자

개산 1053주년 맞아 첫개최 '눈길'
어린이 30 · 청소년 130여명 참여
10월 2일엔 일반부 대회도 진행

교종본찰 봉선사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겨루는 야단법석이 열렸다.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아이들의 얼굴에 희비가 엇갈렸다. 때론 웃음과 박수가, 때론 아쉬움이 담긴 한탄이 터져 나왔다. 10월 청량한 가을하늘 아래 경내 청풍루는 내내 떠들썩한 활기로 들썩였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10월 1일 개산 1053주년을 맞아 경내 청풍루에서 '제1회 봉선사 교리경시대회-도전 부처님 말씀 겨루기'를 개최했다. 봉선사를 중창한 운허 스님의 한글 대중화 원력을 계승한 첫 교리경시대회인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한 불교교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첫 경시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봉선사 어린이법회 20여 명의 어린이가 동참한 대회는 학부모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청소년부는 종립학교 학생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됐다.


봉선사 교리경시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정답이 적힌 화이트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어린이부 대회는 매주 일요일 봉선사에서 사찰문화와 불교교리를 배워온 어린이법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부는 종립학교 학생 중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참가자가 모집됐다. 특히 청소년부의 경우 참여인원이 많은만큼, 어려운 문제에 대한 특별상품도 마련돼 호응이 높았다.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 왕비께서 여섯 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고 장차 전륜성왕이 되실 분을 잉태하셨는데, 이는 누구일까요?'

화이트보드 위로 검은 마카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부처님, 고타마 싯타르타, 고타마 등 답변들이 모두 정답 판정을 받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를 미처 쓰지 못한 어린이들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대열을 벗어났다. 전체 참가자 60% 이상 탈락시 패자부활전도 진행됐다.

한시간여 이어진 열띤 경쟁 끝에 어린이부 대상은 이진우, 금상 김도연, 은상 이의정, 동상 박다연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청소년부는 대상 하정우, 금상 서현건, 은상 김슬아, 동상 강수연 학생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도 봉선사가 준비한 기념품이 선물로 증정됐다.

주지 초격 스님은 "봉선사는 과거 한글 대중화를 이끌었고 스님이 되기 위해 승가고시를 봤던 유서 깊은 사찰"이라며 "이 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 심신건강한 학생들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내년부터는 한글날 즈음 더 많은 상금과 선물 등으로 규모를 키워 진행하고자 한다"며 "봉선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봉선사를 참배하고 경내를 둘러보면 자연스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언제든 자주 찾아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봉선사는 10월 2일 오후 1시 일반부 대상 교리경시대회를 이어갔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내 큰법당 앞에서 개산 1053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가을 꽃 만끽하며 생명존중 실천해요"

10월 1~10일 고양 호수 공원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나서
인식개선 교육 · 체험 활동 성황
일면 스님, 환경 캠페인도 동참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가장 고귀한 생명나눔입니다."

10월 1일 '2022 고양가을꽃축제'가 열린 고양 일산호수공원 일대에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등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다양한 가을꽃들이 가득한 공원 중간에 부스를 마련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축제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홍보 교육기관이기도 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축제에서 장기기증 운동 확산을 위해 열띤 홍보를 펼치며 생명나눔 가치를 실현해 의미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비즈 꽃반지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펼쳐 꽃축제에 참가한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일면 스님이 직접 장기기증 희망자들을 상담하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 알싸한 국화향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직원들로부터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이 갖는 의미를 배우고 체험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민들은 체험활동 이후 자발적인 기부참여와 정기후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7살 아들과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스를 찾은 김수경(39) 씨는 "부정적 선입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생명나눔운동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등록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아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등록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와 함께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공원을 찾은 부부는 "가족과 함께 나왔다가 의미 있는 일에도 참여하게 돼 기분이 좋다"면서 "우리 가족의 정성이 훗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도 이날 부스를 직접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일면 스님은 "이번 캠페인은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고양시가 마련한 환경친화 프로그램 '줍깅 캠페인'에도 참여, 생명사랑과 환경사랑을 함께 실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2시간에 걸쳐 호수공원 일대를 두루 걸으며 쓰레기 줍기에 동참한 일면 스님은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이 생명을 존중하고 나누는 소중한 마음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임은호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언론인상 정휴 스님

조계종 10월 6일 수상자 발표

대상 '빼앗긴 들에도…' 수상
첫 웹툰 수상작…시대상 반영
오는 10월 26일 시상식 개최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공명 작가의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수상했다. 불교언론 발전에 공적이 큰 인물을 시상하는 불교언론인상에서는 정휴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10월 6일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선정됐다. 웹툰이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영위원장 탄원 스님은 "올해 대상 작품이 웹툰으로 선정된 것은 뉴미디어 시대를 반영하고 불교 콘텐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품 선정"이라고 밝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공명 작가의 데뷔작으로 2019년 제1회 NC버프툰 글로벌웹툰스타오디션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어머니의 태몽에 나타난 부처님이 지어주신 이름 '해송'을 빼앗긴 주인공 숙이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작품의 큰 물줄기이지만, 주인공의 성장과 치유의 배경은 불교에 기반한다. 또한 주인공이 꿈속에서 지장보살을 만나는 장면 등은 마치 한 폭의 불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불교언론인상에는 BBS불교방송, 법보신문 등에서 활동한 정휴 스님이 선정됐다. 정휴 스님은 1990년 불교방송(BBS) 초대상무,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의 사장, 주간, 편집국장, 주필 등을 두루 역임하며 불교언론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탄원 스님은 "언론인상을 수상한 정휴 스님은 방송언론분야에서 탁월한 기획력으로 불교언론의 기틀을 마련한 스님으로 언론인상 수상이 늦은 감이 있다"고 수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최우수상은 KBS '다큐인사이트 특집 2부작 사유의 탄생'(방송부문), BBS 라디오 환경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인드라망'(라디오 부문), 서울신문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사회'(신문 부문), 불교신문 TV '불교에 진심 인(人)'(뉴미디어 부문)이 선정됐다.

한편,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0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민추본,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 법회

10월 27일, 고성 통일전망대서
금강산 4대 사찰 주제 사진전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내 통일미륵대불 앞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을 기념해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남북불교 교류 최대 성과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의 의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추본은 북한식 정주년에 해당하는 15주년을 기념, 당초 금강산 신계사 현지에서 남북불교계가 함께하는 합동법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금강산 가는 길목이자 금강산 조망이 가능한 통일전망대에서 봉행하게 됐다.

민추본은 이와함께 2018년 개관한 통일전망타워 3층 전망대에서 기념사진전도 함께 진행한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그리고 금강산 4대 사찰'을 주제로 진행되는 기념사진전에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과정을 담은 사진과 금강산 4대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의 과거와 현재의 사진이 전시된다. 또 유점사와 함께 금강산 내 본사 사찰이었던 건봉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된다. 사진전은 10월 27일~11월 2일 1주일간 열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go green

EM 발효치약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천연 계면활성제, 자몽 종자에서 추출한 천연 방부제, EM과 각종 천연 성분을 함유.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약. 임플란트 염증 제거에 효과.
값 10,000원 (소 4개) / 6,000원 (180g)

EM(유용미생물) 종균
일본 EM유용미생물 개발자 히가 교수(오끼나와 농학박사)와 기술제휴로 생산된 EMRO 오리지널 유용 미생물 종균.
값 10,000원 (1리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지구사랑 작은실천

EM쌀뜨물발효액이 하천과 바다를 정화하는 이유

쌀뜨물을 EM(유용 미생물)으로 발효시키면 쌀뜨물 속에 있는 영양분인 단백질, 지방 등이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로 전환되고 유용한 미생물(효모,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이 증가하여 썩은 오니를 분해시키며 악취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 하천과 바다 오염의 주범은 생활하수!
- 그중에 60%가 쌀뜨물!!
- 쌀뜨물 1리터를 정화하는데 물 500리터가 필요!
- 대한민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

매일 버려지는 쌀뜨물을 EM(유용한 미생물)로 발효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 정화제로 활용하는 'EM지구사랑 작은실천'에 함께 해주세요!

꿀 피부 세안 습관

EM 두피모발 & 바디워시
아미노산 영양과 한방약효가 두피 케어 탈모 방지, 발모 촉진에 탁월. 저자극 약산성 바디 샴푸, 손에 조금만 묻혀도 풍부한 거품과 린스 효과.
값 6,000원

EM 쪽 보습 비누
쪽을 발효하여 아토피 등 각종 피부 트러블에 효과.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함 유지.
값 3,500원

EM 미네랄 보습 비누
지장수의 미네랄을 듬뿍 함유. 피부 깊숙한 노폐물, 체취 제거.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함 유지.
값 3,500원

EM 홍삼한방비누
메이크업 세정 및 전신 사용 가능한 올인원 클렌징바. 쉽게 물러지지 않는 단단함.
값 3,500원

스킨비바
아주 민감한 피부용. 피부결까지 다듬어 주는 최고의 미용 비누
값 6,000원

EM 주방 비누
인체에 유해 성분이 없는 안전한 설거지와 주방 용품의 찌든 때 제거에 탁월 (값 3,500원)

EM 세탁 비누
목초액과 EM으로 만들어진 고급 의류 전용 비누, 뛰어난 세탁 효과 (값 1,600원)

쌀뜨물로 EM쌀뜨물 발효액 2리터 만들기

발효시 발생하는 가스 공간 5cm
가능한 쌀뜨물을 가득 채우세요
쌀뜨물이 부족한 경우 물을 채워주세요

쌀뜨물 1컵 이상 / EM원액 3뚜껑 / 설탕 2큰술 / 천일염 1 티스푼

Point 가스 공간을 제외한 페트병 전체에 쌀뜨물을 채우세요.
발효에 필요한 쌀뜨물은 최소한 1컵 이상입니다.
가능한 쌀뜨물을 모두 넣고, 부족한 경우 물을 채우세요.

(사협) 지구사랑 작은실천 전화 031)473-2947, 010-5095-0509

eco house

EM 고농축 중성 세탁 세제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천연 계면활성제와 EM으로 만든 중성 세탁 세제로 섬유 유연제가 필요없음. 대용량 세탁시, 생수병 뚜껑으로 2개만 넣어도 충분하며, 쉽지 않아도 땀 냄새가나지 않음.
값 1050ml 8,000원 / 2.2리터 15,000원

EM 안심주방세제
코코넛오일에서 유래한 천연 계면활성제, 천연방부제와 EM으로 만든 과일, 야채까지 세정 가능한 고농축 1종 세제.
값 500ml 6,000원 / 1050ml 11,000원

합성세제의 유해성

잔류된 합성세제는 우리나라 상수도 정수 시설로는 완전히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돗물에 섞여 들어오거나, 수돗물의 소독시 사용되는 염소와 결합하여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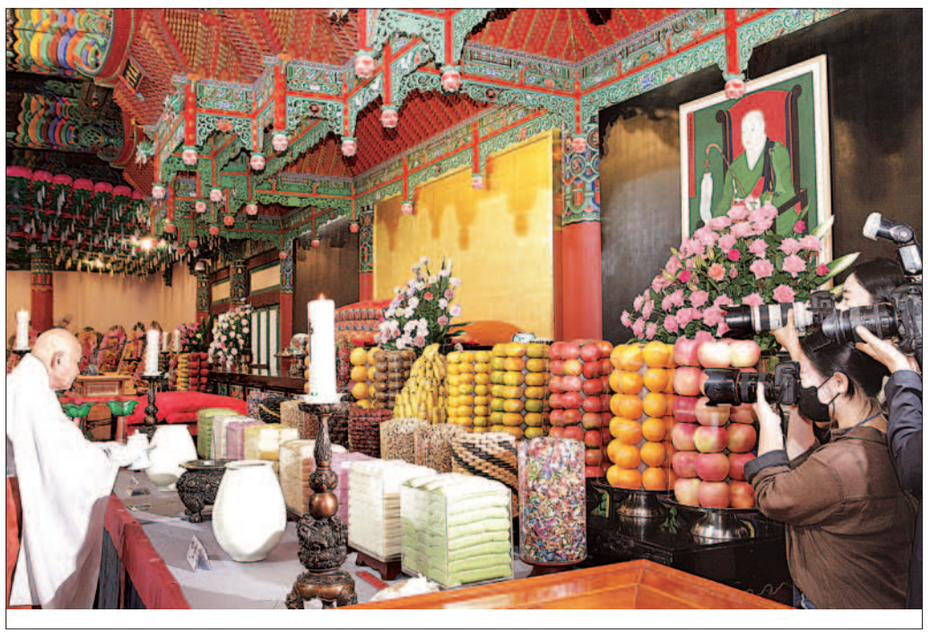
EM 쌀뜨물 발효액 사용법

1) 주방세제, 세탁세제, 설거지에 섞어 쓰면 세제독 중화
2) 야채, 과일 씻은 후 10분정도 담궈두면 농약 중화
3) 고기나 생선 씻은 후 10분정도 담궈주면 냄새제거
4) 음식물 쓰레기통에 분사해주면 날파리 방지
5) 기름기 많은 후라이팬, 가스렌지 찌든때에 분사
6) 화장실, 애완동물 악취 등, 각종 악취제거에 다양하게 활용
7) 세탁시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냄새제거, 뽀송뽀송한 빨래
8) 목욕시 사용하면 아토피, 피부 트러블에 효과
9) 피부 트러블에 자주 분사하면 큰 효과

통도사, 자장율사 정신 잇는 1377주년 개산대재

10월 4일 영고재 및 법요식 봉행해
재적승 59명에 장학금 2840만 원
종정 성파대종사 등 사부대중 참석
"자장의 계율 정신이 남아 있는 곳"
'화엄세계로의 초대' 등 문화축제도


자장율사 진영.


통도사가 10월 4일 설법전에서 '개산 1377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성파 대종사가 헌다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0월 4일 '개산 1377주년 개산대재 영고재 및 법요식'을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통도사는 개산대재 법요식을 통해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을 널리 알리고 불교 이념 및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강조했다.

법요식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문 스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명종 5타 △개산조 자장율사 행장소개 △헌향 및 헌화 △봉행사 △내빈축사 △영축장학금 전달식 △공로패 △감사패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축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박사 2명, 석사 6명, 학사 9명, 율원과 학림 승가대학원 14명, 본사 강원 4명 등 통도사 재적승 총 59명에게 장학금 2840만 원을 전달하고, 수행과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서연 양산시 문화관광과 지방행정 서기, 김만성 양산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재삼 양산경찰서 정보관, 박선규 양산소방서 소방위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사했다. 개산대재를 맞아 진행한 제1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채윤 학생(김해 내동중학교)에게 상장을 수여했으며, 학인 스님의 서예전 및 사진전 '나도 작가다'의 시상도 이어졌다.

주지 현문 스님은 "자장율사께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을 축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승려들이 계를 수지하도록 하셨다. 통도사는 부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는 계단이자, 자장 율사의 계율정신이 확고히 남아 있는 곳이다"며 "오늘의 뜻을 새겨 불교 이념의 사회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민족 문화의 창달을 책임지는 불지종가 국지대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는 자장율사의 생애를 조명하고 통도사 창건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전통과 현대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장"이라며 "영축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종교와 문화를 접목한 수준 높은 공연을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풍성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는 매년 개산대재를 맞아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해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영축문화축제는 9월 3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어졌으며 국화꽃 장엄, 문화공연, 각종 전시 및 체험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2022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미디어아트 사업 '화엄세계로의 초대'는 디지털미디어맵핑, 빛 오브제, 디지털 만화 특별전 등 화려한 빛의 향연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모았다. 이번 미디어아트 사업은 10월 3일까지 예정이었지만 10월 10일까지 연장 진행했다.

한편, 통도사는 9월 30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환성 지안 스님의 삶과 수행'을 고찰했다.

환성 지안 스님은 (喚醒志安, 1664~1729)은 조선시대 선교융합을 강조하고 선시를 통해 대중교화에 앞장선 대선사이며 화엄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통도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환성 지안 스님이 통도사에서 수행했으며, 조선시대 숭유억불 당시 순교한 대선사임을 강조했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조선시대 억불을 목적으로 환성 지안 스님을 모함해 스님이 순교를 당했다. 반드시 후학들이 알아 스님의 숭고한 수행정신이 전해져야 한다"며 "아울러 환성 지안 스님이 통도사에 주석하신 내용은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연구가 이어져 후배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환자 6명에 휠체어 전달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 이하 생명나눔부산)가 10월 1일 부산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제14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부산은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장기기증의 중요성 등 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난치병 환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행사는 인사말씀 및 휠체어 전달, 걷기명상과 경품 추천 등으로 이어졌으며, 병원에서 추천한 환자 6명에게 휠체어 6개를 전달했다.

행사장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걷기대회 코스에는 다양한 포토존 및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모두 해소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길 바란다"며 "오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참석자들 모두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화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법경 스님 취임

부산 광명사 주지 법경 스님<사진>이 대한불교 법화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으로 취임했다.

법화종 부산교구는 10월 6일 광명사 앞에서 '대한불교 법화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이임사 △취임사 △공로패 수여 △임원진 임명장 전달 △치사 △격려사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화종 원로의장 보명 스님, 前 원로의장 진파 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前 부산교구 종무원장 상백 스님, 법경 스님, 부산사상구불연합회 회원 스님,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태한 시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경 스님은 무엇보다 소의경전 〈법화경〉을 더욱 연구하고 불교 부흥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했다. 법경 스님은 "소의경전인 〈법화경〉을 근본으로 삼아 수행하기 위해 법화종이 형성되었고 불교 중흥을 목적으로 종단을 이끌어 왔다"며 "그 종지를 이어받아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화합하고 불교의 부흥과 드높은 법화종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부산교구를 새롭게 이끌 법경 스님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몸소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이타행을 실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前 종무원장 상백 스님은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스님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는 법화종도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경 스님은 이·취임식을 기념해 백미 120kg를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명불원, 장학금 전달 및 산사음악회 개최

학생 25명에 장학금 2500만 원 전달
3년 만에 대면 산사음악회 개최해



재단법인 동명불원(원장 원순)이 장학금 전달을 통해 인재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명불원은 9월 3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5회 동명불원 가을밤 산사음악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식전행사로 대북공연, 장학금 전달식, 내빈소개, 축사, 가람소리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산사음악회는 구미정 피아니스트와 초대가수 김용임, 박서진, 삼총사, 권미희, 박현수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장학금전달식에서는 대학부 학생 15명, 고등부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장학증서는 대학부 김민진(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학생과 고등부 유정우(동명공업고등학교)학생이 대표로 수여했다.

원순 스님은 "지금껏 산속에서 수행하며 지냈다. 처음으로 원장 소임을 맡게 됐는데 행사를 보니 대단히 밝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다.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모든 면에서 힘써 주신 이석근 국장님께 감사한다"며 "불사 중 가장 중요한 인재불사에 아낌없는 후원을 지속해주시는 신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불교계와 나라를 위한 큰 인재가 되시라"고 격려했다.

김경조 이사장은 "13년 동안 동명불원을 이끌어주셨고 오늘의 뜻깊고 아름다운 행사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시형 전 이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재곤 신도회장은 "개인적으로 산사음악회보다 신도님들의 기도비를 십시일반 모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준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사음악회 행사에는 동명불원원장 원순 스님,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 김경조 이사장, 성재곤 신도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박재호 남구을 국회의원,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 박미순 남구의회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금강신문사는 한국 문학의 발전과 불교문학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대한불교천태종의 뜻을 받들어 '천태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심원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한 예술의 모태가 되어 왔으며, 특히 경전의 발전과 전승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불교문학의 갈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대자대비 사상을 재기 넘치는 문학작품으로 승화하여 시대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2022년 천태문학상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천태문학상
제1회

마감
2022년 10월 31일

발표
2022년 11월 21일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금강신문사

공모 요강
-분야
운문(시·시조·동시 5편 이상)
산문(수필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자격
등단과 무관하며 누구나 가능
-접수
ggbn@ggbn.co.kr
(전자우편만 가능, 연락처 기재 필수)
-마감
2022년 10월 31일

심사 및 수상자 발표
-수상작 발표
2022년 11월 21일
개별 통보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
-수상작은 금강신문에 게재

시상 계획
-대 상
1편, 상금 1천만원 및 상장 상패
-우수상
2편, 각 상금 500만원 및 상장 상패
-장려상
5편,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상패
-시상식
2022년 12월 초순

기타
-응모작은 반드시 신작이어야 하며 수상작이 표절작이거나 기존 발표작 등으로 밝혀지면 시상을 취소함과 동시에 상금 및 상장 상패 일체를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02-723-1548
2022년 천태문학상 운영 사무국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장석희 회장 취임

10월 3일 전북불교회관서
이·취임식…100여 명 참석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3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 법당서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3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전임 김성규 회장의 이임사, 장석희 신임회장의 취임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석희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는 10월 29일과 30일 금산사에서 개최되는 대불청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청년회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부대중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청년회가 전북지역 불교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전임회장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정활동과 청년회장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웠다"며 "신임 장석희 회장에게 중책을 떠맡긴 듯 해서 죄송하고 임기 중 성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청년회원들의 활동으로 지역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세계로 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불청 대회 성공적 개최가 최우선 과제'

인터뷰 **장석희 대불청 전북지구 신임회장**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적으로 10월 29일과 30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리는 대불청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청년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지난 10월 3일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에 취임한 장석희 회장의 취임일성이다. 전임 김성규 회장의 전주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사임으로 회장으로 취임한 장석희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산사 대불청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꼽았다.

"장기적인 과제로 전북지구 청년회의 조직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종교인구의 감소와 불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청년회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지회를 재창립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전북지역 청년회 9개 지회가 6개로 축소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청년회 조직을 재건하고 활성화하는 목표를 임기 중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무엇보다 전북지역 불교공동체의 대중화합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원해진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장 회장은 청년회가 승가와 재가불자들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선배불자들과 젊은 불자들간의 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중 청년회원의 수를 늘려 예전 전북지구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서장사, 석가모니불 점안식 봉행

10월 2일 봉안, 한달간 개금불사 회향 의미

울산 천마산 서장사(주지 불성)는 10월 2일 서장사 대웅전에서 석가모니불, 문수, 보현 보살상 삼존불, 아미타래영도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개회사, 주지 불성 스님 인사, 내빈 소개, 삼귀의례, 차공양, 점안식 의식, 상단불공, 보현행자, 춤바라지, 회주 스님 공양올리기, 회주 진옥 스님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점안식에는 서장사 회주 진옥 스님, 주지 불성 스님, 벽선암 무종 스님 등 대중스님, 여수 및 울산지역 불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불성 스님은 "부처님의 모습을 뵙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불·법·승의 청정하고 심오한 뜻이 깃들길 바란다"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모든 인연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모두에게 회향되어져야 한다"고 서원했다.

증명법사 진옥 스님은 법문에서 "개금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는 그 대상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 생각에 따라 대상이 있다고 하면 중생"이라며 "부처의 마음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 분별심 없이 무차행을 하면 극락세계"라고 강조했다.

개금불사 기도는 9월 4일 입재 이후 9월 18일 개금불사가 시작됐다. 서장사 회주 진옥 스님을 증명으로 정병국 경주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등이 개금을 진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제558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10월 1일 표충사 사명대사 사당서 봉행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10월 1일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사당에서 제558회 추계향사를 봉행했다.〈사진〉

향사는 개회, 명종5타,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종사열반(불교제향), 행장기, 헌다, 헌향, 헌화, 석전의례(유교제향), 내외빈소개, 원산 스님 추모사, 밀양시장인사, 진각 스님 봉행사, 사홍서원, 회향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前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무봉사 천주 스님, 삼양사 지설혜 스님, 밀양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박일호 밀양시장,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 이원효 성균관밀양시지부회장, 김명교 밀양향교전교, 경남포교사단 밀양지부 지역단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통도사 前주지 원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국가의 존위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옛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고 발원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표충사가 호국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도륜 스님, 안동시장애인복지관장 취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월 4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도륜 스님의 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신임 관장으로 취임한 도륜 스님은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고운청소년재단 이사, 경북불교문화원 이사, 제16교구 본사 총무국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며 "복지전달 체계에 맞추어 장애인들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복지관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고창군복지관, '세대공감 나눔바자회' 진행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은 10월 7일 흥덕문화복지관에서 흥덕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역어르신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세대공감 나눔바자회'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세대공감 나눔바자회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흥덕문화복지관과 고창북고등학교는 상호 협력 체제 확립 및 지역사회 공동체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바자회에는 흥덕면 어르신 15명과 청소년 107명이 참여하여 실수세미와 천연비누 등을 준비했다.

이날 마련된 물품은 흥덕면주민자치위원회와 흥덕문화복지관이 함께 주관하여 '세대공감 나눔바자회'를 통해 판매됐다. 후원금은 흥덕면 소외된 이웃에게 난방용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신도회는 9월 29일 울산 예술문화회관에서 울산불교연합회 합창축제를 개최했다.

제26회 울산광역시불교聯 합창제 봉행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병호)는 9월 29일 울산 예술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울산불교연합회 사찰 합창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룡사 어린이합창단 특별출연을 시작으로 지장정사 관음조합창단, 정토사 어울림합창단, 백양사 삼보합창단, 백련사 향기소리합창단, BBS 울산불교방송합창단, 조계종울산사암연합합창단, 월봉사 월광합창단, 마야합창단이 출연했다.

공연 이후에는 이병호 울산불교연합회 회장 인사,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격려사,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 인사, 박성민 국회의원 인사, 최서희, 박상민 가수 등 공연,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합창축제에는 백양사 산옹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신흥사 종현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이병호 신도회장, 김인선 불교여성회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합창제를 통하여 불교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운사 승려복지기금 전달식 개최

안동 대원사 주지 도륜 스님과 의성 대곡사 주지 혜산 스님은 9월 29일 고운사를 방문해 주지 등운 스님에게 고운사 승려복지기금 1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사진〉



이에 앞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제16교구 소속 후보는 선거공영제 의미로 고운사 승려복지회에 승려복지 후원금을 기탁하기로 교구종회서 결의했다. 이번 복지기금 전달은 고운사 교구종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에 출마하는 스님들이 선거 공영제의 의미로 선거비용을 대신해 승려복지기금을 후원하셨다. 고운사 재적 대중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도륜 스님과 혜산 스님은 "앞으로 교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기금전달의 소감을 표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해인사 원당암, 영가 합동천도법회 눈길

해인사 원당암이 10월 4일 중양절을 맞아 '선망 선대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천도법회는 9일 기도 회향을 맞아 경내 보광전과 만년위패가 모셔진 원당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봉행됐다. 보광전에서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과 관욕, 상단헌공, 봉송 등으로 이어져 인연있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대성사 창립55주년 기념법회 열어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10월 1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창립 5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연혁보고, 개식사, 법어, 축사, 관음정진 및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조현대 신도회장은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100주년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 도원 스님은 "55주년 기념법회는 미래불교 100년을 내다보는 거룩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법회가 내실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성사는 특별행사로 주지 도원 스님이 지난해 다섯 쌍둥이 출산으로 화제가 된 김진수, 서혜정 부부에게 육아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속속 등장하는 '불교 메타버스'

관음성지 천년 고찰 하세데라
전통불교음악 소묘 공연 시도
대만 불광산 '불광운우주' 출범
순례 · 여행 더 발전시킨 형태

박영빈 객원기자

온라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도 불교가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일본의 교토대학 연구팀이 불교 메타버스인 '테라버스' 개발을 발표한 이래 불교메타버스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일본의 'PR 타임즈'는 일본의 천년고찰인 하세데라(長谷寺)의 메타버스 공연을 전했고, 10월 2일에는 대만의 불광산(佛光山)에서 불교 메타버스 '불광운우주(佛光雲宇宙)'의 출범을 전했다.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사찰인 하세데라는 736년에 창건된 사찰로 일본에서 관음성지와 전통불교음악인 쇼묘(聲名)로 유명하다. 하세데라는 사찰의 자랑인 쇼묘를 메타버스를 통해 공연하고, 일본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전했다. 하세데라 측은 "이번 쇼묘공연은 메타버스에서는 첫 시도로 이전 공연 영상을 편집해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음에는 실황으로 시도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불광산의 불교 메타버스 '불광운우주'를 소개하는 후이랑 스님.
사진출처=국제불광협의회 온라인 회의 화면캡쳐

공연을 중계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라 랜드는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실재하는 장소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묘사하지만, 이번 공연장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검은색 돔의 형태로 현실과는 일선을 긋는 메타버스에서만 가능한 비현실적 공간으로 구성했다.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확대될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불교음악에 의한 전통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을 본산으로 국제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광산도 전용 메타버스인 '불광운우주'를 출범했다. 중국 온라인&모바일 게임 기업인 넷드래곤 네트워크 그룹과 공동으로 출범한 불광운우주는 지난 10월 2일 국제불광협의회 온라인 회의에서 공식 공개됐다.

불광산 측은 "불광운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불광산과 인연이 있는 전 세계인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불광운우주는 불광산을 창건한 성운대사의 교육 사업에 감명을 받은 넷드래곤 네트워크의 리우더젠(劉德建) 회장의 협조와 투자로 4년간의 개발 끝에 완성됐다.

메타버스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불광산의 후이랑(慧讓) 스님은 "불광운우주는 불교국가간의 순례와 여행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성별, 의복, 외모 등을 모두 마음대로 구축할 수 있고 모든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는 세계"라고 소개했다. 불광산 측은 "앞으로 더욱 개발에 나서 실제 불광산과 같이 시간별 예불이나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中 스타 이연걸, SNS서 공개 신행활동

수 년 동안 공개적인 활동 자제, 불교에 더욱 깊은 모습 보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배우 이연걸이 최근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불교 신행활동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 화제다. 지난 9월 30일 중국의 '시나닷컴'은 이연걸의 SNS를 인용하여 그의 신행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배우 이연걸이 최근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신행에 대한 행보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연걸은 지난 몇 년간 공식계정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고, 공개적인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한때 건강 이상설이 퍼지기도 했다.

이연걸은 7월부터 다시 게시물을 올리면서 건강한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자신의 딸, 혹은 유럽에 소재한 사찰이나 스님과 찍은 사진들이다. 특히 프랑스 남부에 소재한 티베트 사찰인 레랍링 사원에서 21일간 단기 안거를 마쳤음을 알리면서 이 안거가 2019년 입적한 레랍링 사원의 창건자 소걀 린뽀체와의 약속이었다고 전했다 이연걸은 "아름다운 사찰에서 3주간의 안거를 마쳤다. 린뽀체의 제자들은 나를 형제와 같이 대해주었고, 마치 집에 온 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연걸은 가장 최근에 올린 게시물에서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인 종사르 켄체 린뽀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스승과 자신의 수행에 대한



티베트 불교의 고승 종사르 켄체 린뽀체와 대담 중인 이연걸.
사진제공=이연걸 공식 인스타그램 캡쳐

기쁨을 소개했다. 그는 "22년 전 린뽀체를 처음 뵈었을 때를 기억한다. 지난 세월 동안 린뽀체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최근 종사르 켄체 린뽀체와 함께 대담을 가졌다고 이야기 했다.

새롭게 올라온 게시물들에 대해 전세계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같은 불교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불교신자들의 롤모델이라는 찬사가 주를 이뤘다. 이연걸로 인해 불교를 만났다는 서양 팬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중국 측 소식통들은 "이연걸은 현재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이나 불교수행을 위해 보내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프로젝트, 비구니 사찰 개보수로 여성 교육 선도

사원 개보수 중간보고 발표
여성 교육 기회 제공도 가능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가 후원하는 인도의 도르제 종 비구니 사원이 오랜 숙원이었던 사찰 개보수 사업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보도를 인용해 도르제 종 비구니 사원 근황을 보도했다.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캉그라 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는 "프로젝트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도르제 종 비구니 사원의 개보수 사업의 중간보고를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TNP는 티베트 여성협회와 티베트 망명정부 종교문화부의 후원으로 설립됐으며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티베트 난민출신 비구니들과 티베트 불교 문화권의 여성출가자들에게 교육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 북부 라다크 잔스카르 지역에 위치한 도르제 종 비구니 사원은 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비구니 사찰이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중흥조로 알려진 쫑카빠 대사, 혹은 그 수제자 중 한 명인 쎄랍 상뽀 스님에 의해 14세기경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래로 여성 출가자와 재가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명성이 높았다.


개보수 중인 도르제 종 사원 전경. 사진출처=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TNP는 "현재 도르제 종 사원은 세납 90세가 넘은 비구니스님 7명을 포함한 20명의 비구니스님이 기거하고 있다. 노스님들은 산 위에 세워진 옛 법당에서 기거하며 기도와 사원의 농작일을 소임으로 맡고 있으며, 젊은 학인스님들은 언덕 아래 지어진 새 방사에서 공부한다"며 사원의 현황을 전했다.

TNP는 "도르제 종 사원은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강당 1개 동과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법당 1개 동으로 구성돼 현대 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비구니스님과 재가자들을 모두 포함한 50명의 학생을 수용할 교실과 기숙사, 공양간 등의 신축 및 개보수를 목표로 모연을 했으며 많은 기부로 인해 모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사원이 위치한 지역은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여, 개보수 된 사원은 어린 여성출가자와 재가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거점이 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에 첫 삽을 뜬 개보수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과 잔스카르의 혹독한 겨울날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나 지난 8월 2층짜리 기숙사가 완공됐다.

현재 1층은 대중스님들의 요사채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학교, 사무실, 공양실, 직원 숙소 및 회의실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TNP측은 "학교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지역정부의 도움으로 수도시설도 함께 신설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원의 학교에서는 초등 5학년 과정까지 교육을 제공하며, 이후 TNP가 제공한 셔틀버스를 이용해 10km가량 떨어진 공립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르제 종 사원은 3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고 있다. 1층은 예불과 강의 등을 진행하는 다목적 강당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건물에는 도서관과 컴퓨터실을 조성하여 미래의 여성 출가자들에게 현대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TNP는 "사원의 개보수와 학생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연해주신 모든 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회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폭우로 붕괴 탑서 500년 전 복장품 발견

청동, 유리 불상 다수 드러나
부도탑 복원 가이드라인 작성

지난 10월 1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 및 '더 타이거' 등 여러 매체는 폭우로 붕괴된 부도탑에서 다량의 복장품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태국 북부 최대 도시이자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치앙마이에 위치한 왓 시 수판(Wat Si Suppan)사원의 부도탑이 지속된 폭우에 붕괴됐다. 무너진 부도탑 잔해 사이로 500여 년간 부도 탑에 잠들어있던 복장품이 드러났다.

왓 시 수판 사원의 주지 프라 크루 피타수티쿤 스님에 따르면 "붕괴된 부도탑은 란나 시대(13~15세기)에 사원과 함께 창건됐다. 40년 전에 복원 작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정부는 부도탑을 관리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을 거부했다. 관리가 소홀한 탓에 최근 몇 년간 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폭우가 지속된 가운데 오


붕괴된 부도탑과 부도탑에서 발견된 복장품.
사진출처=더타이거

후 5시쯤 기단부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부도탑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붕괴 위험을 고려하여 주변에 접근금지 라인을 설치했다. 시간이 지나자 부도탑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잇티폴 쿤플롬 문화부 장관은 "부도탑은 탑의 외부 크랙으로 인한 누수로 탑의 중심을 잡는 코어가 손상되어 붕괴됐다. 현재 복장품인 청동, 유리 불상 등 다양한 불교 유물들의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식 등록을 마친 뒤 보존을 위해 사원에 다시 돌려줄 예정이다. 또한 부도탑 복원을 위해 탑의 구조를 연구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종정사서 보명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승정위원 인봉, 은곡, 지민, 지운, 지심, 명재, 지공

총무원장 해불 문화원장 혜관 문화부원장 마애 사정부원장 성우
종회의장 지경 원장사서 성화 포교원장 해인 포교부원장 지연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자원 수선원장 응진 수선부원장 성혜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성덕 교육원장 법지 교육부원장 묘현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충 북 종무원장 정연 충 남 종무원장 성현
대구·경북 종무원장 지화 경남·울산 종무원장 무간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강 원 종무원장 혜인

중앙종회 종회의원 지학 성현 성화 근혜 보명 묘현 성우 정연 성각 혜원 지화 응진 지연 자원 혜송 무영 해산 성덕 해인 무간 도암 도일
중앙신도회장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실 서해 흥교 주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전화 055)262-0108~10

캔버스에 세운 탑, 대중을 위로하다

민화작가 송진석 초대개인전 '玄, 별 헤는 塔'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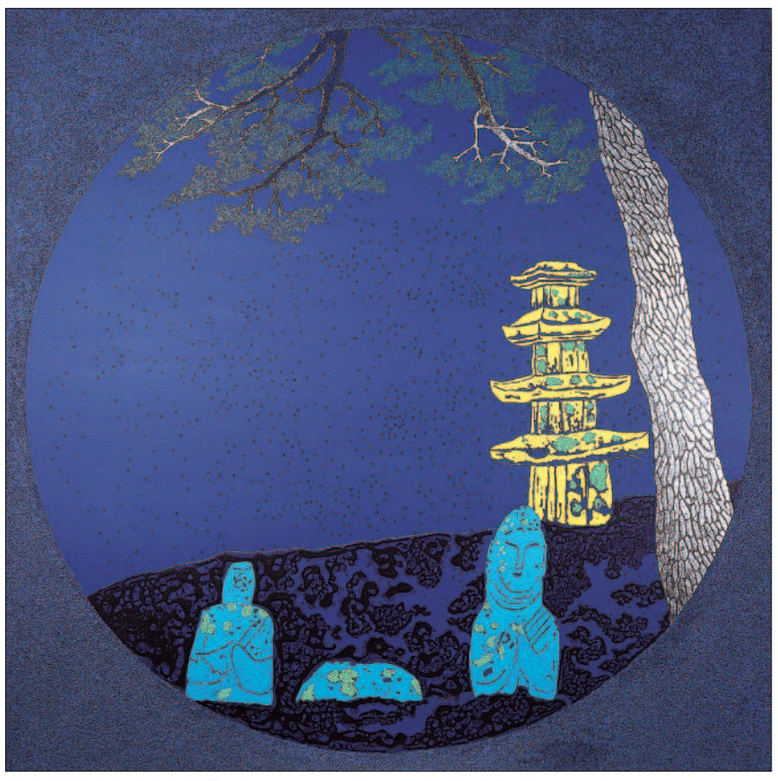
탑을 소재로 한 민화를 그리고 있는 송진석 작가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모나리자 산촌에서 초대개인전 '玄, 별 헤는 塔'을 연다.

송진석의 그림은 전통 민화 속에 새로운 소재(탑과 별 등)를 등장시킴으로써 '신민화(新民畵)'를 선보이고 있다. 네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송진석은 두 번째 개인전 때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탑'을 소재로 한 민화 30여 점을 선보인다.

송진석은 화가로서의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길고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운무 속에서 보게 된 석탑을 통해 긴 방황을 끝냈다. 이후로 송진석은 캔버스 위에 탑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니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송진석의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라기보다는 현세구복을 바라는 공덕탑의 의미가 더 크다. 많은 대중이 건강하고 행복한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캔버스 위에 탑을 그리는 것이다.

11~20일 갤러리모나리자 산촌
탑 소재 新民畵 30여 점 전시
운주사 천불천탑서 영감 얻어
自己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

일반적으로 석탑을 떠올리게 되는 탑의 이미지는 차갑고 무겁지만 송진석의 탑은 색과 이미지를 변형해 따뜻하게 느껴진다. 또한 탑의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탑을 해체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의식의 자기(自己)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탑이라는 물상으로 '형상 밖의 형상(象外之象)'을 나타내고자 하는 작업이다.


송진석 작가의 신민화 작품 '숨(91X91cm, 캔버스, 아크릴, 혼합재료, 2022)'

작품의 소재가 된 운주사 탑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송진석 작가 자신의 정신을 담아 새롭게 구성한 무의식의 공간이다. '현(玄)'은 우주이며 심오한 내면으로 작품의 바탕색을 말한다.

탑의 표현에 있어서 점과 번짐의 혼용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경계로 확장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작가 자신이 인식한 탑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표현으로 작가의 경험과 기억이 투영된 것이다. 작품에서 타분 기법과 번짐 기법, 점 등은 작가의 무의식을 표현한 조형 수단이다. 작가 자신의 내면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송진석 작가는 "힘든 현실 속에서 행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탑에 기댈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의 새로운 민화가 그들을 위한 숨 쉬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735-0312

국외소재재단 이사장 김정희 명예교수 임명



제4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김정희 원광대 명예교수〈사진〉가 임명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0월 1일 자로 제4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김정희(金廷禧, 1957년생) 원광대 명예교수를 임명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말까지 3년이다.

김정희 신임 이사장은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문화재청 동산분과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원광대 박물관장 △원광대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의 조사 · 연구, 환수 · 활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신성민 기자

전통 '落火 의식' 재현…사찰 축제로 거듭

세종 영평사, 10월 2일
'정화의 불꽃 낙화' 축제

숯가루 넣어 만든 한지 봉투에
불을 붙여 불꽃을 보는 '낙화법'
사찰서 행했던 전통 정화 의식
市무형문화재 신청 등 보존 노력

"낙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악업과 번뇌가 씻겨 나갈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밝은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을 전하십시오."

세종시 장군산 영평사 경내에 낙화(落火)가 반딧불처럼 흩날렸다. 10월 2일 진행된 제6회 낙화전통문화축제 '정화의 불꽃 낙화'와 코로나 극복 기원 산사음악회에서 선보인 낙화는 오랫동안 사찰에서 잊혀져온 문화를 사부대중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올해 낙화전통문화축제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려 경내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낙화'는 숯가루와 소금 등을 한지에 넣어 꼬아 만든 봉투에 불을 붙여 흩날리는 불꽃을 보는 것을 말한다. 흔히 한국의 전통 불꽃놀이로 소개 되곤 한다. 현재 국내 각지에서 줄불놀이, 낙화놀이 등 민속놀이의 하나로 시연되고 있지만 원형은 모두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에 여러 재난과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 봉행되던 불교의식인 '낙화법(落火法)'이다.


세종 영평사는 10월 2일 제6회 낙화전통문화축제 '정화의 불꽃 낙화'를 개최했다.

불교의 낙화는 민간과 달리 심지에 진언이나 시주자의 이름 등을 쓰는 등의 구별되는 점들이 특징이다. 또 제대로 만들 경우 6시간이 넘게 오래 타오르는 것도 구별된다. 낙화에서 흩날리는 불꽃들은 보는 이들에겐 악업소멸과 재난의 정화를, 사찰 측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액막이를 하는 의미가 있다.

사찰에서의 낙화는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이북을 중심으로 사찰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영평사 측은 "이 낙화법은 50여 년 전 월남하신 노장스님이 전하신 방법"이라고 전했다. 현재 불교계에서 연례행사로 사찰에서 낙화를 행하는 곳은 이곳 영평사가 유일하다. 최근에는 영평사의 낙화법을 연구한 논문집도 출간됐으며, 세종시 무형문화재 등록도 신청했다.

이날 낙화들은 영평사 대웅보전 앞 특설 거치대와 경내 곳곳에 걸렸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결계의식을 진행해 이 낙화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불교의식임을 대중들에게 천명했다. 이후 수구다라니를 염송하면서 5가지 공양물을 화로에 태워 축원했다. 모든 의식이 끝난 후 낙화에 불이 붙여졌다. 특히 점화 후 30분가량이 지나 낙화불을 일시에 떨어뜨리는 순간, 대중들의 탄성이 경내에 터지면서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했다.

이번 낙화축제는 SNS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며서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 점화전 수구다라니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경내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절마당은 물론 맞은편 언덕까지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서울에서 낙화를 보기 위해왔다는 한 여성은 "낙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이런 멋진 축제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국보 · 보물 성보, 이젠 3D로 만나세요

문화재청, '네이버 지식백과' 통해 3D 정보 서비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 등 문화재들을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3D콘텐츠로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늘부터 디지털 기술로 제작된 3D 문화유산 정보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볼 수 있게 됐다"고 10월 4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와 지난 2014년 맺은 '문화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를 통해 문화유산 정보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3D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3D콘텐츠는 문화유산 멸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문화재청이 축적하고 있는 3차원 원형기록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서비스되는 3D콘텐츠는 국보 24건과 보물 70건, 국가민속문화재 3건 등 총 100건이다.

주요 불교문화재로는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국보)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국보) 등이다.

이들 100건의 문화재에 대한 3D 콘텐츠는 경량화와 개방형 표준 적용 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기와 접속환경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시대와 재질, 유형별 검색 등 네이버 지식백과의 다양한 지식검색 서비스와 연계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된 것이 특징이다.


3D 콘텐츠로 구현된 국보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

김현숙 네이버 지식백과 리더는 "단편적 문화유산 정보에 고품질 3D 콘텐츠가 추가되며 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식백과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높아졌다"며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력해 네이버 지식백과에 3D 문화유산 콘텐츠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무형유산 가을 장엄한다

삼화사 등 수륙재 봉행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기획행사가 10월 중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에만 볼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수륙재'다. 10월 9일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봉행했으며, 10월 8일부터 9일까지는 경남 창원시 백운사에서 '아랫녁수륙재'를 설행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강원 동해시 삼화사에서 '삼화사 수륙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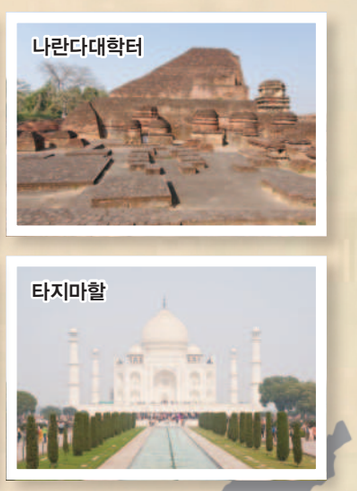
전승자 주관 행사에서도 불교 관련 공연과 전시가 마련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채상묵은 10월 2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과 연합 공연을 진행한다.

불상 조각으로 잘 알려진 국가지정문화재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는 경남 산천군 목아박물관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목조각 시연행사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22일(화) 동참금 : ₩3,290,000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샬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5



▶ 86회 예고
수석장로인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라마를 떠나 아호강 부근으로 가버린다. 마힌다 장로와 아쇼까왕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쇼까라마에 이교도들이 들어와 사문행세를 하며 법회를 방해하고 계율을 훼손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 수자따탑 조성을 명하다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아쇼까왕의 지시로 뻡팔라나무 앞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붓다가 깨달은 이후 7일 동안 뻡팔라나무 밑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었듯 모두들 임시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기쁘게 밤을 새웠다. 다만 단 한 사람 띠쉬아락시따 왕비만 시녀를 데리고 임시숙소로 돌아가 잠을 잤다. 임시숙소에 든 그녀가 시녀에게 투덜거렸다.

"차가운 안개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니?"

"두터운 숄을 두르면 돼요."

"숄을 두른다고 추위가 가시겠니? 나는 피곤해. 잠을 편하게 자야 돼. 그런 곳에서 밤을 새우는 대왕님을 이해할 수 없어."

"아상디밋따 왕비님은 뻡팔라나무 이파리를 주워서 품속에 넣던데요."

"그까짓, 나무이파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 최소한 내 손목에 찬 팔찌 정도는 돼야지."

그러나 우빠굽따와 마힌다, 악기브라흐마, 상가밋따, 아쇼까왕은 새벽까지 단 한 순간도 졸지 않았다. 그래도 붓다가 보았던 샛별은 보지 못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 뻡팔라나무를 덮어버렸다. 뻡팔라나무 가지에 깃든 새들이 우짖는 맑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쇼까왕은 한 그루 나무에 이처럼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을까 하고 신기해했다. 아쇼까왕이 아상디밋따에게 말했다.

"붓다께서 깨달은 자리의 이 뻡팔라나무를 나는 앞으로 붓다를 대하듯 사랑할 것이오."

그때 상가밋따가 다가왔다.

"사문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뻡팔라나무가 붓다와 같아서 그냥 무념무상의 선정을 즐겼습니다. 새들이 노래할 때는 붓다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빠굽따가 호위대장과 함께 와서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불탑을 두 배로 키우려면 많은 흙이 필요합니다. 흙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뻡팔라나무 옆의 흙을 파서 조성하시오. 불탑에 쓰일 흙을 파면 연못도 하나 생길 것이오."

"연못을 파게 되면 반드시 용이 와서 살 것입니다. 용이 뻡팔라나무와 불탑을 수호할 것입니다."

"대장, 우리 얘기를 들었지요? 호위부대 조장을 이곳에 남게 하여 불탑을 지금보다 더 크게 조성하시오. 왕실로 돌아가자마자 나는 자금을 관리하는 마하마따를 파견하겠소."

"예, 대왕님."

우빠굽따가 다시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이곳은 다시 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으로 올 때 거쳤던 네란자라강을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좋소."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우빠굽따를 따라서 네란자라강으로 갔다. 이번에도 아쇼까왕은 대왕코끼리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이 길을 맨발로 걸었던 붓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우빠굽따는 길을 안내하면서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한 뒤 이곳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했다.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이룬 뒤에도 뻡팔라나무 아래서 7일을 보내시고, 유미죽을 공양 받은 아자빨라나무 아래서 다시 7일을 보내시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붓다는 모짜림마을로 가다가 교만한 브라흐민을 만났다. 그가 말했다.

"사문이여, 그대는 어떻게 해야 브라흐민이 되는지 아시오?"

붓다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잠시 후 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브라흐민은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소. 언제나 자제할 줄 알고, 〈베다〉에 정통하여 청정한 수행을 완성하지요. 브라흐민이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에게 어디엔들 교만함이 있겠소?"

그러나 교만한 브라흐민은 깨달은 붓다를 알아보지 못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떠났다. 붓다는 모짜림마을 무짜린다 연못가의 반얀나무 아래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우기가 아닌데도 찬바람이 불다가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7일 동안이나 내렸다. 그때 반얀나무에 살던 코브라가 나타나 붓다의 몸을 일곱 번 감고 납작한 머리를 쳐들면서 외쳤다.

"어떤 추위와 더위, 모기와 전갈, 바람과 열기, 뱀도 결코 붓다를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붓다는 깨달은 지 4주째에는 네란자라강 건너에 있는 라트나라(Ratnara)마을로 갔다. 라트나라는 보석이라는 뜻이어서 보석마을이라고 불렀다. 라트나라마을에도 반얀나무가 있었다. 붓다는 반얀나무 그늘에서 7일 동안 선정삼매에 들어 해탈의 기쁨을 누렸다. 5주째는 수자따에게 유미죽을 공양 받은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 밑으로 자리를 옮겼다. 7주째는 무짤린다 연못과 네란자라강 사이에 있는 라자야따나나무 밑으로 갔다. 그곳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었다. 그때였다. 욱깔라마을에서 온 뿟까리왓띠 출신의 상인 따뿟사와 발리까 두 사람이 소수레에 팔 물건을 싣고 지나다가 근처의 라자야따나나무 아래 앉아 있는 붓다를 발견했다. 붓다의 몸에서는 흰빛이 나고 있었다. 형제간인 두 상인은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 곡물가루와 꿀을 붓다에게 공양하려고 했다.

"존자시여, 저희가 올리는 공양물을 받으소서. 존자와 존자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희 형제를 존자의 신도로 받아주소서."

붓다가 허락하자 두 상인은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했고 최초의 재가제자가 되었다. 두 상인이 스승을 만난 징표를 받고 싶어 하자 붓다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었다.

아쇼까왕은 수자따가 6년 고행을 마친 싯다르타에게 유미죽을 공양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호위대장을 불러 지시했다.

"이곳은 수자따 처녀가 붓다께 유미죽을 공양한 성스러운 곳이오. 보드가야 뻡팔라나무 옆에 불탑을 세울 예정이듯 이곳에는 수자따탑을 조성하시오."



우빠굽따가 말했다.

"벽돌로 조성하되 맨 위에는 아자빨라나무를 심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오. 백성들은 아자빨라나무를 보면 붓다와 수자따를 생각할 것이오."

아쇼까왕은 수자따탑을 조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빠굽따에게 물었다.

"수자따가 무슨 뜻이오?"

"최고의 선을 행한 여성이란 뜻입니다. 처녀의 본래 이름은 아닙니다."

"붓다께 처음으로 공양을 한 처녀라고 하니 이름도 알고 싶소."

"처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란자라강에 도착한 아쇼까왕은 우빠굽따에게 설법을 청했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소. 붓다께서 십이연기를 관했다고 했소. 짧은 게송의 실제 내용을 듣고 싶소."

"대왕님이시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빠굽따가 이동법당 수레에 올랐다. 아상디밋따 왕비가 시녀들을 시켜 순례일행에게 짜이를 한 잔씩 돌렸다. 순례일행은 토기잔에 든 짜이를 받아들고 모래밭에 앉았다. 네란자라강 너머 우루웰라 고행촌의 수행자들도 모래밭으로 왔다. 이윽고 우빠굽따가 뻡팔라나무 아래서 깨달은 붓다의 십이연기에 대해서 설법했다.

"붓다께서는 괴로움(苦)의 본질을 통찰했습니다. 그 결과 존재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견해가 곧 고통의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곧 고통의 뿌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붓다께서 사유와 숙고를 해보니 열두 가지의 연결고리로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빠굽따는 짜이가 식기를 기다렸다가 마셨다. 토기잔을 들고 있던 아쇼까왕과 순례일행도 우빠굽따를 따라서 토기잔을 들었다. 마침내 우빠굽따가 십이연기에 대해서 설했다.

'붓다께서 '이것이 있으면 더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더불어 저것이 생긴다. 무지를 조건으로 하여 의지에 의한 형성 작용(業, 行)이 일어나고, 이 의지에 의한 형성 작용을 조건으로 하여 재생 식(識)이 일어나고,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몸과 마음의 결합(名色)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의 결합을 조건으로 눈, 귀, 코, 몸, 마음 등 여섯 개의 감각기관(六入, 六處)이 생겨나고,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愛)가 일어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取)이 일어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다시 태어나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有)이 일어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老死)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고의 무더기(苦蘊) 전부가 생겨난다.' 라고 통찰하셨습니다."

우빠굽따는 거꾸로도 붓다가 깨달은 십이연기를 설했다.

"붓다께서 '이것이 없으면 더불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더불어 저것이 멸한다. 무지가 완전히 멸하면 의지의 형성 작용이 멸하고, 의지의 형성 작용이 멸하면 재생 식이 멸하고, 재생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느낌이 멸하고, 느낌이 멸하면 접촉이 멸하고, 접촉이 멸하면 집착이 멸하고, 집착이 멸하면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이 멸하고,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이 멸하면 태어남이 멸하고, 태어남이 멸하면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멸하게 된다. 이리하여 모든 고의 무더기 전부가 멸하게 된다.' 라고 통찰하셨습니다."

마힌다와 상가밋따, 악기브라흐마와 수마나 사미, 아상디밋따는 비로소 붓다의 십이연기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무치게 절감했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뻡팔라나무 아래서 하룻밤을 보낸 것에 비해 감동을 받지 못했다. 띠쉬아락시따는 처음부터 우빠굽따의 설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우빠굽따가 설법하는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아쇼까왕의 표정을 살피곤 했다.

'대왕님은 왜 이 따분한 설법을 들으시는 걸까?'

시녀에게 투덜대기도 했다.

"얘, 저 우빠굽따 장로의 설법은 항상 지루해."

"왕비님, 대왕님께서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대왕님께서 들으시면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재미있다고 말할까? 난 거짓말하기 싫어. 재미없어."

아상디밋따가 잡담하는 그녀들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띠쉬아락시따는 아쇼까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아상디밋따의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쇼까왕은 우빠굽따가 설법을 마치자, 바로 일어나 합장의 예를 표했다. 그러자 순례일행 모두가 우빠굽따를 향해 절을 했다. 다만 띠쉬아락시따만 붉은 사리에 모래가 묻을까봐 절하는 시늉만 했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그녀의 별궁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다.

마침내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보드가야를 떠나 빠딸리뿌뜨라로 향했다. 아쇼까왕이 순례일행을 보고 소리쳤다.

"나는 우빠굽따 장로와 함께 순례하는 동안 깊은 공경과 믿음이 생겨났소! 뻡팔라나무 옆에 불탑을 두 배로 키운다면 장차 태어날 백성들도 붓다에 대한 신심과 존경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오! 수자따가 공양을 올린 곳에 수자따탑을 조성한다면 장차 백성들이 보시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란 것을 느낄 것이오!"

아쇼까왕은 보석으로 장식한 일산이 고정된 대왕코끼리를 타고 이동했다. 왕비들은 수레를 탔다. 호위부대 기마병 군사들은 대왕코끼리 앞뒤에서 호위했다. 코끼리 두 마리가 끄는 이동법당 수레도 순례일행을 뒤따랐다.〈계속〉

10·27 법난의 문제,
현실과 대안 학술세미나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 10·27 법난이 발발한지 어언 42년이 되었습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수사하고,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을 수색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조계종은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한국 현대불교사, 조계종단사에서 씻을 수 없는 법난의 진실을 추구하고, 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려,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 10·27 법난 피해자회

| 세미나 개요 |

● 일시 : 불기2566(2022)년 10월 14일(금) 오후 1시30분 ~ 5시30분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증 언 : 10 · 27 법난의 회고 / 의현스님(전 총무원장, 동화사 회주)
–. 발제 1 : 10 · 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성격 / 김광식(동국대)
–. 발제 2 : 10 · 27 법난, 피해자 개인의 명예회복 방안 / 유승무(중앙승가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⑲ 보문 선사의 구도 수행 7



▶한줄요약
보문은 봉암사 결사 〈공주규약〉의 '탁발'을 실천하며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엄격한 수행과 지계의 삶을 살았다.

스승의 계율과 정신 이어받은 엄격한 삶

19. 팔공산 삼성암 토굴

보문은 1948년부터 약 4년간 법주사 복천암, 도리사 태조선원, 해인사 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1953년 팔공산 중턱에 토굴을 지어 들어가기로 했다. 대처승이 살다가 떠나면서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돌과 흙을 이겨서 벽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다시 지었다.

보문은 토굴 조성과 수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탁발에 나섰는데, 여염집보다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주로 대구지역 시장을 찾았다. 보문이 청아한 음성으로 〈반야심경〉을 염송하며 탁발을 시작하면, 그 염불 소리와 삿갓 쓴 풍모에 환희심을 느낀 상인들은 발우에 지전을 올리고 스님께 합장 예배했다. 그리고 거지들까지도 스님 주위로 몰려들었다. 거지들은 바람에 날리는 지전을 주워 다시 발우에 담기도 하고, 제 주머니에 넣기도 했다. 보문은 토굴을 짓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시금만 남기고 나머지 보시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보문의 '탁발'은 봉암사 결사 〈공주규약〉에 명시된 것으로서, 보문이 여전히 그 정신을 받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문은 삼성암 토굴에서 자주 긴 선정에 들곤 했다. 어느 날, 서암(西庵, 1917~2003)이 보문의 토굴을 찾았는데, 보문은 선정에 들어 꼼짝하지 않았다. 서암은 보문의 뒤에 앉았다. 피곤해진 서암은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되어 일어나 보니 보문은 어젯밤과 같은 모습 그대로였다. 서암이 아침 공양으로 보리 감자밥을 지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보문은 일어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보문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서암이 토굴을 나서다가 돌아보니 보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암이 인사나 하고 가려고 돌아가는데, 그 사이 보문은 다시 좌복에 앉았다. 사흘째 선정에 들어간 것이었다. 서암은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수좌를 그 뒤로는 보지 못했다며 보문을 추앙했다.

보문은 선정에서 깨어나면 나무를 하거나, 채전 일을 했다. 달이 밝으면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행선을 하고 게송을 읊었다. 오도의 경지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삼성암에 청정한 도인 스님이 수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신심 깊은 소씨 보살은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와 힘든 농사일을 하며 손자들을 키우고 있었다. 보살은 산길이 어둡지 않으면 농사일을 마치고 약 10리 쯤 되는 토굴까지 한 시간을 올라가 공양물을 몰래 올려놓고 내려가곤 했다. 그는 노태우(盧泰愚, 1932~2021)의 할머니였다.

보문은 폐의 상태가 더 나빠져 건강이 악화되자 오히려 치료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깊은 산속으로 거처를 옮겼다. 세속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오롯이 자신을 바라보고 싶었던 보문은 그 일이 육신이 다하기 전에 촌음을 아껴 절실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과연 보문이었다. 보문은 2년간 치열하게 정진하며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보문은 1948년부터 약 4년간 법주사 복천암, 도리사 태조선원, 해인사 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사진은 합천 해인사 전경.

20. 대구의 생불과 불교 정화

어느덧 대구 불자들은 보문을 생불로 부르고 있었다. 보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다. 보현사나 서봉사 등에서 보문이 법문하는 날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미군 병사가 보문의 사진을 찍어준 것도 이 무렵이다. 외국인에게도 보문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다.

불교 정화 운동이 시작됐다. 1954년 8월 선학원에서 전국 비구승 대표자 대회가 열렸다. 보문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대책위원 15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보문이 가지 않은 이유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정화의 방법과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보문은 수행을 통한, 수행을 위한 불교의 정화와 개혁만을 생각했다.

보현사는 대구의 중심에 있어 이 지역 불교 정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찰이었다. 수행력이 높고 인격이 청정한 스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불교 정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비구승들이 뜻을 모았다. 보문은 경북도 종무원 종무원장이였던 한송(漢松)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보현사로 내려왔다.

21. 대구 불교의 혁신

1955년 보현사 주지로 부임한 보문은 우선 나한전 자리에 대중을 위한 시민선방을 만들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법회를 열고 법문을 했다. 법당이 모자라 마당까지 청중으로 가득했다. 보문은 청아하면서도 우렁찬 음성으로 소탈하고 간명한 사자후를 토했다. 법문은 부처님 가르침을 평등으로 갈무리했다. 법문이 수행 기풍을 일으켰다.

토굴서 자주 긴 선정에 들어
대중 위한 시민선방도 열어
"초파일 전에 떠날 것 같다"

무슨 이유인지 법문 내용을 기록하지 않게 해서 전해지는 법문이 없다. 다만 수행을 권유하는 가사체 〈권유문〉이 전한다. 중생의 일생을 장님이 미친 말에 올라타 험한 지옥의 구렁텅이를 달리는 것에 비유했다. "그럭저럭 살다가는,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다. 한평생이 잠깐이니 분외 탐심을 내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배고플 때 밥 찾듯이 공부하라. 이생 아니면 다시 공부할 수 없고 이생에서가 아니면 죄를 면할 길도 없다. 지옥 극락 따로 없으니 현세에 극락을 만들라. 만 년 동안 불에 탄 종자도 싹이 나고 천 년 동안 마른 나무에 꽃이 다시 핀다. 그와 같이 부처님 법을 믿고 촌음을 아껴 정진하면 지옥 같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극락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불법에 대한 믿음과 수행 정진을 고구정녕 권유하는 간곡함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22. 상좌 희섭과 은사 한암

보문은 상좌를 두지 않으려 했다. 아픈 몸으로 고단한 수행 길을 걷는 제자를 걱정한 한암이 희섭(喜燮)을 보문의 상좌로 정했다. 희섭은 한암의 뜻을 받들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보문을 시봉하기 위해 보현사로 내려왔다. 보문은 희섭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3년만 앞서 만났더라면 사람 하나 만들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제자를 지도해 견성의 길로 인도할 자신이 있는데 이미 자기 몸이 망가져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한 말이면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아껴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었다.

보문은 신도를 접견할 때면 장삼을 차려입고 문이 열린 큰방으로 가서 책상 앞에 앉았다. 신도가 특별공양을 올린다고 초청해도 희섭을 대신 보냈으며, 한 시간의 시간을 주었다. 희섭이 이웃 염매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시간을 정해 주었다. 한 번은 시장에 간 희섭이 제삿밥을 먹고 가라는 신도의 강권을 이기지 못해 한 시간 늦게 돌아왔다. 보문은 "당장 오대산으로 가자!"며 걸망을 짊어지고 나섰다. 경책 차원의 시위가 아니라 한암 슬하로 정말 돌아가려 하였다. 희섭은 물론 대중들이 간곡히 잡았다. 두루 참회를 하고 빌기도 하여 겨우 걸망을 풀게 했다. 보문은 그렇게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까지 계율과 규약, 양심을 지키는 데 철저했고 한결 같았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며, 한암의 계율 존중과 언행일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엄격하고 명백하게 실천했다.

23. 회한

보문은 상원사 선원을 원융살림으로 꾸려가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봉암사 결사를 끝까지 이끌지 못해 한국불교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생애 끝자락으로 다가서면서는 불교정화운동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해야 했다. 대처승을 몰아내고 비구승이 사찰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불교 정화가 아니라 불교 망화(亡化)라고 비판했다. 불교 개혁과 정화는 어디까지나 올바른 수행의 여건을 만들고 수행 기풍을 쇄신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던 보문이 그런 식의 '불교 정화'를 인정할 수 없었다. "보문이 10년이라도 더 살았다면 한국 불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뜻을 여기서 찾는다.

보문은 보현사에서의 실행을 바탕으로 하여 영남불교의 중심 본사인 동화사를 총림으로 만듦으로써 한국불교를 마지막으로 개혁하려했다. 그러나 동화사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비구니 도량으로 결정됐다. 석우, 지월과 함께한 동화사 총림 만들기 서원은 여기서 꺾였다. 보문의 육신도 가물거렸다.

24. 보살행

어느 날, 보문은 보현사 마당 구석에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다. 돌이 많아 돌을 깨뜨려가며 나무를 심었다. 보문을 무척 존경하여 잠시 곁에 와 있던 보성(菩成, 1928~2019)에게 말했다. "이 나무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나는 가련다" 한 달 뒤, 1956년 초파일 준비가 한창이던 음력 3월 29일, 보문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희섭이 급히 데려온 의사가 강심제를 주사했다. 보문이 벌떡 일어나서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꾸중했다. 갈 때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방해했다는 것이다. 일주일이 흘렀다. 초파일 이틀 전이었다. 희섭을 불렀다. 초파일 전에 떠날 것 같으니 시신의 구멍들을 잘 막아서 방 윗목에 두었다가 초파일 행사를 끝낸 뒤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라 했다.

초파일이 되었는데도 주지스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도들이 결국은 보문의 입적 사실을 알았다. 초파일 행사에 온 신도들로 가득 찼던 법당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동화사 다비장에서 다비를 하고 남은 뼛가루는 팔공산 곳곳에 뿌렸다. 부도탑도 세우지 않았다. 보문의 뜻이었다.

희섭이 떠나자 대구에서 보문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다. 신도들이 나서서 스승이 했던 대로 탁발을 하여 제수를 마련했다. 영단에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던 한 보살이 울먹였다. 백여 명의 보살들이 따라서 울었다. 도량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제사가 끝나자 제수를 인근 집집마다 나눠주고 보문이 탁발을 자주했던 서문시장 주변 거지들에게도 나눠주었다. 탁발금 중 남은 돈으로는 쌀과 과일을 사서 고아원과 양로원에 주었다. 그 뒤 해마다 탁발은 거듭되었다. 보문의 보살행이었다.

〈연세대 객원교수〉

외부 필자의 연재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생명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혈자리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형식적인 혈자리들을 죽어라 익히고 그 자리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침술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완전 초보자분이라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지도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

이안의 Media In Buddha ❶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이안 영화평론가는** 서울대에서 미학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상문화이론과 영화학을 전공했다. 다양한 매체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평론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공회대에서 영화에 대해 가르치는 강사이자 독립 다큐멘터리 〈나의 노래: 메아리〉를 제작한 프로듀서다. 현재 춘천SF영화제 운영위원장이자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다.

빈 화폭에 방울방울 맺히는 화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화두와 선문답 가운데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물음이다. 어떤 스님이 이같이 묻자 조주 스님은 '없다' 고 답했다. 그런데 이 답 자체가 화두가 되는 선문답의 예가 되곤 한다. '모든 생명체에게 불성이 있다' 는 부처님 가르침을 모를 리는 없으련만 구태여 질문을 던진 스님이나 선지식으로서 '없다' 고 답한 조주스님이나 만물이 불성을 품었다는 가름침을 귀히 여겨 불문에 들었을 터이다.

조주 스님이 어떤 분인가? 778년에 태어나 120세에 선종하기까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如何是祖師西來意)' '뜰 앞의 잣나무로다(庭前栢樹子)'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狗子還有佛性也無)' '없다(師云無)' 같이 선이 뭔지 잘 모르는 일반 대중도 한 번은 들어본 유명한 화두를 남긴 바로 그분이다. 당나라의 공안 1700칙 가운데 가장 뛰어난 100칙이 실린 〈벽암록〉은 '안개 낀 바다의 나침반, 밤길의 북두' 라고 일컬어질 정도여서 송나라 시대에 수좌들이 이 책만 들여다보며 외우는 바람에 그러다 선이 형식화될까 저어한 대혜종고 스님이 책들을 다 거두어 불태웠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선가에 끼친 영향력이 절대적인 선사다.

그런 조주 스님이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화두는 불립문자, 언설과 문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과 틀에 집착하거나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언어 이전의 소식이다. 그러니 말이나 글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화두를 잡고, 치열하게 경계를 넘고, 자신를 넘고, 세상을 넘는 방법에는 선문답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령 그림이나 음악, 영화도 화두와 선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는 평생에 걸쳐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화두를 파고들어 경지를 이룬 대가로 잘 알려진 화가 김창열에 대한 영화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두 사람이다. 김오안과 브리지트 부요 감독, 이 둘 가운데 김오안 감독은 화가 김창열의 아들이다.

프랑스 이민자의 아들로서 국제결혼한 가정에서 자란 김오안 감독은 한국말이 어렵다.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교육을 받고,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어머니의 말인 프랑스어가 더 익숙할 밖에. 영화를 처음 시작하던 무렵의 김오안 감독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화를 완성하고 한국 영화제에도 오고, 개봉도 하고, 한국 관객들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느릿느릿하더라도 또박또박 한국말로 답을 하고자 한다. 김오안 감독이 브리지트 부요 감독과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눌 때나 또다른 외국어인 영어로 묻고 답할 때 보면 원래 말이 아주 느린 사람은 아닌데, 한국어는 발음 하나하나 단어 한마디 한마디 꼭꼭 눌러 말한다.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한 장면.

그만큼 잘, 제대로, 바르게 전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의 만듦새 또한 딱 김오안 감독의 한국말과도 같다. 평생을 침묵하며 내면의 진심은 오직 그림, 그것도 물방울 그림으로만 표현하는 아버지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아버지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묻고 또 묻는다.

침묵과 물방울, 빈 화폭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말 없는 일상과 살아서 이미 세계적 화가로 명사가 된 셀러브리티의 사회적 모습.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에는 이 사이에 주름져있는 결을 들추고, 그 결들 아래 묻혀있던 질문을 던진다. 김오안 감독은 아들로서 화자가 돼,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때로는 '물방울 화가' 인 아버지 김창열 화백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 어떻게든 언어화된 대답을 듣고자 하고, 때로는 미뤄 짐작하는 답을 자료 화면들 속에서 건져 올린다. 이런 방식으로 김창열 화백이 작고하기 전 마지막 6년간 집요하게 묻고 또 무는 과정이 이 영화에 담겨있다.

"아기, 전부 하얗게, 한 남자가 상자를 들고 와. 상자 안에는 비밀이 있지"라는 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그 상자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버지의 심연이다. 이 영화는 혼자만의 화두로 심연과 맞서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버지라는 심연을 화두로 삼은 선문답의 과정이며, 투명하고 어떤 의미도 담은 것 같지 않은 물방울로 유명해진 화가가 왜 물방울만 그리고 또 그렸는지, 그 치열한 수행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청소년 김창열은 한국전쟁 발발 전에 38선을 넘었다. 청년이 된 김창열은 서울대를 다니던 시기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폭격과 총격이 난무하던 시기, 바로 앞에서 폭탄이 터져 김창열 화백 앞에 있던 남자가 박살이 나는 모습도 보았고, 탱크 바퀴에 머리가 깔려 형체가 무너진 주검도 보았다. 그 전쟁 중에 중학교 동창 가운데 반 너머가 죽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큰 죄책감에 평생 짓눌려 왔다는 고백을 들을 때, 해탈한 듯 보이던 화가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된다. 그 연민과 공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 **"아들 김오안 씨 공동 감독 나서 물방울 그림 그려온 김창열 화백 마지막 6년간 면면을 필름 담아 심연과 맞서는 아버지를 화두로 아들은 선문답 같은 대화 이어가"**

비참하고 가혹한 시대를 겪은 뒤 화백은 한국을 떠나 뉴욕을 거쳐 프랑스에 정착하게 된다. 거기서 김오안 감독의 어머니가 된 반려도 만나고 물방울도 만났다. 고향을 잃고 고국을 떠난 이민자 청년에게 어느 순간 물방울이 맺혔다. 하나의 물방울이 수 천, 수 만, 수 억의 물방울이 되었지만 그 물방울들은 아무리 많아도 고향으로 가는 물길을 열지 못했다.

김창열 화백은 감독인 아들에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고향 맹산이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화백이 세상을 뜨고, 영화가 마무리되기까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아들인 감독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독은 아버지를 '산타클로스가 아닌 스핑크스' 였다고 한다. 도통 말이 없이 어쩌다 한 마디 던지는 말이 어려워서도 그랬겠지만 잠자리 머리맡에서 사랑스럽고 행복한 동화 대신 달마 대사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버지였다니! 달마대사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잠들지 않으려고 스스로 눈꺼풀을 자르고 부릅 뜬 눈으로 깨어있으면서 9년간 빈 벽을 마주하고 수련한 선사, 화두를 잡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버리고 또 버린 지독한 수행의 표상이 아니던가.

김오안 감독은 한국에 와서 지금 관객들을 만다고 있다. 한 관객이 물었다. 인터뷰 장면에서 왜 그렇게 카메라를 바짝 들이댄 얼굴 클로즈업으로 연출했냐고. 감독이 말하기를 워낙 말도 많지 않고 표정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분이라 카메라로 크게 잡으면 작은 감정 표현이라도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란다.

김창열 화백은 마치 일에 쫓기는 노동자처럼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에 매달렸다고 한다.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아들은 그 침묵 앞에 카메라를 들고 대답을 기다린 것이다. 프랑스에 살고 있던 김오안 감독은 한국에 돌아와서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러 종종 한국에 오곤 했다. 그러던 시기인 2015년부터 촬영을 시작해 2019년 최종 편집을 마쳐 완성되기까지 평소 궁금하던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카메라를 들었지만 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대상을 미화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오래전부터 사진작가로서 공동작업을 해왔던 브리지트 부요가 공동감독으로 참여하게 됐다. 브리지트 부요 감독은 아들이라는 입장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아들이기에 볼 수 있는 순간과 아들과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라는 조언으로 김오안 감독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영화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해서 김오안 감독은 6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라는 화두를 잡을 수 있었고, 한국을 오가며 아버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말을 익히게 되었고, 지금 관객을 만나면 통역을 거치지 않고 되도록 한국말로 듣고 답하려 한다. '한국' 이라는 화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으며, 그 안에는 역사와 시대가 있다. 관객은 그 역사와 시대를 영화라는 선문답 없이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저 미술 실력 뛰어난 유학생이 20세기에 유행한 추상미술을 선택해서 어쩌다 그린 물방울이 우연히 서양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아 돈과 명예를 거머쥐게 된 화가로 짐작할 수도 있었다. 미술 시장에서 물방울이 잘 팔리니까 계속 물방울만 그린 건 너무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성공해서 자신의 이름을 건 미술관까지 헌정 받았으니까.

이 영화가 없었더라면 그런 오해가 있건 말건 침묵의 화가, 물방울만 그리는 화가를 우리도, 아들도 영영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의 화두가 된 아버지는 아버지의 화두가 된 물방울의 의미를 찾아 관객에게 전해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은 그 물방울이 어떤 비명, 어떤 고통, 어떤 상처인지 짐작하게 됐다.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던지는 것은 사실 답을 듣고자 함이었던 것이요, 불가에서 화두를 던지는 것은 경계를 넘어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서 화가의 작품도 보고 싶어진다.

영화의 개봉에 발맞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곡미술관에서는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영화 제목과 같은 〈물물을 그리는 남자〉 사진전이 무료로 열리고 있다. 영화를 연출한 두 감독은 사진작가로서 이 영화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50여점을 전시하며 김창열 화백의 아내이자 김오안 감독의 어머니이며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한 김마르틴이 작성한 글 등 다큐멘터리에 다 담기지 못한 다른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물방울, 그저 표면이 아니라 심연인 그 화두를 직접 보시기를.

〈영화평론가〉





대행 선사 가르침, 보편적 언어세계로 담다

한마음선원 국제학술대회 참관기



9월 23~25일 열린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이하여 한마음선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6월17~18일 대행선연구원에서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와 9월 23~25일 '뉴 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한마음과학원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가 그것이다.

필자는 대행 선사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간 몇 편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으므로 두 차례에 걸친 학술대회를 지켜보면서 대행선사 사상의 연구 방향성에 대하여 떠 오른 생각들이 있어서 이를 기고문으로 작성했으며,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가 과문한 탓이다.

최근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는 그동안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해온 연구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혼란스러운 현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평소 한마음과학원에서는 대행 선사의 사상을 토대로 생명의 근원으로서 본래성품, 그 작용으로서 마음내기 및 현상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나툼 등의 세 가지 상호관계를 '한마음 원리'로 파악하여, 불교와 과학이 둘이 아닌 관점에서 그 원리를 현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궁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마음, 과학, 종교'를 부제로 붙인 것은 '지구촌의 공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방법론의 핵심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과 종교를 한 자리에 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갈등, 서로 무관한 독립, 상호 보완적인 대화와 통합 등의 관계로 보지만, 이 외에도 서로 병용하거나 절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종교와 과학을 갈등과 독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마음을 중심으로 대화와 통합의 관계로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열려있는 관점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대행 선사의 사상 속에 충분히 녹아 있던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지나 더욱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대행 선사는 한마음 원리의 기반이 되는 깨달음과 수행법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그 원리를 현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매우 폭넓은 사상체계를 보여 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와 과학은 대행 선사의 사상 연구에서 두 가지 방향성을 나타내는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적 연구방향에서는 전통 불교적 맥락에서 대행 선사의 깨달음과 수행방편을 중심으로 그 사상적 정통성과 정체성 정립을 위해 궁구할 수 있다. 이때는 불교라는 기성 종교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과학적 연구방향에서는 다양한 전문적 분야, 즉 천문, 생물, 지구과학, 의학 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심리 등 사회과학 및 문학, 교육, 종교와 같은 인문학 등과 관련해서 한마음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마음의 원리와 각 분야의 관계성이 뚜렷하게 정립돼야 하며, 그 원리의 기반은 종교적 영역에서 깊이 다룰 수 있는 대행선사의 깨달음과 수행방편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두 영역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모두 포섭하여 연구해 나가는 것이 대행 선사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이 두 연구방향은 때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한마음'이라는 공통 기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구 방법과 범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두 번의 국제학술대회는 그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대행선연구원에서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것은 전통적인 비구니 승가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대행선사의 종교적 활동상의 위치를 가늠하게 해준다. 특히, 한국불교계뿐만 아니라 비구니계를 위해 대행 선사가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한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반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맞이해
대행선연구원, 한마음과학원서
6, 9월 각각 국제학술대회 열어

대행선硏 · 과학원 학술대회들
방법 달라도 '한마음 원리' 근본
한국불교 미래지향점을 제시해

한마음과학원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지구촌 공생의 삶을 주제로 삼아 종교, 사회문화, 의학, 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그 연구범위의 확장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 방법은 종교학적 연구방법론과도 접점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종교현상을 연구하여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건강한 종교생활 영위와 종교간 대화의 장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단일 사찰 단위에서 불교적 관점으로 종교와 과학 등 두 가지 특징을 모두 포용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시켜 연구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성이 있다. 그 범위를 넓혀서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불교계의 연구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엿보인다.

한편, 양자의 조화와 융합이 늘 성공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형적인 본래성의 영역과 유형적인 현상계의 영역이 서로 둘이 아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과학의 태생적인 성격적 차이로 인해 서로 간에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거리가 멀어 보여서 다른 쪽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대행 선사의 사상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언제나 조금의 틈도 벌어진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입지적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상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포기한다면 마치 한 나무의 뿌리와 열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두 번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서 그동안 보편타당한 진리적 가치를 지향해온 노력의 성과들이 한꺼번에 분출한 것처럼 보이고, 현실생활에 적용시켜온 한마음 사상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의 접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웅크리고 있던 꽃망울이 만개하여 다채로운 색채의 꽃잎들로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확인하듯이, 앞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곧 감탄으로 변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대행 선사의 사상 속에는 이미 그 의문과 감탄 사이의 강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설득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의문과 감탄 사이에는 쉽게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기도 한다. 그것은 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시도가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므로 일각에서는 대행선사의 사상이 아직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래 전통 불교와 접점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대행선연구원의 학술지인 〈한마음연구〉를 통해 연이어 발표되면서 그 사상적 정통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머지않아 대행 선사의 사상적 입처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희망도 헛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방식으로 대행 선사의 사상을 이해함에 따른 오해가 있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인 이해의 토대가 다져질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대행 선사의 사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주관적 언어세계에 날개를 달아서 보편적인 언어세계로 날아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의구심은 그것을 풀어가는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일 뿐, 대행 선사의 깨달음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본다면, 대행 선사의 사상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현재 선불교의 일반적인 현상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언어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통시적 관점에서 이미 오랜 시간 검증되어온 선불교의 전통성과 그 언어관의 계승은 유지돼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시적 관점으로 전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류 생활의 변화를 일으킨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선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실천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언어관으로 담아내어야 할지 그 방법론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통성이 특정 언어체계에 의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전통성은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현재의 언어로 재탄생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마음선원에서 개최한 두 차례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보여준 다양한 색채의 언어세계들은 현대 불교가 미래지향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호 박사는
2018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 정립 방안 연구—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행 선사를 조명하는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임제선과 대행선의 비교를 통한 회통성(2022)',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2)—사심관법을 중심으로(2020)',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1)—주인공관법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한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㊳ 일승(一乘)

〈원문〉 "또 교시가여, 이 경에서 설한 것은 온갖 의심을 끊고 올바른 뜻을 결정하여 일승(一乘)의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라. 교시가여, 지금 이 승만 부인이 사자후한 경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불법이 머물러 있을 때까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자세히 분별하여 설하도록 하라."

제석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이때 제석천과 장로 아난과 모임 가운데 있던 천인, 인간, 아수라(阿修羅)와 건달바(乾闥婆)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받들어 행하였다.

〈강설〉 부처님이 교시가에게 이어 말씀하신다. 승만 부인이 설한 법이 일승(一乘)의 도에 들어가는 법이라 하였다. 일승이란 일불승(一佛乘)을 말한다. 쉽게 말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한 것이 일승이다.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들인 이승(二乘)들의 수행이 비록 이타 원력이 결핍된 수행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대승심을 발하여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으면 수행이 완성되어 해탈한다고 하였다. 부파불교에서도 일승이니 일불승이니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았다. 대승경전 특히 〈법화경〉이 설해지고부터 일승이 강조되었다. 〈법화경〉의 대의를 '회삼승귀일승(會三乘歸一僧)'이라 하듯이 〈법화경〉 이전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삼승(三乘)을 설하여 각 승(乘)을 구별한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설한 권교(權敎)의 가르침인데 실제로 중생을 부처가 되도록 인도하는 일승의 가르침이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이요, 이를 실교(實敎)라고 하였다. 이미 아라한과를 얻었던 사리불, 마하가섭, 수보리 등이 〈법화경〉에서는 모두 수기(授記)를 받는다. 수기란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여 성불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은 것이 성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리불아 부처님은 오직 일불승으로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한다." 〈법화경〉 경문의 한 구절이다. 부처님 실제 법문에 있어서는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고도 하였다.

〈승만경〉의 일승이 〈법화경〉의 일승과 같은 것이다. 일승을 설한 것이 사자후 법문이다. 그런데 이 일승을 〈법화경〉을 소의로 한 천태종과 〈화엄경〉을 소의로 한 화엄종에서 교상판석(敎相判釋)을 달리하여 일승을 동교일승(同敎一乘)과 별교일승(別敎一乘)으로 달리 말했다. 동교일승은 천태종 설로 삼승과 일승의 관계에서 일승이 삼승과 다르지 않아 다 같이 일승으로 회통(會通) 된다는 뜻이고, 별교일승은 일승원교(一乘圓敎)라고도 하는데 삼승법을 뛰어넘어 삼승과 일승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한 말이다. 승(乘)은 수레를 뜻하는 말로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탈것인 수레에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이 승에는 모두 오승(五乘)있다. 인천승(人天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 불승(佛乘)이다. 종파에 따라 불승을 제외하고 인천승을 인간승 천상승으로 나누어 둘로 보고 거기다 삼승을 합하여 오승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보살승을 빼고 인승, 천승, 성문승, 연각승, 불승 이렇게 오승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천태의 〈법화문구〉에 인승은 오계(五戒)의 수레를 타고 삼악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천승은 십선(十善)의 수레를 타고 인간의 팔고(八苦)를 벗어나고, 성문승은 삼계(三界)의 무상(無常)이라는 것을 벗어난다고 하였다. 연각승은 남으로부터 듣는 괴로움을 벗어나고 안으로 지혜가 없는 고통과 밖으로 상호(相好)가 없는 고통을 벗어난다 하였다.

또 〈화엄경소초〉에는 5승을 방향에 맞추어 설해 놓은 이야기가 나온다. 중앙이 불승이고 동쪽이 보살승이며, 남쪽은 연각승, 서쪽은 성문승, 북쪽은 인천승이라 하였다.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세계를 육도 가운데 천상과 인간, 아수라 삼도(三道)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경전 말미에 이 삼도 중생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며 신수 봉행했다고 말하는데 〈승만경〉에는 건달바가 추가되어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요동치는 마음 비추어보면 자성불 만나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㊶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4.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 정확한 자각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이 믿는 그 부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혹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식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쉽게 깨어질 수 있다.

△부처님, 중생 마음에 항상있어

부처란 무엇일까? 부처란 중생 스스로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청정자성(淸淨自性)'이다. 청정자성이란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의 당체(當體)를 의미한다. 이 마음의 당체는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진여본성이며, 오고 감이 없는 부동심이다. 이 진여자성을 일러서 무시이래(無始以來)로 구한 바 없이 본래 구족한 '참 나'이며 자성불(自性佛)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마음의 당체는 중생 누구나 스스로 갖추고 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마음의 당체인 청정자성은 무명의 업식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며, 불각의 마음이 생겨나기 이전의 마음이다. 또한 육근(六根)이 육경(六境)을 접촉할 때 접촉 다음에 나타나는 촉경(觸境)을 취사선택하며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일러 참 나, 진아, 법신불, 자성불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중생심을 바로 알고 중생의 마음 바탕에 항상 그대로 있는 진여본성인 자성불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옛 조사들은 마음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중생과 부처는 하나의 당체(當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 하나의 당체(當體)이다. 〈60권 화엄경(華嚴經)〉 '제16 야마천궁보살설게품'에서 "마음과 같아서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서 중생도 그러하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에 이르기까지, 이 셋은 차별이 없음이라."라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은 진여본성과 중생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즉 이중성의 마음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마음에 대해 "일심이문(一心二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심은 진여본성이지만 이 일심은 이문(二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청정본심에 무명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래장(如來藏)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명 업식(業識)을 계속 일으키는 중생성인 '아뢰야식'이다. 이 여래장과 아뢰야식 이 두 가지 마음은 원래 한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마음' 곧 '일심(一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갖춘 자기 부처

일심인 진여본성은 모든 중생의 마음 밑바닥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심은 평등한 것이다. 일심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에 그걸 '진여(眞如)'라고 한다. 이 진여본성이 바로 중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성불'이다. 자성불은 태초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부처'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부처를 찾아 밖으로 돌아 다녔다.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형색의 부처를 찾아 사방천지를 헤매고 다녔다. 〈금강경(金剛經)〉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모습(형상)으로 보고자 하는 자나 나를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자는 삿된 도(道)를 행하는 자다. 결코 여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부처님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육근이 육경을 접촉할 때마다 촉경을 향해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멈추어 세우고 내면으로 마음을 되돌려서[廻光返照], 요동치는 마음 그대로를 아무런 조작 없이 지속해 비추어보다보면 언젠가 자기의 진여본성인 자성불을 만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㊳ 말룽끼야뿟따에 대한 경 1

견해는 '나'의 길을 잃게 한다 〈無〉

세상은 영원하다든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든가, 세상은 유한하다든가, 세상은 유한하지 않다든가, 영혼은 육체와 같다든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든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한다든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든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든가라는 논쟁은 유익하지 않고, 청정한 삶과는 관계가 없으며, 멀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멈추고 삼매에 들고 올바로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 뭣꼬?', 서로 다른 뜻을 묻는 듯하지만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 하나는 '나[我]'라는 지칭을 분명히 하여 찾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나[我]'라는 지칭은 생략되었지만 '나[我]'를 가진 시점은 두고 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 그 모양의 양변에 빠지지 않고 양변을 벗어나 본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 본원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모양을 가진 입장이라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은 '완전한 상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 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가 완전한 상태에 흙탕물을 뿌리고 있다고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출발 없이 이 모든 일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가지고 완성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지가 깊이 와 닿아야만 한다.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하여, 더 이상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님이 사무치도록 철저해지는 순간, 본래 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이 없어 문고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면, 청정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삶에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안다. 청정함이 가리키는 곳은 물질이 아니라 그 이름이 청정하다는 것이다. 이름만 있지, 그것을 지칭하는 물질은 존재할 수 없을 때, 진정한 청정함이 되는 것이다.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을 멀리 떠나면, 다시 새롭게 무엇을 더 알아야 할 것이 사라진다. 생성하여질 뿌리가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완전히 소멸하여 멈추어 버리니, 다시 모양으로 삼을 만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 삼매에 든다.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견해가 사라지니 몸과 마음으로 보았던 모양과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생명체는 본원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한다'는 것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견해가 확고한 세상에서 멈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물속에 들어가 물에 젖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 견해의 정글에서 떠나야만 '나[無]'의 멈춤이 무엇인지를 믿게 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열반이 어디에 있는 일도 아니고 어디를 떠나는 일도 분명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여 또는 그것으로 있다고 하여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움직인다면 입으로는 아니라 하지만 몸은 따라와 주지 못하는 꼴이 되니, 정작 자신만 모르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은 없지만 밝히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움직이는 그것에서 바로 밝혀야지 움직이는 것을 쫓아다니거나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수행을 통해 계합하고자 하지만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계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문적인 견해, 경험적인 견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견해들은 '나[無]'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無]'의 길을 잃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스스로는 아무 견해를 가질 수도 없고 견해를 세울 수도 없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만을 그것으로 삼는다. 이 마음만이 청정한 삶을 살게 하고, 멀리 떠나 사라지고 올바로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응급 수술 받았지만
심장 구멍 다시 뚫려 생명 위험

스리랑카에서 온 산지와씨 염색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행…청구된 병원비만 22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07호 | A17 | 전면광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신심명》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50~60대 비구니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자격 : 운전, 컴퓨터로 사찰사무 할 수 있는 분

010-4968-3251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행자 하실 분 모십니다.

010-2078-9595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법정사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사주명리, 상담 가능한 "비구니스님 및 보살님" 특별대우로 모십니다.

대전시내 중심 원광사 ◈ 출가자 상담환영 ◈

042)252-2034, 010-3422-3232

- 기도스님
- 공양주
- 불목(사찰관리자, 처사, 부부환영)
- 평생 함께하실 사부대중을 환영합니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539-4(은적사)
전화 : 055)854-3353 010-8961-5489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전생에 "도선국사"

샛별을 보고 득력, 1년에 햇무리 무지개가 30일 이상 뜹니다. 음택, 양택, 명당 한자리를 찾아주면 햇무리 무지개가 뜹니다. 마곡사, 보리암, 연주암 같은 명당은 전국에 80여 군데나 비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전하면 국운상승, 남북통일이 2030년 안으로 됩니다.

기축생 경력 35년 관상 이무기상 청룡당 남 원명스님 합장

(부산) 전화 : 010-4413-3377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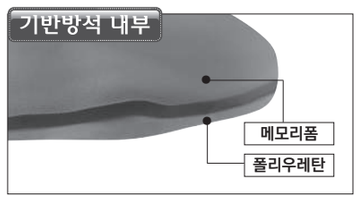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교보문고 및 인터넷도서 절찬 판매중 !!!

전생에 어떤 동물로 살았나

정원욱 지음

성불로 가는 기도와 기공법 / 웰빙 생식 장수법



사람들은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생에 어떤 동물로 살았는지 먼저 알고 난 후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장단점, 재능과 건강상태에 맞춰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전생에 동물의 업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일수록 해당 동물과 같은 기질과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동물과 닮은 전생의 업을 소멸시켜야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인간다운 품성으로 후회없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판매처

교보문고, 영광도서, 예스24, 쿠팡, 알라딘, 위메프, 인터파크도서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7호 | A18 | 전면광고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을 얻게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나니.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사천 넓은 도량 사찰입니다.
- 부지 총면적 : 54,944㎡(16,620평)
- 건물 총면적 : 269.95㎡(81평)
- 가액 : 15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양도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 건평 : 약 50평
-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 스님 몸 건강이 안좋음
- 가액 : 7천5백만원(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내 산세, 경치, 공기 맑고 수련하기 최고
- 부지 : 1400평(봉화 시내버스 다님)도로옆
- 대지 : 200평(마당 강자갈, 주차 15대)
- 법당 15평, 산신각 6평, 정자, 그네, 요사채 25평, 콘크리트 건물, 큰거실, 큰방2개, 수리완벽, 지하수, 집기보시
- 가액 : 2억5천만원

010-7144-784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전세안내

- 감곡사찰 1000평 전세
- 감곡전철 10분 거리
- 청주사찰 전세 9층 건물 중 6, 7층 각100평

010-5883-225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56-1
- 대지 : 17,670평
- 도로 및 토목공사 정비
- 절터, 휴양지, 목장 최적지
- 가액 : 2억원

주인직접 010-5641-1911
010-7635-02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앞산(큰도로변 2층)
- 사찰 이전관계로 급 임대
- 보증금 : 3천만원 월 : 110만원(부가세포함)
- 시설비 상담후 조정

010-6302-382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시내에서10분거리)
- 대지 : 종교부지 500평, 밭포함, 약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현대식건물), 법당집기 일체 포함
- 가액 : 4억5천만원

010-5581-3081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603번지) ●대지 : 700평 외 전(실사용 천평)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요사채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유실수 다량 ●따뜻한 남향,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가액 : 5억원

010-9203-1165
010-9564-1165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36평 2동, 8평 2동,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 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물금신도시
- 사용대지 : 250평 중 개인땅 93평
- 산속에 아담한 암자
- 가액 : 3억5천만원

010-3497-1471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6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 스님 노환으로 급 양도
- 시내 인접, 집기 무료 제공
- 가액은 상담후 결정

010-2366-2821

사찰(3,4복층)안내

- 위치 : 김해시 내외로11번길 3-19
- 3층 : 넓은 법당(옥향로, 촛대, 공양기) 시설완벽, 스님방, 넓은주방, 화장실
- 4층 : 아주 큰방1, 작은방2(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시설비 일체 : 1천5백만원
- 비품 일체(5백만원상당) 무료제공
- 스님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010-5458-29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7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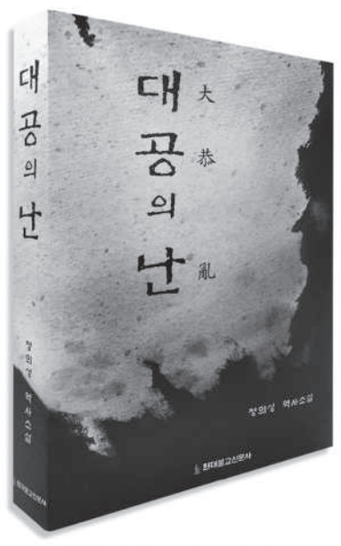
010-5371-5567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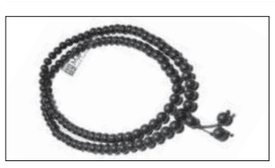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⑲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 반송

땅과 하늘과 사람 영역 하나로 묶어낸 반송

'도심 속 명산' 은 연간 800만 명이 다녀간다는 북한산을 빛내주는 수식어다. 서울시 다섯 개 구와 경기도 세 개 시를 아우르고 있는 북한산 정상 백운대는 836m로 고양시 땅이고, 노고산 정상은 487m로 양주시에 속한다. 이처럼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좀 어지러운데, 인간의 구획이 있기 전인 중생대 쥐라기 그러니까 약 1억 6000만년 전 거대한 화강암체로 시작되어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숲이 인간의 영역에 갇힌 꼴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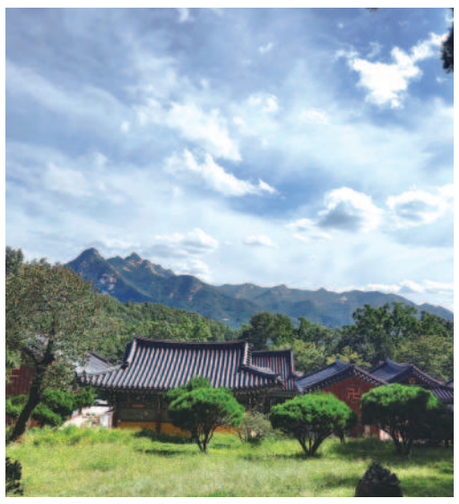
그래서 언젠가 수정되어야 할 문구라고 여기며 효자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수풀 사이를 흐르는 창릉천 다리를 건너 흥국사로 향한다. 가을볕인지 여름볕인지 따갑고도 뜨거운 기운에 축 처지기만 하는데, 창 넓은 모자를 쓰고 밭을 돌보는 이를 보니 절 답사 가는 길이 축복 같아 서둘러 일주문 앞에 선다.

'興國士(흥국사).' 명쾌하다. 땅 위에 하늘 아래 흥국사만 있는 것 같다. 지리 확인은 군더더기 수식어다. 오로지 흥국사만 기억하면 만사형통인 것 같다. 실제로 흥국사만 번창하면 나라도 전 세계도 번창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흥국사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다.

국태민안의 사찰인 흥국사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661년에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당시 이름은 흥성암(興聖庵)이었다는데, 날로 피폐해지는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며 북한산 원효암에서 정진 수도하던 원효대사는 어느 날 맞은편 노고산(혹은 한미산)에서 상서로운 빛이 솟는 걸 보고 가니 석조 약사여래 부처님이 계셨단다. 그래서 앞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라 생각하고는 흥성암이라 하였는데, 조선 영조 때 흥국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영조는 파주에 있는 자신의 생모 숙빈 최씨의 묘소인 소령원에 행차를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 흥성암에 하루를 묵게 되었단다. 다음 날 아침 경내에 가득 쌓인 눈을 보고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시를 남기고는 흥국사라는 글씨를 써서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후 많은 이들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흥국사에서 기도를 하였다는데, 나라가 잘 되면 개인도 잘 되는 법, '흥국사' 단 한 줄로 흥국사는 설명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일주문을 지나니 포장도로와 계단길이 나타난다. 그 사이에 만일 동안 염불을 했다는 만일회의 역사를 기록한 흥국사만일회를 잠시 보고는 느티나무를 먼저 보기 위해 야트막한 언덕길



세상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듯한 흥국사 반송.

여러 줄기로 자라는 게 특징
생김새 둥근 밥상 같아 '반송'

을 오른다. 넓은 평지가 나타날 즈음 기어들 듯 자라는 모습, 오랜만에 다시 봐도 여전히 처연하면서도 살려는 기운이 찌릿찌릿 전해져온다. 아니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서 푸른 잎을 피워내고 열매까지 매달아주고 있어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

2003년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된 흥국사 느티나무는 지정 당시 450년 수령으로 추정한다는데, 높이는 15m, 나무둘레는 3.7m란다. 안내판을 보면, 노거수로 동공이 크게 만들어져 있어 외과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나무는 본래 물관과 체관이 있는 변재만 세포활동을 하고, 나머지 심재와 수피는 죽은 조직이다. 그래서 느티나무의 경우 버팀목을 세워 쓰러지지 않게만 하면 천년 이상을 살 수 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미타전으로 부르는 대방을 보고는 주불전인 약사전 앞마당에 가득한 국화꽃 향내를 맡으며 흥국사 전망대로 올라간다.

1988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는 수령 250년 추정, 높이 12m, 나무둘레 3.3m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원효봉, 의상봉, 나한봉 등 북한산 능선을 조망하니 화강암보다 더 단단한 부처님 기운이 쏟아지는 것 같아 불끈 힘을 쥐고는 그 옆 명상쉼터 의자에 앉는다. 그때 의자 아래 앞 풀밭과 그 지평선 위 청기와 지붕 전각과 그 너머 봉긋 솟은 참나무 그리고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아래 북한산 풍경을 하나로 아우르는 듯한 서너 그루의 반송들이 시리게 박혀온다.

소나무 변종 품종으로 보고 있는 반송이 한반도에 언제 등장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 소나무는 줄기 하나가 땅에서 올라와 하늘로 쭉 자라는데, 반송은 땅 바로 위에서부터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반 반(盤), 소나무 송(松)을 쓰는 반송은 옆으로 번지듯 자라는 생김새가 작은 밥상인 둥근 소반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반송은 오래전부터 선비들에게 정원수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땅과 하늘과 사람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느낌을 반송을 통해 받고는 절을 떠날 때는 계단길로 간다. 해탈문 편액을 보고 둥근 원을 지나 불이문 편액을 되돌아본다. 불이가 먼저인가, 해탈이 먼저인가? 둥근 원 안에 모두가 하나인게 먼저인가? 북한산, 노고산, 고양시, 양주시, 서울시,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반송, 이 구분은 인식으로 온당한가? 원에서 나는 무엇인가? 반송 하나로 묶여지는 숱한 풍경도 결국 마음 하나가 내는 것 아닌가? 어디선가 도토리 하나 툭 떨어진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⑱ 오세영의 '좌탈입망'

'웰 엔딩(Well Ending)'의 삶을 위하여…

좌탈입망(坐脫立亡)/ 오세영

어느 가을 저물녘,
여름내 허공을 맴돌던 한 마리 고추잠자리가
바지랑대 하나를 골라 정좌하더니
날개를 편 채
자는 듯 생을 마감하였다.

순간,

—반짝—

투명한 그의 모시 장삼을 물들인
서천서역(西天西域)의 황홀한 노을빛.

하늘도 벽이 있었나.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화두 하나 쥐고 입적한 그
노스님.

—오세영 시집, 〈갈필의 서〉, 서정시학, 2022—

앉을 '坐' (좌), 벗을 '脫' (탈), 설 '立' (입), 망할(죽을) '亡' (망). 좌탈입망(坐脫立亡). (승려들이) 앉거나 선 채로 죽는[입적(入寂)] 것을 말한다. (사람이 어떻게) 앉거나 서서 죽을 수 있을까. 출가 전에도 출가 후에도 필자는 늘 그 모습에 주눅이 들곤 했다. 출가해서는 그런 고승들을 목도하면서 더욱 주눅이 들었다. 얼마나 수행해야 저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얼마나 정진해야 그렇게 삶과 죽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을까. 그런저런 상념은 항상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오세영 시인의 이 시를 보고 우슬(右膝. 오른쪽 무릎)을 탁 쳤다. 머릿속으로 "—반짝—", 번개가 지나간 것이다.

오세영 시인은 어느 가을 날 저물녘에 뜨락(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시인 자신처럼) 여름내 허공을 맴돌던 한 마리 고추잠자리가" "바지랑대 하나를 골라 정좌하더니" "날개를 편 채" "자는 듯 생을 마감하였다." 여기까지는 매우 평범하다. 어려서나 커서나 우리들은 이 같은 기억(추억)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다. 어떤 독자라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려낼(묘사) 수 있다. 진짜 시는 바로 '다음 행' (2연)부터 시작된다. 오 시인은 단 한 줄, "순간,"이라는 시행과 연(聯)으로 그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단 한 줄로 된 시행과 단 한 줄로 된 연의 공간 안으로 1연의 그 모든 과정을 함축하고 통일시켜버린 것이다.

다음 한 줄도 마찬가지다. "—반짝—"이라는 한 행과 한 연의 공간으로 1연에서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시로 승화(형상화)시켜 버린 것이다. 보라, "순간,"으로 포착된 2연의 공간과, "—반짝—"으로 표현된 3연의 공간 속에 다른 시행이 들어가 있다면 이 시는 얼마나 지루하고 멸렬한 설명의 설명이 될 것인가. 한 행 한 연으로 표출된 이 두 공간 속엔 천둥보다 더 큰 긴장과 우주보다 더 넓은 삼천대천세계(불교적 우주)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투명한 그의 모시 장삼"(죽은 고추잠자리의 날개)을 발견하고, "하늘"의 "벽"을 발견하고, 물러설 수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화두 하나 쥐고 입적한 그/ 노스님"을 발견해낸 것이다. 바지랑대 끝에서 죽은 '고추잠자리' 한 마리의 모습에서 화두 하나 쥐고 입적한 '노스님'을 본다는 것은, 오세영 시인 자신이 이미 그 '고추잠자리' 같은 삶-불교적 삶-을 살고 있음을 간접적(혹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좌탈입망' 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다. 첫 번째는, 좌탈입 '망' (坐脫立 '亡')이다. 승려가 앉은 자세나 선 채로 입적(죽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승(高僧) 가운데는 앉아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 죽는 경우도 있다. 선가(禪家)의 전설로 내려오는 삼조(三祖) 승찬 대사는 뜰을 거닐다 나뭇가지를 잡고 열반했다고 한다.

두 번째 뜻은, 좌탈입 '망' (坐脫入 '忘')이다. 앉은 자세로 '옷' (육신)을 벗고 우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선가(禪家)에서 좌탈을 중시하는 이유는 마지막 죽는 순간의 의식 상태가 다음 생[환생(還生)]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교적 우주관에서 보면 죽음은 다음 생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장면이다. 때문에 '앉아서 죽었다' (좌탈)는 것은 죽는 순간에도 의식을 놓지 않고 각성(覺醒)한 상태에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바로 그 상태의 의식수준과 육체적 조건을 갖추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죽음이니 숭고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죽음은 다시 '다비' 라는 숭고한 의식으로 사람(중생)들의 허기를 채워준다. 오세영 시인은 그 장면도 놓치지 않았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 깃을 치는 한 마리 새가 있다./ 푸드득 거리는 그/ 날갯짓 소리./ 툭툭/ 먹이를 쪼아대는 입질./ 타다닥 타다닥/ 부리에 잡혀 사방으로 흩어져 튀는 불똥./ 밤새 수런거리던 그 한 마리 새가/ 이 아침,/ 잿더미만 남긴 채 그만/ 종적이 없이 사라져버렸다. 〈후략〉"

—오세영 시집 《갈필의 서》 중 〈다비茶毘〉 일부

다비 장면을 실감나게 잘 그렸다. 지난 2020년 8월, 필자도 선암사에서 다비 장면을 입망(立忘)으로 직접, 아주 실감나게,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17, 18, 19세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혜초 대종사의 다비식이었다. 다음날 아침 사리를 수습할 때 보니 혜초 종정의 옷(육신)은 장작더미 속에서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때 필자는 생각했다. 그래,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야지, 이렇게 깨끗하고 종적도 남기지 않고 죽어야지, 이게 바로 '웰 다잉' (Well Dying)이고, '웰 엔딩' (Well Ending)이지. 참, 이 시에서 알아두어야 할 대목이 있다. 2연의 "그래서 서역(西域)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屍身)을 굳이 땅에 묻지 않고/ 독수리의 먹이로 삼는다 하지 않던가."는 조로아스터교나 라마교에서 행하는 조장(鳥葬)이나 천장(天葬) 풍습을 말한다. 재미있는 것은 오세영 시인의 시선은 이 같은 현세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오 시인은 같은 시집에서 '윤회(輪廻)' 라는 시를 통해 다음 생도 (즐겁고 기쁘고 코믹하게) 일러주고 있다.

"돌고 돌아 돈이라던가// 그제 한 채의 오피스텔이었던 돈이 어제는/ 카지노의 칩,/ 오늘은 또 귀부인의/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가 되었다./ 〈후략〉" **—오세영 시집 〈갈필의 서〉 중 '윤회(輪廻)' 일부**

시는, 불교는, 종교는 이처럼 즐겁고 기뻐야 한다(때로는 익살맞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종교고 불교고 시다. 시와 불교와 종교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오세영 시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불교문학연구소장〉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⑩ 사후세계 안내서 〈티베트 사자의 서〉



▶한줄요약
모든 일의 결과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죽음서 발현되는 강렬한 의지 '業'

지난 연재에서 살펴 본 정토불교의 내영(來迎) 및 왕생(往生) 사상과 현대 죽음학의 근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은 사망 직후 일어날 현상과 임종을 맞이할 때의 태도에 관해 알려준다. 그러나 죽음 이후 49일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도 퇴돌(bardo thödrol)〉,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티베트 사자의 서〉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체험을 기록한 책으로 일종의 사후세계의 안내서이다. 칼 융(Carl Jung)은 1927년 영역판으로 발간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래 수년 간 이 책은 언제나 나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생각, 영감,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한다"고 서문을 남겼다.

융은 프로이트와 쌍벽을 이루는 정신분석학의 선구자다. 인간의 심리란 여러 층이 겹쳐진 복합체라는 '콤플렉스' 이론을 창시했고 인간이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뉜다는 유형론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성격유형 검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MBTI는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되었다. 한마디로 융은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학의 거장이다. 이런 그가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했다는 점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원제인 〈바르도 퇴돌(bardo thödrol)〉에서 바르도(Bardo)는 '둘(do) 사이(bar)'란 뜻으로 낮과 밤의 사이, 즉 죽음 이후 다음 생을 받기전의 기간으로 '사후세계'를 말한다. 퇴돌(thödrol)은 '듣는(thos) 것으로 해탈(grol)에 이른다'는 의미로서 〈바르도 퇴돌〉은 '사후세계에서 듣는 것 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책'이란 뜻이다.

20세기 초 옥스퍼드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에반스 웬츠(Evans Wentz)는 인도 북서부 다르질링에서 〈티베트 사자의 서〉 필사본을 발견했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8세기경 파드마 삼바바(Padma Sambhava)란 성인이 이 책을 저술했음을 밝혀냈다. 이후 웬츠는 1927년 원본을 영어로 번역한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를 출간했다. 책이 발간되자 1938년 스위스 초판본에는 융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서평을 달았다. 이후에도 〈티베트 사자의 서〉는 여러 판을 거듭하며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 널리 퍼졌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보통 누군가 죽으면 49재를 치른다. 49재는 49일 동안 망자를 위해 재(齋)를 올리는 종교의례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사후 49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책으로 망자는 '치카이 바르도(Hchikhahi Bardo: 죽음 직후 경험하는 사후세계)', '초에니 바르도(Chösnyid Bardo: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 '시드파 바르도(Sridpahi Bardo: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의 세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세 가지 바르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망자가 도달하는 첫 번째 세계인 치카이 바르도는 사후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지속된다. 사망의 순간에는 투명한 빛이 나타난다. 생전에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부단히 한 사람은 빛에 인도되어 윤회가 없는 세계로 곧바로 들어간다. 만약 최초의 투명한 빛을 알아채지 못하면 두 번째 투명한 빛이 사자(死者) 앞에 나타나고 사자가 생전에 지은 카르마(karma)에 따라 빛이 지속되는 시간이 결정된다.

투명한 빛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자는 이후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된다. 사망 후 심체(心體)가 몸 밖으로 나오면 사자는 "내가 죽은 건가. 살아 있는 건가?"라 생각한다. 그는 아직 생사를 분간하지 못한다. 마치 살아 있을 때처럼 가족을 보며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바르도에서 투명한 빛을 알아보지 못한 자에게는 두 번째 세계인 초에니 바르도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는 다섯 번째 날부터 열여덟 번째 날까지 지속된다. 이 단계에서는 생전에 쌓았던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자는 자신이 수의로 갈아입혀지고 음식물이 차려진 광경을 보게 되고 가족들이 우는 소리도 듣는다. 자신이 살아 있다고 외치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사자의 모습도 볼 수 없다.

이 세계에서는 빛 한가운데에서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진리의 빛과 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빛과 소리를 알아채지 못하면 사자는 49일을 사후세계에서 보내야 한다.

삶의 노력, 마지막 순간 나와
선행과 수행의 과보가 드러나
지혜의 빛 속 사후 세계 진입

망자는 여러 색의 빛을 보게된다. 짙은 푸른색이 발하는 빛, 흰색으로 발하는 빛은 진리의 세계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이다. 어두운 회색은 지옥에서 나오는 빛이다. 생전에 타인을 해하려는 마음을 자주 냈다면 했다면 회색빛을 좋아하게 만든다. 어두운 붉은색은 아귀계로부터 나온 빛이다. 강한 탐심을 내었다면 이 빛을 좋아하게 된다. 생전에 시기와 질투를 했다면 어두운 초록색 빛에 이끌린다. 이는 아수라의 세계에서 나오는 빛이다. 어두운 푸른색 빛에 이끌린다면 축생계에 떨어져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열여덟 번째 날부터는 분노의 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머리가 셋인 분노의 신이 몸에서 불을 내뿜으며 사자를 노려보거나, 해골 그릇과 도끼를 들고 있는 신, 인간의 시체와 해골을 든 신이 나타나 사자의 카르마가 기록된 판을 들고 고함을 치며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에서 나타난 환영이다. 만약 이 신들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게 된다.

이후에 망자는 환생의 길을 찾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계인 시드파 바르도에 들어간다. 이 단계는 열아홉 번째 날부터 마흔아홉 번째 날까지 지속된다. 만일 사자가 천상계에 태어나려 하면 천상세계의 환영이, 인간계, 아수라, 축생계, 아귀계, 지옥에 태어나려고 하면 그곳의 환영들이 나타난다. 환영을 따라가면 윤회의 세계에 떨어져 방황하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시드파 바르도 단계에서도 붓다와 진리, 성인들을 명상하면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선신(善神)이 나타나 망자가 생전에 행한 선행을 헤아리고, 동시에 악신(惡神)이 와서 사자의 악행을 하나하나 헤아린다. 만약 거짓말을 하면 카르마의 거울이 진실을 비추며 분노한 죽음의 신은 사자에게 비참한 처벌을 내린다. 그러나 사자의 몸은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혼절할 뿐이다.

정신을 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 여러 색깔의 빛이 주위를 비추게 된다. 어두운 흰색은 천상계에서 오는 빛이고, 어두운 초록색은 아수라계의 빛, 어두운 노란색은 인간계의 빛, 어두운 푸른색은 축생계에서 오는 빛이며, 어두운 붉은색은 아귀계의 빛, 회색은 지옥에서 오는 빛이다. 사자의 몸은 카르마의 힘에 의해 내생에 태어날 곳과 닮은 빛을 띤다.

또한 사자가 태어날 장소의 징조와 특징이 나타난다.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보석으로 치장된 사원이나 저택이 보이고, 아수라계에 태어날 것이라면 울창한 숲이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이 보이며, 축생계에 태어날 운명이면 바위굴과 안개가 나타나고, 아귀계에 태어날 자는 황량한 평원, 동굴, 밀림 사이의 빈터, 폐허가 된 숲이 보인다. 만일 지옥으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음침한 대지, 흑백의 건물, 땅 위에 난 검은 구멍, 검은 길이 나타난다.

짧게 요약했지만 〈티베트 사자의 서〉의 분량은 꽤 많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첫째는 죽음 이후 사자(死者)가 체험하게 될 내용에 대한 안내이며, 둘째는 사자에 대한 인도이다. 사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독서를 위한 일반적인 책이라기보다 49일 동안 종교적 의례를 치르면서 사자를 위해 읽어주는 의례집이라 볼 수 있다.

책에서는 사자가 겪게 될 공포를 묘사하거나 내생에 태어날 장소를 설명하며 '살아 있을 때' 선행을 하거나 수행을 닦거나 진리를 추구한 자는 그것이 환영임을 알아챌 힘이 있다고 거듭해서 말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살아 있을 때'란 표현이다.

모든 일의 결과는 우연이나 행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의 '과정'이 있고 그 흐름이 이어져 결과를 만들어낸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자는 사후에 악처(惡處: 지옥, 아귀, 축생)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며 사후 윤회없는 세계에 이르거나 선처(善處)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전의 선행, 명상, 진리의 탐구의 조건을 제시한다. 따라서 〈티베트 사자의 서〉는 사자를 위한 책이지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는 행위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정토계 경전에서는 생전에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고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일심으로 십념(十念)을 행하면 왕생을 성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임종 때는 극도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이며 그 순간 염불하는 힘은 뼛속 깊이 염불을 생활화했을 때 발현된다.

지독한 고통이 온몸을 지배하는 순간,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는 어렵다. 축구나 마라톤처럼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를 예로 보면, 만약 선수가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뽑아내는 힘은 경기에 '참여하기 전'의 훈련을 통해 나온다. 죽음을 맞이할 때 할 수 있는 생각과 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죽음에 다다르기 '전' 삶에서의 노력과 경험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강렬한 의지를 만들어낸다.

욕망에 이끌리며 살아온 사람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평생동안 노력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같지 않을 것이다. 후회 없는 죽음, 인간다운 죽음, 편안한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을 때 했던 행위'가 뒷받침된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5일(화) 오전 10시 (법문 11시 20분)
◈ 장 소 : 수원 봉녕사
◈ 내 용 : 기도 · 염불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불교상담개발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행 스님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일거수일투족 다 근본에 맡기라

업보가 없다 하심은?

질문 불자로서 인과응보의 이치를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큰스님 법문에서 가끔 업보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 좀 헛갈립니다. 그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업보가 '있다' 고 한다면 업보가 있게 되고 소멸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을 그냥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에서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다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거를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쌓은 습을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킵니까? 참회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또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쌓은 습관과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걸 갖다가 관하고 놓으면 그거는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다.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당신네들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보현신이고 그대로 부처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다. 보현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모든 걸 감싸고 움죽거려 주는 게 보현신이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신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한 생에 빨리 깨쳐서 다 소멸시키자.'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데 소멸이 되면서도 또 공덕이 되는 것은 뭐냐. 거기다 자꾸 입력하면 소멸이 되니까 공덕이 되는 거죠. 업식과 업보와 업력이 다 소멸되니까, 자꾸자꾸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부처님 법이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세상 일체 만물의 부처님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일체 만물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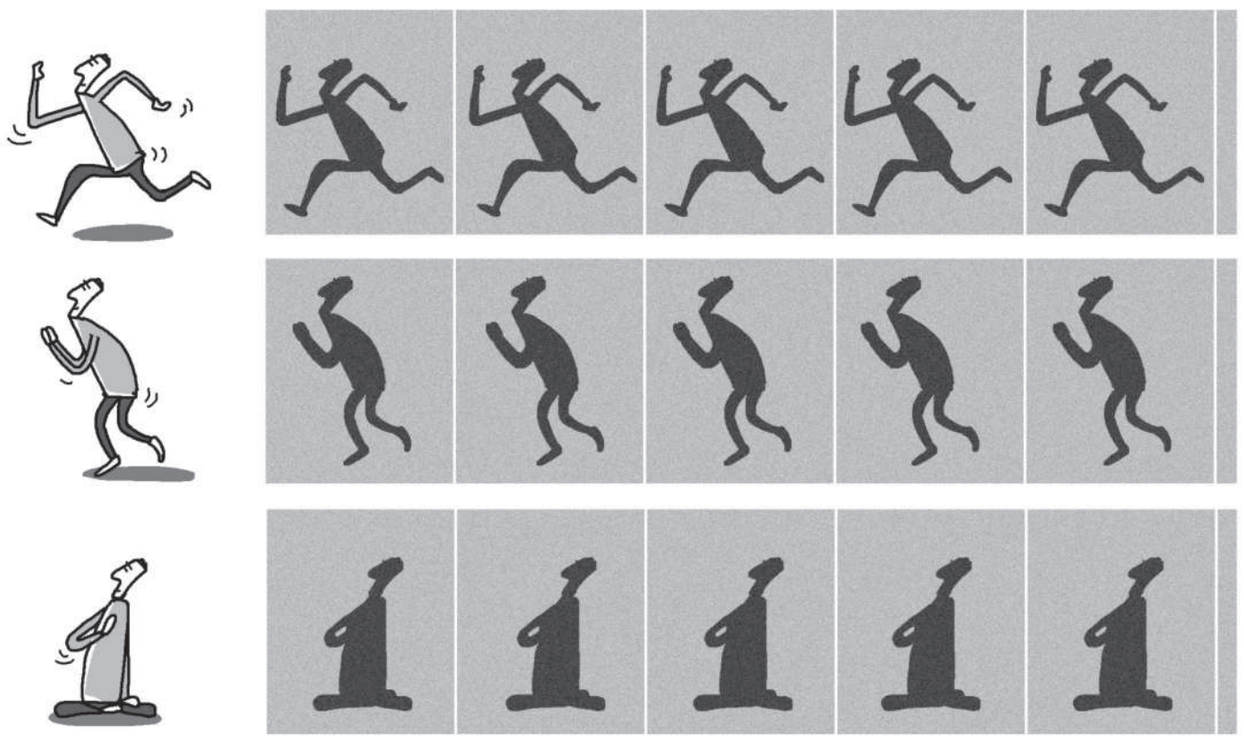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알고 보면 아주 요만큼도 에누리 없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죠. "야호" 하면 자기가 "야호" 한 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한테 들리듯이, 내가 마음을 냈을 때,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대에게도 다 퍼져서 알게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갖다 주니까 받지 않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좀 받지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으냐." 그러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빨리 지혜롭게 공부하시려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점프해서 넘어가도 된다.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첨보해서 원심으로 만들어라." 첨보하면 그거를 다 뛰어넘는 거죠. 원심이란 쉽게 말하자면 공식(共食)이죠. 한데 합쳐진 한 마음을, 의식을 말하는 거죠.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살아나가는 것을 한데 합쳐서 무의 세계나 유의 세계를 대처해 나가는 거를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수상행식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업보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이러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저지를 줄 알기 때문에 또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슬픈 걸 알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잡아먹고 먹히고 이러는 거나 안다면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등 동물입니다. 그렇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 아픔을 겪어 온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거쳐 왔기 때문에 인간은 감수성도 빠르고 상상력도 빠르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 빠른 감수성과 상상력이 그대로 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질하는 그런 감수성 말고요. 도둑질하는 그런 상상력은 말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저거를 대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좀 잘되게 할 수 있나, 이런 거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전체가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마음공부 하는 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물에 가면 바로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들에 가면 지신이 되고, 또 아프다고 하면 약사 보살이 되고, 누가 명이 짧다 하면 바로 칠성 부처로 화하고, 또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으로 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남들처럼 다, 손 달리고 귀 달리고 눈 달리고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못 합니까?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상상력, 감수성으로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뛸 수 있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뛰나 하시겠지만 급해 보세요, 여기서 천 리는 못 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천 리도 마다 안 하고 만 리도 마다 안 하고 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심성, 무의 축지법이죠,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자기가 그냥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다가 남이 죽은 데 가서 영계성과 만났을 때 바로 거기다가 놓고 관하세요. 지금 그거를 다 아는 사람들은 관하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대로 보는 순간이죠.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관하고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하면 그 영가는 바로 화해요. 좋은 마음으로 화해서 천도가 되고 그 아픈 사람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보살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옛 인연을 새로 이어서 가는…" 하고 청법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마음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 가는 거예요.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듯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씨앗을 잘 심어서 더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서 또 심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난 업보가 많아서 이래." 이러면 업보가 많은 것이고 "난 업보고 뭐고 없다. 내가 없는데 뭐가 있으랴. 내가 공했는데 뭐가 있으랴." 하면 업보가 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두 한데 합쳐서 더불어 '함이 없이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함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 함이 없이 사는데 업보가 거기 붙을 리가 없죠. 함이 없이 사는 공한 이 시자일 뿐인데, 공한 모습일 뿐인데 말입니다. 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보가 붙을 리가 없죠. 업력이 주둔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질문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가난한 살림에 근근이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어 절에 못 나가지만 마음공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 A22면으로 계속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사람은 고통을 알기에 부처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 A21면에서 계속

답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도 그냥 사니까 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살고 계시지마는 이게 이 전체를 본다면 너무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갖춰야 될 문제들이요. 알아야 할 문제들이요. 가난해서 밥을 못 먹든, 냄비에다가 숟가락을 몇 개 꼽아 놓고 한 식구가 잘 먹었다 그러고 나서는 집안이든, 잘 차려 놓고 먹고 나서는 집안이든 간에 하여튼 이 공부는 꼭 하셔야만이 되겠죠.

가난하면 가난해서 빨리 해야겠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래서 빨리 해야겠고, 돈이 없다가 좀 생길 만하면 쓸 데가 자꾸 생겨서 없어지니 또 해야겠고, 가정이 불편하니 해야겠고…. 모두가 다 어떤 거든지 이 부처님 법에는 거론이 되는 겁니다. 어느 거는 안 되고 어느 거는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오십 프로밖에는 모르겠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난스럽고 어떻게 권리가 있어지고 어떻게 괴로움이 있어지고 이런 문제에만 끄달렸지 지금 그놈이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거는 모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사시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사시고 편안하면 '과거에 나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고 또 지금 고통스럽고 아주 고난스러우면 '과거에 내가 참 못살았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알면 미래에는 자식들까지 모두 괜찮게 살게 되겠죠. 그건 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발을 떼어 놓고 사는지, 떼어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떼어 놓으면서도 '함이 없이 떼어 놓는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면, 철저하게 그렇게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내놓을 종자 자식들도 다 괜찮게 되실 겁니다, 아마. 모두 학교 때문에도 앨 쓰시고 그러는 게 그것도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게 문제 없는 데가 어딨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깐 문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들 하셔서 집안 가사에 이득이 가고 공덕이 가서 모두 세세생생에 겁나지 않게 사시게끔 하세요.

정신의 병도 마음 내면…

질문 요즘은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의 병도 마음을 내면 좋아질 수 있는지요.

답변 이런 얘기 그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광명사의 마당이 그전에 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 사기 전에 밭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깨를 담뿍 심어 놨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진딧물이 함빡 앉아서 깨를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농사지은 게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벼도 시원치 않아서 일곱 식구가 굶어 죽겠다고 노인네가 그래요. 그래서 관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깻조자리의 진딧물도 전부, 주인공 너만이 없애게 할 수 있어." 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걸 믿구요, 만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까짓 소리 해 줬다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을 앉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나부터라도 아리송해서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순박하기가 한량없지, 아, 그걸 믿고선 그렇게 했더란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요렇게 빨간 점이 있고 풍뎅이같이 생긴 요만큼씩한 거 있죠? 고런 게 그냥 함빡 앉아서 진딧물을 다 빨아 먹더랍니다. 다 빨아 먹고는 그냥 훌렁 날아가더랍니다. 그래서 깻조자리가 되살아나게 되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하구나!' 그래 가지고서 다른 것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해에 농사가 잘돼서 오막살이지만 우리가 보태 준 돈 조금하고 합쳐서 집을 사 가지고 나갔죠. 그러한 일이 있었구요.

>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 보게 하고 듣게 하니
>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라.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몸속의 의식들을 지금 말로 따진다면 입자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주인공을 믿고 관한다면 입자가 나가서 그 속에 자기로 들어가서 다 조절하고,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마음을 그렇게 내면 그렇게 따라 주고, 마음을 저렇게 내면 저렇게 따라 주고, 마음을 엉뚱하게 내면 엉뚱하게 따라 주고 이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 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몸을 이끌어 가고, 내 식구를 이끌어 가고, 내 조상을 이끌어 가고, 내 자식을 이끌어 가고, 세세생생에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 길은 바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으니까, 앞서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현재 또 잘 생각을 해서 주인공에 다 맡기니까 그게 재입력이 되는 겁니다. 재입력이 된다면 바로 팔자 운명이니 뭐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삭쳐 없어지는 거죠. 새로 입력 들어간 것만이 현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세가 좀 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처음에는 그걸로다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서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게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리를 알고 있어야 급하면 쓸 때도 있겠죠.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다면 급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평소에는 못 하고 안 하고 그러다가도 급하면 하게 됩니다. 생각나게 되거든요. 정 급하면 모습 없는 나의 마음, 즉 체 없는 나가 그 속으로 투입이 됩니다. 내가 그랬죠? 어떤 혹성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하시라도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주인공에 집어넣어야만이 됩니다. 본인이 정신이 없어서 못 할 때에는 주변에서라도 자꾸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 그 혼란스러웠던 입력 자체가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감으로써 바뀌게 되니까 마음으로 고장 난 거는 마음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북을 두들기고, 목탁을 치고, 굿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그쪽에선 콧방귀 뀌고 점점 더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악한 귀신이다 할지라도 그 착한 바다와 같은 마음이 얼쓱 껴안고 '야! 너는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싸안아 준다면, 그 마음이 일순간에 녹아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읽어 보니까 너무도 자기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죠. 그래서 진짜 자비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짐승도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 가끔씩 제 행을 돌아보면 죽어서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으로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부처가 되려면 사람이 돼야 한다는데 짐승으로 태어나도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람이 됐다가 짐승의 탈을 쓴 짐승들은 공부합니다. 그거를 어찌 알았느냐 하면, 상원사에 있을 당시에 재를 지내면 시식 밥을 커다란 넓은 돌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과일이라든가 뭐, 떡이라든가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요, 다니면서 다른 뭐를 잡아먹지 않구요, 그냥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그냥 꾸부리고 있구요. 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공부하는 거죠. 그건 사람이 돼 봤던 짐승이라야 짐승이 돼도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사람으로 살아 보지 않은 짐승은 그런 인식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돼 봤던 의식이 돼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듯이…, 우리가 뭐, 부처가 돼 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 생물들이 다 올라오면서 지금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도 하고 알고도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오래된 공부하는 거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늘의 천기를 알고 있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북이나 큰 무슨 상어의 영령이라든가, 아예 밑에 들어가서 채식만 하고, 그냥 앙금만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생물들이 물속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영혼이 그냥 옷을 벗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하늘로 오르죠. 올라서 다시 한 번 돌아서 인생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봐서, 허허, 봐서가 아니라, 내 이 겉껍데기로 봐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러십디다. 허허허….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짐승이 되는 수도 있고, 짐승으로 살다가 아주 그냥 벌레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도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절반이 떨어지고 절반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짐승들 절반이 사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고 돕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립니다. 개로 모습을 타고 나면 개 대접밖에 못 받고, 이 모습, 옷 입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짐승의 옷을 입어 보세요. 짐승 대접밖에는 못 받지.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에 의해서 자기 모습이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짐승들도 지옥에서 사는 짐승들이 많아요. 오간지옥이라고 땅속에서요, 지금 그 국내 밥내도 못 맡고 사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허다하게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옥이 따로 있어서 지금 교도소에서 정치범은 정치범대로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대로 따로 가두어 놓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이 돌아가시거나 사람이 죽으면 쌀을 그냥 고스란히 해 놓기도 하고, 재를 그냥 아주 곱게 쳐서 이렇게 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문으로 나가는 데다 이렇게 해 놓고선 그거를 보죠. 보면은 꼭 발자국이 그렇게 있거든요. 뱀이 된 거는 기다랗게 늘어져 있고, 사람이 된 거는 사람 발자국이 돼 있고, 또 닭이 된 거는 닭 발자국이 돼 있고 그렇게, 곱다란 재 위에 그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돼 보세요. 허, 몇천 번을 자기가 죽어요, 몇천 번 그냥 그냥! 뜨거운 물에 삶겨서 그냥 몇천 번 죽어요. 그러니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려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죠, 하하하. 또 "독사 소굴에 들어가려느냐." 이런 소리는, 독사 소굴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독사가 사는 데에 그 영이 들어가면 독사로다가 화해서 모습이 돼 나오는데, 그러면 독사인 거지 뭐,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독사 소굴에, 그 깊고 깊은 독사 지옥에 들어가려느냐, 화탕지옥에 들어가려느냐, 그냥 뭐, 별소리가 다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어디 지옥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승에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중세계도 있고 하세계도 있고 상세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권리를 찾아야지요, 본래 있는 거니까. 우리들이 본래 권리를 99%를 받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인간으로 나왔으니까요. 전자에 깨친 부처님도 사람이지 뭐,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면 부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마음 안으로다가 찾으면서 그 우주와 삼천대천세계와 직결이 돼 있는 거기를 붙들고 나가는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요행이라기보다 아주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공부하던 그대로 이제 마음의 공덕이 돼서, 그 공덕 가운데서 소생이 된단 얘깁니다.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덕이 되고, 타의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 한마음 속에다 넣고, 한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니까 더불어 같이 돕죠.



대행스님 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창간 28주년 특집에 부쳐

불교언론 '디지털 대전환' 준비하라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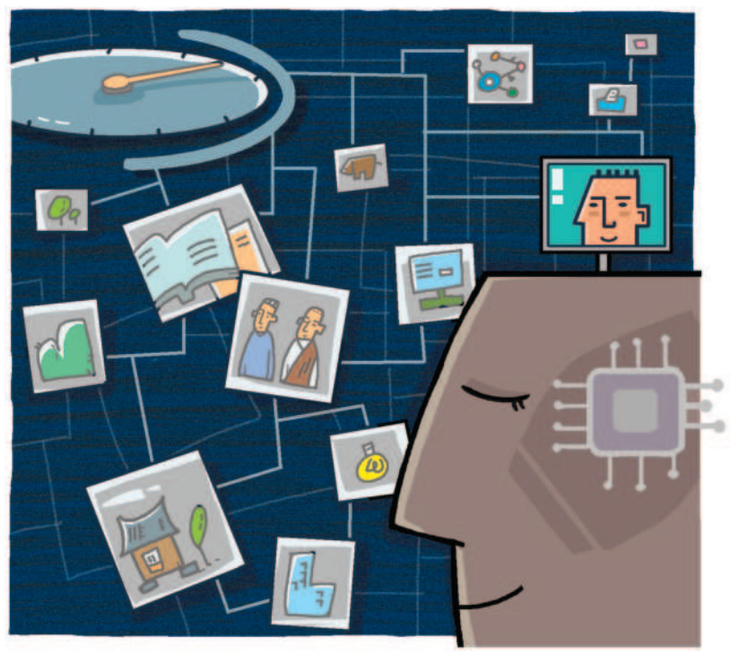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디지털화 나선 뉴욕타임즈 디지털 구독 1000만명 달성
저널리즘 바탕으로 분야별 뉴스 묶어서 구독상품 판매
디지털 유료 구독 시대 준비를… 충성 독자 확보 필요
불교, 디지털 세대위한 콘텐츠 발굴해 독자로 흡수해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을 겪으면서 인류에게 디지털 비대면의 세계는 일상이 됐다. 이제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모든 사물과 인간이 더 촘촘하게 디지털로 연결되고 있다. 산업 전 분야에서 디지털 허리케인이 휘몰아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 안주하는 기업들은 한 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코닥과 노키아의 사례는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언론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디지털 시대 언론 산업은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재편될 것이다. 언론 기업에게 디지털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 언론의 혁신을 얘기할 때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사례는 뉴욕타임스(NYT)이다. 한 때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경쟁자로 거론 되었으나, 뉴욕타임스는 현재 전세계 언론 기업 중에서 혁신 성공 모델로 독보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글로벌 뉴스 미디어의 최강자가 되었는가? 2014년 작성된 '혁신보고서(Innovation Report)'는 힘들고 빠른 경쟁자에 의해 어려워진 뉴욕타임스가 사내외 혁신을 통해 근본적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성찰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편집국과 비즈니스팀 사이의 협력과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로부터 채 10년이 되지 않은 2022년 2월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퍼스트' 전략은 1000만 유료구독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성과와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뉴욕타임스는 언론이 '디지털 퍼스트'에 이어 '구독 퍼스트'로 가야한다는 저널리즘과 비즈니스 측면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의 레비엔 CEO는 지난 9월 투자자의 날 연설에서 뉴욕타임스가 종이신문 중심에서 '디지털 구독'으로의 전환을 선택한 것을 성공의 비결로 꼽았다. 주목할 사실은 그가 디지털 구독이 성공한 배경을 가치 있고 품질 높은 저널리즘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뉴스 정보를 필요로 하며, 새로운 MZ 세대는 디지털 뉴스를 구독하는 데 익숙해 언론의 권위와 신뢰가 비용 지불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구독 모델이 성공한 이면에는 '구독 상품' 확장 전략이 숨어있다. 강력한 저널리즘의 산물인 고품질 '뉴스 상품'을 기본으로 하고, 쿠킹 · 게임 · 소비자 리뷰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묶음 상품'을 제공하여 선택하게 하는 전략이다. 뉴욕타임스는 저널리즘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묶음형 구독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확장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번들 구독자의 이탈률이 단순 뉴스 상품 구독자보다 40% 이상 낮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에 구독 모델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포털이 지배하는 유통 생태계의 문제와 같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다가올 유료 구독 시대를 대비해야 함은 자명하다. 이에 앞서 언론이 추진해야할 일이 충성도 높은 독자층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다. 구글뉴스이니셔티브(Google News Initiative)와 미디어오늘이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Digital Growth Program)'에서 세계 여러 언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방문자 중 20%의 충성 독자가 트래픽의 80%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성 독자의 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듯 독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독자의 재방문 비율을 높여 충성도 높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뉴스레터가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뉴스를 팔려하지 말고 관계와 가치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언론매체가 뉴스레터를 실험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통한 충성 독자 확보 전략은 언론사 조직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어떤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 이를 위한 편집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 기업의 제품 혁신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 언론의 경우 제품, 즉 저널리즘 콘텐츠가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을 때 비즈니스 모델의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제공자가 아닌 소비자로 중심축이 이동한 디지털 경제 체제 속에서 독자의 니즈와 요구를 충족하는 저널리즘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부산의 '산복 빨래방'을 들어보았는가? 산복 빨래방은 부산일보가 지난 5월 9일 부산의 한 산복도로에 위치한 호천마을에 문을 연 무료 빨래방이다. 폐가를 고쳐 세탁기와 건조기 각 2대씩을 설치하는 데 회사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했다. 산 중턱을 굽이굽이 잇는 부산 산복도로는 부산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장소로서 주민들이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털어 놓는 이야기는 피난 시절 이야기부터 고무공장 다니던 이야기, 옛날 동네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부산일보의 지면은 물론 온라인사이트인 부산닷컴, 유튜브, SNS에 공유되는 기사와 콘텐츠는 독자들과 언론으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 전세계 언론 산업계에는 디지털 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지 못하는 언론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디지털 전환기에 불교 언론이 처한 여건은 일반 언론과 다르지 않다. 일반 언론기업 사례에서 보았듯이 불교 언론도 콘텐츠 유료화 시대를 대비하여 구독 모델을 준비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으며, 뉴스레터 등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충성 독자 확보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디지털 세대의 니즈에 맞춘 신규 콘텐츠의 발굴을 포함하여, 이들을 독자층으로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세대 대응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불교 언론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불교 언론이 가야할 길이다.

끝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불교 언론이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 혁신적인 기업의 성공 사례 등과 같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적 변화 및 혁신의 필요성과 위기의식이 전사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경영진의 정확한 의사결정과 시장판단이 적시에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넘어서야 하는 불교 언론에 요구되는 또 다른 과제이다.

社 說

한국불교, 새로운 변화 기대한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향한 기대감이 한국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탈종교화 시대, 불자 인구 감소와 출가자 급감 등 심각한 위기의식이 만연해 있던 불교계가, 진우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진우 스님이 종책공약으로 제시한 수많은 대안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불교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는 것. 1700년 역사 속에서 한국불교를 이어온 본질적인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맞게 변화시켜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갈등과 불신으로 분열된 우리사회에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다짐이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전하는 모습도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마음을 편안하게 이끄는 '명상'의 대중화, 계층별 포교전략 수립 등을 통해 현대사회에 발맞춘 쉽고 친근한 불교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명상힐링센터와 불교통합포교센터가 대표적이다. 권역별 건립될 센터는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중과 밀착한 가운데 불교의 본질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계획이다.

종단의 새로운 변화도 약속했다. 출가자 감소, 전통사찰을 옭죄는 중복규제 등 불교를 위축시키는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청정승가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도 개진한다. 소통과 포교, 교구라는 세가지 종책기조가 모든 공약과 종무행정의 기반이 되어 한국불교 새로운 중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MZ세대 위한 투자 필요

'이 재킷을 사지마세요." 미국 의류브랜드인 '파타고니아'는 환경을 위해 자사옷을 사지 말라고 한다. 튼튼하고 오래 입는 옷을 통해 새로운 옷을 만드는데 드는 자원을 아끼자는 의미다. 파타고니아의 매출 1%는 환경단체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이 파타고니아는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세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이들 세대가 '가치소비'(Meaning Out) 등 자아실현, 가치실현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에서는 MZ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조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불교는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

환경, 건강, 화합 등 MZ세대가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불교가 지닌 사상은 적절하게 맞닿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좋은 사상과 가르침을 지니고서도 이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불자기업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마케팅을 진행해봄직도 하다. 우리 사회 공감과 화합, 자연보호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MZ세대에 호소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교힙합대회, 불교영어스피치대회, 해외사찰 어학연수 및 봉사 활동 등 MZ세대가 원하는 것에 속속 다가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을 통해 수많은 중생들의 고뇌를 들었고, 그들의 어려움에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MZ세대를 위하여 불교계가 단순히 신도를 늘리겠다는 전법 포교 개념이 아닌, 세대 공감과 가치 확대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호국관음선원
• 주 지 : 정 봉 (속명 : 이영복)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제당길 137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재단법인 선학원장 법하

나는 이렇게 붓다가 되었다
- 깨달음의 경 -

『붓다자나 아카데미』는 붓다를 완성한
"깨달음의 경" 전법으로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수행 불사입니다.
정법을 선양하고 붓다의 혜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정 수행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수강과목	붓다자나(깨달음의 경) 수행체계 (141아디까싸라 : 118싸띠, 21보디, 2쌈보디)
수강인원	16 아라한(선착순 마감)
수강대상	만 50세 미만, 비구 · 비구니 (종단 구별 없이 신청 가능)
수강기간	1년(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수 강 료	월 10만원 (농협 843173-51-026991, 예금주:길상암) ※입금시 "보궁 00(법명)"로 하시고 문자 바람.
전법교수	보궁선원장 수완나
수강문의	010-9176-7000
개 강 일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수료혜택	붓다자나 전법인증서 수여
수강장소	해인사 길상암 선인당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645-8(치인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법왕과 각국 승왕단이 주관하는 품수의식

국제 합동 보살계 금강계단 대법회

전계대화상 교수아사리 갈마아사리 칠증사 증명단

불조의 법맥 전수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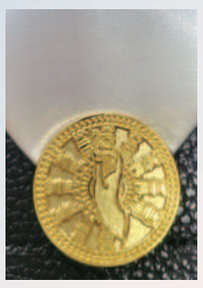
참여예정국가 :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몽골, 중국, 대만, 일본

일시 : 2022년 11월 12일 (토) 1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관 대강당**

상좌부 최고 상가라자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불조의 법맥을 전해받은 수법제자로서 계유과 전통을 이어받아 교수아사리와 갈마아사리를 통하여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수지하고자 합니다 법상좌의 수법제자로 四種鉤印(사종구인)하여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어느 곳 어느 장소에도 부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함께하여 전쟁과 다툼이 없는 세상 고통받는 불우 이웃이 없기를 기원하며 이타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세계 각국 정신적 지도자들이신 법왕과 승왕을 모시고 한국 불교 각종단 큰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요, 중생의 지팡이이신
530여 종단 종정 큰스님, 총무원장 스님
성스러운 법석에 정중히 초대하며 불교 포교에 헌신하신 공로로
스님께 공로훈장을 수여합니다.

– 사전 등록해 주시면 정해진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봉행단 총재 **금당 목탁 대승정** / 봉행추진 위원장 **금강 혜정 대종사** / 조직위원장 **법성, 현담, 대공** / 심사위원장 **법원, 심오, 법륜, 월산, 월암, 법성, 현경, 송운, 법운, 대도, 백련** / 봉사단장 **박정의, 정영숙,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박정하, 모미숙, 송윤서, 김명옥, 김경실, 황은지, 윤점심, 김미숙, 김유자, 이양순, 이재옥, 이은송, 김나영** / 경호처장 **고동욱** / 의전봉행위원장 **김재은, 이정희, 김수경**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제12회 세계 붓다 평화 봉사대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3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습니다.

법하의 주위에 봉사와 헌신으로 승가 재가자 중
자랑스런 살아있는 보살(봉사대통령)을 추천해 주세요.

*본 협회는 어떤 명목이든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봉사 대상 상패와 훈장 기념품 증정

제출서류 : 봉사자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및 봉사내역, 3개월 미만 여권사진 2매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사진이나 사진 첨부가 안된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16-0537-9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14758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214874 (예금주 :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전화 : 02-733-5665 HP : 010-3618-6061

지방시대 앞당기는 콘텐츠…문화 · 예술 · 관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55년 경북 김천서 태어났다. 이철우 지사는 1978년 경북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화령중학교, 신평중학교, 단밀중학교서 수학교사 생활을 했다. 이후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해 2005년 국가정보원 국장 요원으로 근무했다. 2004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행정학 석사) 했으며, 2005.12~2006.6. 제7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2006.7~2008.2. 제8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2008.5~2012.5. 제18대 초선 국회의원에 이어, 2012.5~2016.5. 제19대 재선 국회의원, 2016.5~2018.5. 제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4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에 이어 7월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오른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제32대 경상북도지사(초선/민선 7기)에 당선됐으며, 2022년 7월에는 제33대 경상북도지사(재선/민선 8기)에 성공했다. 2007년에는 홍조근정훈장 수훈을 했다.

리더에게 聽 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망국적인 '수도권病' 해결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화 시대 열겠다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 조성할터

통일신라 5소경 그 해결책 있어

대한민국 일류 국가되는 지름길

경북이 만들어갈 지방시대는?

'문화 · 예술 · 관광'에 지속적 투자

한복 한옥 한식 한글에 디지털 입힌다

천년의 신라왕경도 메타버스로 복원

건축문화 '경북형 천년건축물'로 혁신

대담 · 정리=김주일 편집국장, 사진=노덕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 6일 도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을 통해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의 3대 방향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메타버스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새로운 영토를 창출하는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 특화사업으로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한 경쟁에 직면한 경북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철우 지사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경북지사를 지내고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했다.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경북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 지사는 문경 세계명상마을 건립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전통사찰 974개중 178개로 1위(18.3%)를 차지하는 경북의 행정 수반답게 성파 조계종 종정 예하 등 당대 선지식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本紙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9월 30일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를 직접 만나 지방시대 문화예술정책과 대구경북 신공항 계획, 문경 명상마을 발전방안, 평소의 불교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지사의 바쁜 일정 등으로 인터뷰가 세 차례나 연기돼 가까스로 어렵게 이뤄졌다. 〈편집자 주〉

#경북도정 운영계획은?

△도지사님께서는 망국적인 '수도권 병(病)'을 해결해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 앞에 주어진 가장 큰 시대적 과제라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제안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 병을 치유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병' 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교육 · 문화 · 교통 · 의료 등 수도권과 똑같은 인프라를 만든다면 '수도권병' 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아가고, 50년 넘게 수도권 독주 체제가 지속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가기 어렵죠. 경북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도 지방 살리기는 저의 주요 화두입니다. 그래서 제50회 대한민국 시 · 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저를 회장직에 추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판을 완전하게 바꾸는 혁명적인 방식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등 이 다섯 가지를 동등하게 해줘야 어디에 살든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5소경을 살펴보면 그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 수도인 금성을 비롯해 5소경이라는 작은 서울을 두었습니다. 충청도에는 세종이라는 서울이 있고, 여기에 전라도와 대구 · 경북, 부산 · 경남에 서울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똑같이 해주면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교육, 자치조직권이 필요하죠. 지금의 지방자치 현주소는 '무늬만 자치인 2할 자치' 인 셈이죠.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확대도 필요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경제 · 사회 · 정무수석 참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도지사님께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탈피해 경북의 힘으로 지방 시대를 펼치기 위해 가장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빠르게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과 진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공항을 이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구 · 경북의 경제지형을 변화시키고 국내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세계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건설, 항공 · 드론 전자부품 거점 단지, 중소형항공기 MRO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경제 · 물류 공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항공시장의 주도권 선점이 관건인 만큼 제대로 빨리 짓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경북이 만들어 갈 '지방시대'는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혁신사회'이고, 문화예술의 힘이 경제를 견인하는 '창의사회'이며 아이디어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마다 각자의 색깔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모두가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던데요. 특히 문화예술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문화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기계가 단순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시대입니다. 최고의 부가가치는 문화예술의 힘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문화 · 예술 · 관광' 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지켜온 한복 한옥 한식 한글에 디지털의 옷을 입히고 천년의 신라왕경도 메타버스 콘텐츠로 복원해 세계에 알리도록 할 것이며,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문화도 '경북형 천년건축물' 로 혁신해 대한민국의 미래문화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5
창간특집기획
MZ, 불교를 만나다

B6
창간특집기획
한국불교 매료된 독일 청년 4인방

B7
창간특집기획
애독자가 전하는 축하 메시지

“문경 세계명상마을 경북 도민의 큰 자부심”

‘이철우 경북도지사’ B1면에서 계속

△시급한 과제로는 인구소멸 문제가 두드러졌는데요,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귀농, 귀촌 등으로 전원생활을 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의료 및 문화시설의 부족과 경제적인 실질 혜택 미흡 등으로 예전보다는 관심이 크게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의 유동인구 유치를 위해 다른 경쟁지역보다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경상북도는 귀농 귀촌 1번지로 2021년 통계만 보더라도 전국 1위이고, 특히 30대 이하 귀농가구가 2020년 전년보다 무려 44.1%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소득 농작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해서 농업소득이 높기 때문인데, 연 1억원 이상 버는 가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8천호 이상이고 한 가구당 소득도 경북이 전국 1등입니다. 사과 참외 인삼 등이 주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 도시의 답답한 생활이 고민인 분들은 주저 말고 경북도와 산하 각 시 · 군에 전화주시면 현실적인 도움을 친절히 안내 받으실 것입니다.

#문경 명상마을 발전방향은?

△이 지사님을 비롯해 경북도청의 관심과 지원으로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건립된 걸로 압니다. 특히 올 10월 28~30일까지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 대한민국 청년희망캠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로 치러지시길 바라시는지요?

=우선 이번 대한민국 청년희망 캠프는 청년들의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행사가 되길 발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밝은 희망과 미래를 위해 큰 원력과 공덕으로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해 준 각산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학업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대부분 이 청년시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희망캠프를 통해 명상과 힐링은 물론 마음의 평안까지 얻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잡스’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등 외국 유명인사들도 명상 매니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성찰과 치유의 시간, 지혜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됨과 동시에 긍정의 에너지를 얻어 마음근육이 튼튼해져 끊임없는 경쟁시대에서 당당히 멋진 사회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초석을 쌓기를 희망합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경북도민들의 정신문화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시길 바라시는지요?

=인간은 정신과 혼이 없으면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북은 예로부터 한국정신문화의 원류이자 본류였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화랑’ 선비‘ ’호국‘ 등의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신라의 화랑정신인 세속오계 역시 불교에서 큰 영향을 받았듯이, 불교계의 원력으로 세워진 문경 명상마을은 분명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들의 정신 문화를 선도하는 경북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우리 경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종교와 이념 및 국적을 떠나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국민의 행복을 이끌어 줄 국민선원과 정신문화의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인 ‘수처작주’의 액자를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놓고 항상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

△국민들의 정서와 정신 함양을 위해 불교계서 하는 명상 수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상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일반 병원들이 환자 및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명상시설을 구축해 놓은 걸로 압니다. 불교의 명상 수련 목적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참된 나’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탈종교화 현상으로 종교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교 명상의 사회적 관심은 날로 더 높아져 갑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명상을 통해 인류가 인성을 회복하는 더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울러 한국의 불교명상 수련이 전 세계인을 매료해 ‘K-명상’이라는 새로운 한류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북은 불교 문화 중심지이자 寶庫
전통사찰 974개 중 178개로 1위 차지
세계유산 5개 경북 위치, 3개 불교유물
재임중 불교문화 콘텐츠개발 적극 지원

문경 세계명상마을 정신문화 싱크탱크
10월 28~30일, 청년희망캠프 개최
마음 근육 키워주는 행사 되길 발원

△경상도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불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들도 많고 불자들의 신심도 돈독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선 도지사로 계시면서 도민들중 불자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불교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은 불교문화의 중심지이자 보고(寶庫)이며, 이들은 우리 경북의 소중한 문화관광산업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전국 전통사찰 974개 중 경북에 178개(18.3%)로 1위를 차지합니다. 전국 사찰수 17,100여개(추정) 중, 도내에는 2,200여개가 소재한 것으로 조사돼 있죠. 이 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5개 중 5개가 경북에 있는데, 3개가 불교관련 유물입니다. 특히 한글을 지킨 안동 ‘광흥사’는 불경을 한글로 번역 간행한 ‘간경도감’이 있었던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신심 깊은 불자들도 많습니다. 지역을 넘어 중앙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이 구미 출신이시며, 장정화 (사)대한불교청년회 회장도 예천 출신인걸로 압니다. 이렇듯 우리 경북에는 불교 유물과 불교 인재들이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자아성찰과 중생구제의 목표로 관념적이 아닌 현실생활과 밀접한 철학과 사상이 가득한 종교로 생각합니다. 불교는 그동안 어려운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행복사회 구현에 앞장서왔습니다. 불교에는 여덟 가지 복을 짓는 팔복전(八福田)이 있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도 행복해지는 자타불이의 정신이 깃들어 있죠. 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가 여기 다 나와 있는 듯합니다.

#평소 불교에 대한 생각은?

△경전이나 경구 등 부처님 가르침중에서 평소 마음에 와 닿았던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제록에 나오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이 저의 평생 좌우명이자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뜻을 풀이해 설명하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한다”란 의미이죠. 어느곳을 가든지 모두가 자신이 할탓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에 매진한다면 가는곳마다 리더로 우뚝선다는 말입니다. 저는 수학교사, 국정원, 경북부지사, 3선 국회의원, 도지사 등 여러 직업과 소임을 맡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오로지 신념은 하나였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든지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일념이었죠.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요.

=불교는 1700년 동안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하며, 민족의 정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생구제의 보살행, 국난극복의 호국불교(몽골 침입, 임진왜란 등)에 큰 영향을 주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지만, 가치부재 사회와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무한경쟁, 갑질 사회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의 가치는 분명 재조명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가 이타행으로 ‘배려’를, 화쟁으로 ‘통합과 화합’ 정신을 통해 정신적 선진국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일어서는데도 불교의 큰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는 불교와 전통사찰을 앞으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도지사 재임 기간중 △전통사찰 보존 관리 △불교 역사유적지 보전 △불교문화의 관광자원화 △치유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문화 콘텐츠개발 적극 지원 및 명품화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파 조계종 종정 예하께서 통도사 서운암 방문시에 친필 휘호를 이 지사님께 내려주신걸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글귀였으며, 종정예하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복혜구족(福慧具足)’이란 친필 휘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경북도에 복과 지혜가 차고 넘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가르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휘호를 받고 위민의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또한 전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 사람 냄새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파 종정예하는 올 3월에 취임 하신 후, 4월 문경 세계명상마을 개원기념 간화선 대회 기간을 비롯해, 6월 말 통도사 서운암에 직접 찾아가 예방했으며, 7월 26일에는 성파 종정 예하께서 경북도를 직접 방문해 경북도 공직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성파 종정예하께서는 한국 불교계의 최고 어른이시지만 소박한 분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예술에 대한 조예가 무척 깊으셨습니다. 통도사 서운암 방문 때는 도자대장경과 천연염색 등 예술 작품 감상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방문 때 국학진흥원을 방문하시는 등 불교뿐 아니라 국학과 유학 등에도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탈종교화와 인구 감소로 불교계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인간의 근본성 회복과 불교의 종단 화합을 통해 한국불교를 중흥발전 시키실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3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3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년 전통 인쇄 기술력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362-1199 / 영업부 02)362-6677 / 전산실 02)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온수동)
Tel. 02)2684-3377



창간기획

MZ, 불교를 만나다

MZ, 허투루 여기면 불교서 'Run'친다

글=노덕현 · 임은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욕망곰탱이
24세, MBTI 유형 ESFP(자유로운 영혼)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모태불자다. 할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반야심경 독송을 듣고 자랐고, 향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찐불자. 동아대 재학 중으로 '하심'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산다.

PinkPiggy
22세, MBTI 유형 INFP(중재자)

21학번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오면서 불교동아리 회장이 되며 이른바 불며들었다. 봉은사에서 수계받은 불린이로, 불교교리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불교계 활동을 하고 싶은 열정은 가득이다.

도선KIDS
20세, MBTI 유형 ENFP(재기발랄 활동가)

동국대 1학년인 도선키즈는 도선사에서 연등달기 봉사를 하며 불교에 입문했다. 어린이법회 간사를 맡고 현재는 도선사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 중이다. 사학 전공으로 불교사에 관심이 많은 불교신생아.

동국대비와이
22세, MBTI 유형 INTP(논리적 사색가)

동국대 불교학부 소속이지만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은 아니며, 학교에서 불자가 되었다. 불자이기도 하지만 힙합동아리 회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 할 정도로 불교 외의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다.

MZ세대는 1980~1994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M세대)와 1995~2004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분명히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대두로 정보의 보편화 속에서 자라, 합리성을 주장하고, 자녀들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탈권위, 개인의식, 자기주장이 강하다. 환경과 평등과 공정, 사회정의 등에도 관심이 많다.

불교 내부에서도 MZ세대를 대하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 불자 선배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적 성장에 따른 풍요로움을 맛본 세대다. 사회 발전기에 많은 고생도 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도 따라오던 시대를 살았다. 이제는 다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인 MZ세대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지가 극과 극으로 나뉘며, 일부 MZ는 부모들보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이들을 위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때다.

한국갤럽이 2021년 조사한 종교인(종교를 믿는 이) 비율을 보더라도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의 종교인 비율은 2004년 45%에서 2014년 31%, 2021년 22%로 급감했다.

다행이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의 호감도는 높은 편이다. 불교에 대한 호감을 표한 이들은 20%로 가톨릭 13%, 개신교 6%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웃종교에 비해서란 전제조건에서 보듯이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를 답한 이들이 61%로 늘었다. 1인가구의 증가와 여가 스포츠 등 종교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체종교의 증가, 종교커뮤니티를 대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발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높은 종교호감도만 바라보고 안주할 수 있을까.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후 첫 행보로 MZ세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만큼 불교계가 바라보는 MZ세대에 대한 시선은 간절하다. 미래불교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MZ세대가 생각하는 불교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았다.

Q MZ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거지?

욕망곰탱이: 불교는 생활에서 접점이 없어. 템플스테이라도 해야 사찰에 간 것 같고, 불교법회에 참여해야만 불자인 것같은 느낌이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불교가 없다보니 나와는 상관없는 종교란 이미지가 커.

핑크피기: 학교들어가기 전에는 종교가 없었는데, 무교일때는 불교는 나와는 동떨어진 집단, 나와 상관없는 스님들이 계신 곳이란 생각이었어.

동국대비와이: 객관적으로 보면 불교 이미지는 '올드' 해. 교회는 지나다닐 때 군데 군데 보이는데, 사찰은 산중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도선키즈: 나도 동국대 입학 전에는 종교가 없었어. 부처님오신날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비빔밥 먹는 수준이었는데, 동국대에서 불교 관련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됐어.

욕망곰탱이: 이야기 듣다보니 MZ가 불교를 접하는 과정 중에 종립학교의 존재감이 크네? 종립학교가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Q 오늘 모인 친구들은 그래도 불자들이잖아? '불자'라고 다들 드러내지 않는데, 불자라고 하면 신기해 하지 않아?

욕망곰탱이: 다들 '스님 될거냐' 고 물어보지. 친구들 모임가면 나한테 'OO 스님 오셨다' 고 놀려. 종교로서, 재가자로서 불자인 경우도 많은데, 워낙에 다들 안드러내다보니 그게 더 커진 것 같아.

핑크피기: 나 같은 경우에는 수계받고 나서 불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또래들은 수계와 법명이라는 것도 아예 몰라. 세례와 세례명은 대부분 알아도 말이지.

욕망곰탱이: 맞아. 세례나 영세는 알아도 수계는 모르더라고. 수계식 참여했다고 하니 그게 머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군에서 포교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 군대서 수계, 영세, 세례 다 받았는데, 각 종교를 기본은 알게되는 계기였어.

Q 대학 생활하면서 종교가 친우관계에서 장벽이 되진 않아? 가령 소개팅서, 이상형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교회'에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면?

욕망곰탱이: 종교관이 다른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 부담을 느낄거 같아.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기독교인이었어. 싸우기 싫으니 결국 개종하시더라고. 많이 안타까웠어.

B4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동은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서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오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 사서국장 석성오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현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 총무 대각심(김경숙) / 임원 혜명심(박현숙) / 임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 부원장 혜정(이영숙) / 국장 불심화(정형숙) / 무용 무애심(박순애) / 연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울산원장 법광 / 종무원장 성종 / 법사원장 목암
홍보부장 원명 / 부산부장 혜성 / 경기부장 자운 / 전남부장 혜명
구미부장 혜진 / 대구부장 혜련 / 청주부장 혜원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사업국장 종현 / 포교국장 덕운 / 종무국장 도연 / 서울국장 명덕
포교국장 청운 / 통영국장 덕인 / 포교국장 혜림 / 봉화국장 혜정 / 화순국장 보정
삼척국장 정허 / 영천국장 원명 / 통역국장 정연 / 포교국장 혜경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



"거대 담론 보다 일상에 더 관심을"

'MZ, 불교를 만나다'

B3면에서 계속

핑크피기: 절오빠에 대해서 극호감을 지니고 있어. 요즘 애들은 등산도 좋아해. 산에 가면 사찰들이 있잖아? 같이 사찰 찾아다니는 재미를 느끼는거지. 불교동아리에서 만난 법우들과 대화해보면 '순수함' 같은 느낌을 받아. 사찰 다니면서 정신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못봤어. 마음이 단단한거지.

Q 학교 다닐 때 학비 부족하지 않아? 불교계에서 장학금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

도선키즈: 나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학비와 용돈을 벌어. 스님들이 그 모습을 가엽게 여기셨는지 동국대 불교청년 육성 장학금을 주시고 계셔. 수요일에 한 번씩 정각원에서 법회를 하면 한학기에 100만원 가량이 나와.

욕망곰탱이: 불교계에서 장학금이 군데군데 있어. 그런데 많은 불자학생들이 그걸 모르는게 문제야. 조계종 포교원 장학금, 진흥원 장학금, 각 사찰에서 주는 장학금, 대불련 선배들이 주는 장학금 등등 많은데, 개별로 흩어져 있다보니 결국 본인이 찾아서 신청하는 수 밖에 없어. 요즘 MZ들은 취업이 중요하거든. 장학생이 되는게 금전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 불교계에서 이 부분을 공략했으면 해.

Q 스펙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봉사도 하고,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해서 기록으로 남기잖아?

욕망곰탱이: 나는 개인적으로 불교계에도 해외봉사나 연수 프로그램이 늘었으면 좋겠어. 기독교는 '선교'라는 명목하에 여러가지 해외 프로그램이 있거든. 참 부러웠어. 대만이나 인도 등에 학우들이랑 가면서 불심도 높이고 일종의 스펙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핑크피기: 해외봉사 기회가 대학에도 있는데 문제는 성적 순으로 자른다는거야. 공부에 매진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불교동아리 같은 활동은 소원해지는 것 같아. 불교계에서 해외봉사 등의 기회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 불교동아리 활동도 인기끌지 않을까.

욕망곰탱이: 불교계는 해외에도 사찰들이 있잖아? 방학때마다 단기 어학연수 및 봉사활동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Q MZ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건 멀까?

동국대비와이: 취업이지.

핑크피기: 인턴도 많이 하고 다들 바쁘게는 사는데, 몸이 힘든 건 싫어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어.

욕망곰탱이: 자기 기준에서 몸이 힘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표현을 많이해. '내가 굳이 이걸 해야해?' 라는 거지. 시도도 안하고.

핑크피기: '런(run) 친다' 고 그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는거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힘들면 그만둬.

도선키즈: 편의점에서 일한지 6개월가량됐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3번이나 바뀌었어. 우리 편의점에 포스기가 2대 있거든. 그만큼 손님이 많다는건데, 자기 몸이 힘든 것은 싫어해.

동국대비와이: '욜로(YOLO)' 라는게 보편적인 정서야. 예전에는 그래도 십수년 열심히 일하면 가족 부양이나 자산 증식 등 일종의 성과가 예상이 됐잖아? 지금은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 일거 같은 생각이 커. 아르바이트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 가령 힙합하는데 마이크가 필요해서 그거 살만큼 딱 일하는거야. 해외여행 가고 싶으니 여행비 마련 위해서 한다던지. 좋게 말해서는 '안분지족' 같아.

욕망곰탱이: 소비심리도 다르다고 봐. 1천만원을 모으면, 아마 선배들은 이걸 투자하거나 저축할거야. 우리는 아예 뭘 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경우가 많아서 모으면 쓰는거지. 그래도 나는 '남들 쓸 때 아끼자, 그래야 한발 더 나갈 수 있다' 는 생각은 있어.

Q MZ 중에 불자들은 좀 다른가?

핑크피기: 그래도 사람간의 인연의 소중함은 알아. 얕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는 생각이지. 그런면에서 불교동아리에서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결국 모든게 사람 간의 인연이잖아?

Q 불교계에서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이나 뉴미디어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잖아? 찾아본 적 있니?

핑크피기: 연희율동단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율동단원으로 참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상을 찾게 됐어. 문제는 조회수가 너무 안나와서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하고, 현타가 오더라고.

욕망곰탱이: 대불련도 유튜브가 있는데 마찬가지야...오히려 나이 많으신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이나 기도문 영상은 조회수가 잘나오는데.

Q 틱톡이나 쇼츠 같은 숏폼 플랫폼을 많이 하잖아? 인스타그램 같은걸 활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핑크피기: 이른바 '물타기' 가 되어야 해. 핫한 이슈로 끌어올려야 확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

동국대비와이: 개인적으로 '스님도 고기먹나?' 같은 다소 민망한 주제로 '어그로' 를 끄는게 중요한 듯해. 모르면 아예 오해하잖아. 불교를 접해보지 않은 이들은 불교 믿으면 연애하면 안되는 줄 알아. 스님들은 풀만 먹고 재산 없고 말이지.

욕망곰탱이: 불자셀럽들이 스님들과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미디어 노출이 많은 MZ에게는 셀럽들이 친불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와 닿는 것 같아. 총무원장 스님이 유명한 유튜버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던지, 어른 스님들이 셀럽들과 차담한다던지 이런게 일종의 불교이미지를 좀 더 젊게 바꿔갈 것 같아.

핑크피기: MZ한테는 템플스테이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인스타 사진찍기 좋은 사찰 명소 같은 걸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서 알리는거지. 물론 사진만 찍으려고 사찰에 가는건 문제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사찰에 오면 그중에 불자도 되고 하는거 아닐까.

Q 최근 MZ는 타투도 많이 하잖아?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예전보다 인식이 많이 바뀐거 같아. 나폴리 김민재 선수의 경우 가슴에는 카르페디엠, 등에는 예수님 문신을 아주 크게 했거든. 기독교에서는 신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타투가 활용되는데, 불교에서는 좀 아닌거 같아.

욕망곰탱이: MZ에서는 자기표현의 수단이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 합법화를 외치며 타투스티커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잖아? 그게 MZ 인식을 나타낸 거라고 봐. 다만 불교타투는 예전에 조폭들이 관세음보살 등의 문신을 많이 하면서 마치 타투로 부처님을 새기면 조폭 같아 보이는 이미지가 생긴게 안타까워.

핑크피기: 불자가 아닌데도 연꽃 타투를 한 친구도 있어. 취직 전에 합장하고 명상하는 자세를 타투를 하고 싶어서 도안까지 다 해놨어. 곧 하려고.

Q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취임 후 첫 행보로 MZ와의 간담회를 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불교계에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

욕망곰탱이: 색달랐어. 지위가 높은 스님이 우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자체가 놀라웠어.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

동국대비와이: 현실적이긴 한데 결국엔 돈을 써야 해. 알바들도 많이 하는데, 사찰서 알바를 해도 시급이 높다면 아마무교여도 서로 하려고 할거야. 냉정하지만 MZ는 그만큼 현실적인 부분에 민감해 불교코딩대회 같이 스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

Q 오늘 모인 이들이 불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MZ가 말하는 이른바 '힙(Hip)'한 불교는 무엇이 있을까?

욕망곰탱이: '달마야 놀자' 영화보면 '반야심경 리믹스' 노래가 나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신박하거든. 외부에서 보면 힙합과 국악의 합주도 굉장히 호평받고 있어. 사찰에서도 가끔은 리믹스로 불교음악 같은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계종 포교원에서 최근 부처님 일대기를 레고 스톱무비로 제작했어.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봐.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도선키즈: 도선사에 매주 가는데, 한번은 법문을 사찰 전체 스피커로 틀어놨어. '주지스님이 래퍼였으면 쇼미더머니 1등 했겠다' 생각했어. 스님들이 재미있게 염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핑크피기: 최근에 비구니 스님들과 친해져서 스님과 함께 한강걷기를 하고 있어. '물멍' 이라고 해서 한강보면서 힐링을 하거든. 스님이랑 하니 또 다른 경험이더라고. 그런데 스님들은 보통 아침 일찍 포행을 하시잖아? 러닝크루, 물멍크루 등을 조직해서 스님과 함께 한강걷기나 물멍을 하면 좋을거 같아.

동국대비와이: 아는 형이 이른바 동뽕에 취해서 '동국대' 라는 힙합곡을 만들었어. 곡안에 부처님에 대한 리스펙이 담겨있지. 반야심경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고. 이런 곡들이 좀 더 나오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욕망곰탱이: 자유롭게 풀어주고, 지원해주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청년불자들 많이 생각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해.

MZ로 느끼는건 사찰에 청년불자들이 오더라도 어리니까 이것저것 잡일 시키지 말고,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대해줬으면 좋겠어. 사찰에서 작은 경험 하나가 나중에 씨앗이 되고 커지니까 말이야.



MZ, Hip한 불교에 끌린다

'마음 수행' 상징 불교 타투…현대적 감성에 '힙'하기까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년 전 수계법회에 연비 대신 금강저 모양 타투스티커를 붙였어요. 타투스티커를 볼 때마다 초발심을 다지는 느낌이랄까? 타투로 영원히 간직하며 마음에 되새겨야 겠다 마음먹었죠."

대학생 킹토끼(22) 씨가 손목에 새겨진 금강저 타투(Tatoo)를 보이며 웃으며 말했다. 킹토끼 씨는 "금강저 타투를 새긴 후 틈틈이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며 "마음 수행과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타투인구 300만 명, 반영구 시술을 받은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타투는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때 조폭의 상징이었던 '문신'은 삶의 신조부터 인생에서 찾은 진리, 종교의 의미 등 자신만의 경험과 가치관이 담겨지면서 이제 '타투'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돼 우리 사회에 녹아들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본래 가진 고유한 상징성에 현대적 감성이 더해지면서 불교 의미가 담긴 타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교 타투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가수 이효리 씨의 왼쪽 팔 안쪽에 새겨진 인드라망 도안 타투가 화제를 모으면서부터다. '생명평화무늬'로 불리는 이 타투는 특히 채식과 동물보호 등 생태계 이슈에 관심이 많은 이효리 씨의 가치관뿐 아니라 종교관이 표현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불교가 가진 고유한 상징성이 가치관과 감성을 자극, 타투로 표현하는 데 망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불교 타투의 장점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최근 딸을 얻은 윌리엄(29) 씨는 딸을 위해 자신의 팔에 연꽃 타투를 했다. 윌리엄 씨는 "연꽃이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딸이 그렇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 연꽃을 선택했다"면서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가 가진 고유한 상징성이 감성을 자극, 타투를 하는데 큰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슴에 '옴' 타투를 새긴 제리(28)씨는 "타투는 평생 지녀야 할 것이기에, 평소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많이 실천하고 잊지 않기 위해 후회하지 않을 문양을 골랐다"면서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이야기와 취향을 담은 고유한 각인으로 다른 친구들의 타투에 비해 '힙'해 보이기도 해 만족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 불교 타투이스트는 "불교 이미지 타투를 시술하며 불교가 내 삶에 스며들었다"면서 "불교 상징 이미지 타투는 대중문화와 패션계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식하는 MZ세대…사찰음식 관심도 'UP'



치맥과 삼겹살 회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일상은 이제 지났다. 건강과 환경을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으로 윤리적 소비와 비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른 가치 소비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KB국민카드가 최근 3년 간 비건 음식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비건 음식점 수는 3년 전인 2019년 8월에 비해 391% 늘어났다. 매출액도 272% 증가했다. 이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비건 음식점을 자주 방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여성의 소비는 무려 930% 폭증해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MZ세대 사이에서 채식 트렌드가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한국고유의 비건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찰음식 또한 최신 유행처럼 소비되고 있다. 사찰음식점이 20·30 세대들이 붐비는 일명 '핫플레이스'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MZ세대들에게 사찰음식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사찰음식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단순한 채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채식은 발우공양 정신을 현대에 맞게 대중화한 삶의 방식이기에 불교 그 자체이지만,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불교는 사라지고 채식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찰음식 전문가는 "사찰음식을 통해 채식의 가치뿐 아니라 본연의 의미도 접할 수 있게 된다면 불교를 좀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윤리, 생태계보호, 윤리적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비건채식을 실천하는 20·30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두, 훌륭한 잠재적 불자들을 불교계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MZ
What do you Like?

갓생살기, '걷기' '멍때리기' 등 유행

MZ세대 삶의 트렌드는 변화한다. 초기에 인생은 한번 뿐이라는 '욜로(오늘살이)' 부터 '소확행(소소한 행복)', '플렉스(과시성 소비)' 등은 옛말이다. 이제 MZ세대가 주목하는 라이프스타일은 '갓생살기'(GOD+生살기)다.

갓생살기는 하루하루 소박한 목표를 실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고정관념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자기만족의 시간이다.

MZ세대는 미디어 등에서 과소비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SNS에서 보이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MZ세대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하루에 한푼도 쓰지 않는 '무(無)지출 챌린지'가 이른바 갓생살기의 일부로 유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건강도 챙길수 있는 활동이다. 하루에 몇보 이상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산길 등 사찰 주변 둘레길을 찾게 된다.

MZ세대의 핫플레이스인 '한강'도 하나의 공간이다. 한강 걷기 후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른바 '멍'을 때리는 것도 하나의 힐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가치가 있다면 다소 힘들어도 참여하는 MZ세대들이기에, 건강과 함께 지구환경을 함께 지키는 '플로깅(쓰레기 주우며 걷기)'도 참여율이 높다.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스쿼트 운동과 자세가 비슷하다는데서 운동 효과도 상당하다.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수행의 일환으로 걷기명상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친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많고, 가치소비를 하는 MZ세대에게 사회기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발자국으로 남긴 '인증샷' 보단 '이너피스'의 시간



"등산로와 이어진 인적 드문 산길이거나 비포장로, 오솔길을 두 발로 걸어가며 자의 반, 타의 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여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명상과 휴식은 덤으로 얹어졌죠."

최근 템플스테이를 다녀온 새내기 직장인 한수진 씨(24)가 템플스테이를 한마디로 '이너피스(Inner Peace)'라고 표현했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뜻이다.

MZ세대들이 느끼는 삶의 질 저하, 스트레스 누적, 여가문화의 부재는 진정성 있는 정신문화 향유를 더욱 갈구하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MZ세대에게 독특하면서 창의적인 관광의 형태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통사찰에 체류하면서 스님의 일상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종교 및 교육, 문화적 불교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서 종교적 체험도 덤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나 삶의 질에 민감한 MZ세대에게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넘어 최대한의 휴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여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하듯 숙소와 여행지를 고르고 먹거리를 찾아다니며 '인증샷'을 남기는 여행,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며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파한 순간, 좀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행을 떠올린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산중은 MZ세대의 새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돌을 맞아, 올해 봄부터 진행한 2002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와 5060부모세대와 MZ세대인 20·30대 자녀들이 함께 템플스테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라떼 템플스테이' 등이 인기리에 마감된 것만 봐도 MZ세대들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응을 실감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도 올 여름 김천 직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산내암자를 순례하고 계곡에서 한여름 망중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템플스테이 한 관계자는 "템플스테이는 불편함은 있지만 부끄러움은 없는 여행"이라며 "일상에서 떨어진 공간에서 건강한 식단과 자연명상을 통한 심신 수련, 최소한의 쓰레기와 탄소 발자국을 남기며 최대한의 휴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여행으로 MZ세대들이 템플스테이를 꼽는 이유"라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중
5개월 완성 기초 핵심 교리반
■ 학장 평천 범혜 스님 직강(대강백 월운 스님 전강제자)
■ 불교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초기반 확립
■ 주1회 매주 화요일 저녁7~9시
■ 접수마감 : 10월 18일(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대행 선사 가르침 만나 행복 찾았죠”

한국불교 매료된 독일 청년 4인방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청춘은 도전과 배움의 시기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몰입하고 배우는 것은 20대 청춘이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불교를 접하고, 이내 매료돼 한국어와 한국문화까지 배우는 독일 20대 청춘들이 있다. 바로 모리츠 에플레(Moritz Epple, 28), 한나 에플레(Hannah Epple, 26), 야콥 슈타징어(Jacob Starzinger, 25), 이승호(26) 씨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한국불교, 정확하게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다. 독일 4인방을 만난 곳도 9월 23~25일 열린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에서였다.

함께 앉은 자리, 이내 불교와의 인연이 궁금했다. 이들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부모를 통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 남매인 모리츠, 한나 에플레는 아버지인 한스욕 에플레를 따라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을 다니게 됐다.

“제가 5살, 동생이 3살 때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어느 날 조그마한 가게에서 만난 사람에게 한국 사찰인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내 아버지는 선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당신의 짐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한국불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저도 선원은 진짜 집 같은 곳이자 항상 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모리츠)**

야콥 슈타징어는 어머니의 불교 인연을 따라서 불자가 됐다. “어머니 친구 분이 선원 신도셨습니다. 그 분은 선원에서 여러가지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제 어머니가 불교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선원에 나올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 다니면서 불자가 됐고, 저 역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야콥)**

독일 교포 2세인 이승훈 씨 역시 어머니와 함께 선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

“저는 모태불자입니다. 제가 1996년생인데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이 그해에 개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베를린에 살았는데 560km 떨어진 선원까지 2주마다 찾아서 신행생활을 했습니다.”**(이승호)**

관법 수행, 나를 바꾸다

가족을 따라 믿기 시작한 불교, 이들에게는 어떤 매력으로 다가왔을까. 이들은 모두 대행 선사가 주창한 ‘주인공 관법’을 꼽았다.

“대행 선사가 가르쳐주신 관법 수행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모리츠는 “선사의 가르침과 수행은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지만, 과학은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내면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독일 청년 4인방이 현대불교신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모리츠 에플레, 야콥 슈타징어, 한나 에플레, 이승호 씨.

대행 선사 가르침 배우기 위해
한국어 익혀…교환학생 오기도
사물놀이 5년 배워 수준급 실력
9월 28일 안양예술회관서 공연
주위에 ‘주인공 관법’ 홍포 나서
“20대는 참나를 찾아가는 여정”


사물놀이 공연 준비 중인 모리츠(사진 왼쪽), 한나(사진 가운데), 야콥(사진 오른쪽)

한나 에플레는 “언어적 표현으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수행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행 선사의 수많은 법문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일러주신다”고 밝혔다.

이승호 씨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나 불교가 가진 사상, 철학 등은 높은 차원의 진리”라며 “주인공 관법은 내 생활에서 항상 쓸 수 있는 지침과도 같다. 대행 선사께서는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내게 주셨다”고 술회했다.

야콥 슈타징어 역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실생활과 밀접함을 매력으로 꼽았다. 그는 “대행 선사의 법문은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면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대행 선사께서는 법문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론이 아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법문이라는 게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배움과 실천에 ‘진심’입니다

이들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데 ‘진심’이다. 평소 수행 · 신행생활도 진지하고 착실하다. 주말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을 찾아 운력하고, 선원을 찾는 1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일상에서 수행하고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베를린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한나는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을 자주 찾을 수가 없었다. 대신 비불자인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들에게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했다.

“대행 선사 법문 중 회사가 부도날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선사께서는 ‘무조건 잘돼’라는 마음을 입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학사논문을 준비하며 접했은데, 친구 역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포스트잇에 ‘내 마음에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주인공에게 잘 될거야라고 말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겨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친구도 제 메모를 보고 주인공 관법을 배웠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죠. 최근에는 스트리밍으로 마음공부하는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한나)**

오빠 모리츠는 평소 관법 노트를 작성하며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한다. “매일매일 관법 노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수행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서 수행 기록을 합치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매일 수행하고 스스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모리츠)**

이승호 씨도 착실한 신행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금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100km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데 매주 가려고 노력합니다. 선원에서 운력하며 제 마음을 리셋시키고, 관법 수행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승호)**

‘ENJOY’ 한국전통문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배우며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이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실제 모리츠의 경우 수준급의 한국어를 구사하며, 야콥도 한국어로 일상대화가 가능하다. 둘 다 대행 선사의 법문을 원전으로 보고 듣고 읽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다. 독일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야콥은 지난 7월부터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대행 선사의 법문을 원전 그대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선사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근처에서 자취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원을 자주 찾아와서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생활이 즐겁습니다.”**(야콥)**

모리츠, 한나, 야콥은 색다른 특기가 있다. 바로 한국 전통연희인 사물놀이. 독일에서 5년 동안 배워 수준급의 연주가 가능하다. 이들은 9월 28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린 ‘독일&한국 클래식 in 콘서트 사물놀이’ 무대에도 섰다. 사물놀이에서 모리츠는 꽹과리와 징을, 한나는 장구를, 야콥은 북을 담당했다. 이날 공연에서 이들은 문굿&비나리, 삼도사물놀이, 줄타기 등을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과 인연이 된 전통연희 전문가 김주완 선생님을 통해 2017년부터 사물놀이를 배웠습니다. 약 5년이 좀 넘었네요. 선생님은 하이레벨의 수업을 저희에게 제공해주셨어요. 이번 공연을 위해 독일에서도 틈틈이 연습했고, 6월부터는 한국에 와서 공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모리츠, 한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 말미, 4명의 독일 청년들의 꿈과 목표가 궁금했다. 이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어 물리학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대학에 입학해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모리츠)**

“대행 선사께서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려면 마음의 근원(베이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베이스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제 20대는 저를 찾는 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야콥)**

“저도 야콥과 비슷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교육학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하는 게 제 희망이자 목표입니다.”**(한나)**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게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행 선사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행 선사께 효도할 겁니다. 선사께 대한 효도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법 수행도 열심히 하고, 가르침도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이승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30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29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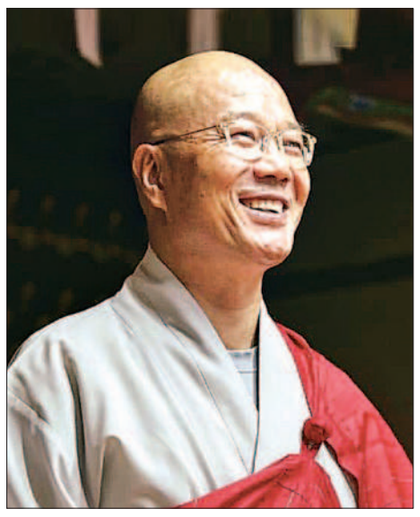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수행자는 하루살이로 산다. 지나간 일과 다가올 결과에 기대도 우려도 없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애독자가 전하는 메시지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8주년을 맞았다. 1994년 창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신문을 구독한 애독자에게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평가와 추억들을 들어봤다.

정리=박재완 · 신성민 기자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 보국사 주지

불안한 인류 미래에 해답 제시해 주길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벌써 28주년이 되었네요. 현대불교신문 창간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의 시대가 아니었던 시절이라 모든 정보나 지식을 책이나 종이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얻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상에서 볼 때, 당시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은 단순히 교계 언론사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 불자들에게는 좀 더 새롭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고, 잠재적 불자들에게는 불법 홍포의 새로운 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에는 새로운 시도의 캠페인과 행사 그리고 새롭고 알찬 기획의 지면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밝은 이야기와 소식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런 지면들이 불자들의 내면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는 불교홍포로 이어져 불교의 외연이 넓어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인류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많이 아쉬운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우리 인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너의 괴로움의 나의 괴로움이라는 생각으로, 안으로 안으로 성찰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그 길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신문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정신' 지켜가는 정론지로 거듭나야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년 뒤에는 서른 살로 완연한 성년이 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와 현대불교신문과의 인연도 20년을 훌쩍 넘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초창기에 '스님 이야기'라는 연재물이 있었고, 몇 달 동안 해당 연재에 원고를 쓴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6개월, 3~4년 전에 2년 정도 연재원고를 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저는 정말 '좋은 인연'입니다.

1994년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짧은 시간에 3대 불교신문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한국불교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의 법문과 활동을 부각함으로써 비구니 · 여성 불자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불교 최초 포털 '부다피아'와 속보 형식 도입한 인터넷 불교뉴스 사이트 '붓다뉴스'는 시대를 선도하는 미디어 포교 매체였습니다.

실제 현대불교신문은 비구 · 비구니, 승가 · 재가에 관련된 기사가 평등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만이 아닌 한국불교의 여러 종파의 소식도 전해줘 다양한 각도로 불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세계 불교의 다채로운 면면들을 조명하는 지면도 좋았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언론이 지켜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은 하는 '기자 정신'입니다. 정론직필을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무언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십시오.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성태용

청명문화재단 이사장

다양한 言路 제공 강점 문제 제기 역량 강화를

현대불교신문은 대행 선사께서 원력을 내시어 창간됐고, 당시 비구니스님이 만든 첫 불교언론이라서 인구에 많이 회자됐습니다. 출발부터 참신하고 신선했던 만큼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창간 직후 논설위원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며 논설위원 위촉에 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불교계에 하고 싶은 고언(苦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에서는 꼭 주제를 정해서 글을 청탁했습니다. 그 청탁 주제들이 대부분 불교계 현안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 할 이야기겠지만, 이를 지적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언로(言路)를 현대불교신문이 꾸준히 제공해왔다는 점은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현대불교신문은 재가불자 운동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선우'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현대불교신문이 기사를 통해 재가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줘 큰 힘이 됐습니다.

최근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불교 언론들을 보며 아쉬운 점은 불교 내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흐릿해졌다는 것입니다. 불법홍포와 호교적 시선도 중요하지만, 내부 문제에 대한 비판도 그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공자는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했습니다. '이립'은 모든 기초를 세운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립을 앞둔 현대불교신문이 기초를 잘 세워 불교 대표 정론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항상 초심 상기하며 시대 선도 언론 되길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욱이 전임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창간 축하 메시지에 임하는 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새롭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창간하신 대행 선사께서는 창간의 지표로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현대화, 불교의 세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이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28년간 대행 선사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계 소식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맞는 수행법과 지구를 위한 환경문제 등 전반적인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대행 선사의 유지를 받들며,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행 선사께서 일구신 한마음선원은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와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두 차례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의 승단이 모색해야 할 의제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전 인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세계 석학들이 한 지리에 모여 지혜를 모았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두 차례의 국제학술대회를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역할과 창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탈종교화 등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예전에 비해 대중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교계 언론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모두는 하나의 마음으로 창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시대에 필요한 문서포교에 계속 정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박종수

前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김영숙

현대불교신문 초대 기획위원

불교 생활 · 현대 ·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의 근본 자리

저와 현대불교신문의 인연은 대행 선사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초대 사장인 김광삼 씨를 제가 대행 선사를 만나게 했는데, 처음에는 비구니라서 인사하기를 저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김광삼 씨에게 "당신은 어머니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어머니 같은 스승에게 왜 절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나무랐습니다. 그 후 김광삼 씨는 현대불교신문 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저 역시 대행 선사께서 창간하신 신문이기에 더욱 애정하게 됐습니다. 창간 직후 제가 10여 명 정도의 신도를 모아 '심단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구독 배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신문을 포장해 전국 방방 곳곳의 시장과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현대불교신문을 알렸고, 스님과 불자들에게는 국군아저씨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해줄 것을 권선했습니다. 오로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불법홍포의 사명감이 있었기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해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불교신문은 다릅니다. 대행 선사의 법문을 지상 중계하는 '길을 묻는 이에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좋지 않아 신문을 읽는 것이 어렵지만, 대행 선사의 법문은 꼭 찾아 읽고, 또 읽습니다. 저 같은 독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대행 선사께서 현대불교신문의 사훈으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내세우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근본은 저 사훈에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연꽃을 피워내면 그 향기는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현대불교신문

"28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남의 집 말고 보물

탐내지 말고 보물부터

내 집 안 닦고

찾아서

빛내라

대행선사법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